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중국을 주께로

1995년 11,12월

특집 / 대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잊어선 안 될 또 다른 중국
- 대만선교, 이런 선교사가 필요하다
- 대만 교회의 중국선교 사역 검토 및 전망
- 중국 선교의 징검다리, 대만 유학생에게 대륙의 비전을!
- “타이아르족을 위해 여생을 바칩니다”



성광 전문인 선교훈련원

2월 개강 예정

■ 지원자격

타문화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느끼고 이에 따라 선교지로 떠나
기 전에 최종적으로 선교훈련을 받고자 하는 분

■ 훈련기간

1. A코스(정규합숙훈련) : 11개월
국내 8개월(1학기 : 3~6월, 2학기 : 9~12월)
현지 3개월(단기 수습지역)
2. B코스(비합숙훈련 : 학생 및 직장인 대상) : 2년
국내 2년(1학기 : 3~6월, 2학기 : 9~12월)
화·금(19:00~21:00) · 토(14:00~19:00)

■ 훈련비용(국내)

1. A코스 : 훈련비 - 미혼자 1학기당 280,000원
기혼자(부부) 1학기당 500,000원
생활비(매월) - 미혼자 15만원, 기혼자(부부) 27만원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비 있음
현지 답사 및 단기 사역비는 별도
2. B코스 : 학기당 20만원

■ 구비서류

지원서 양식(원사-소정양식), 간증문, 지도자 평가서, 담임목사 추천서(또는 단체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호적등본, 건강진단서

■ 원서교부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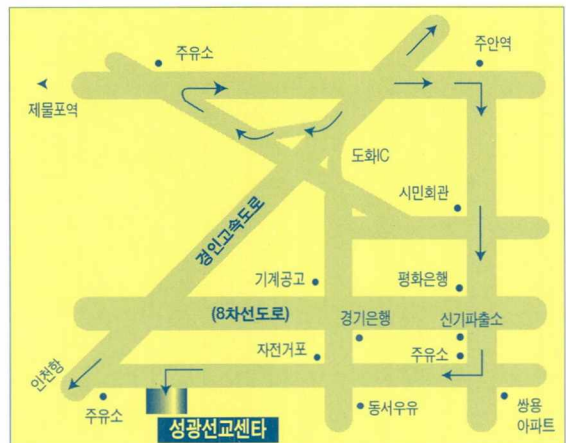
기 간 : 95년 11월 1일~12월 31일까지
면 접 : 96년 1월 22일~31일(9~18시/12~13시는 중식)
개 원 : 96년 2월 26일
신청금 : 10,000원

■ 훈련생 혜택사항

자녀교육혜택 : 유아원(4,5세), 유치원(6,7세), 특별장학금지급
전 가족 무료진료 혜택 : 치과, 내과, 외과, 소아과, 신경외과
선교 정보실 : 문서 및 비디오 선교자료 향시 이용 가능
선교 도서관 : 향시 사용
현대식 LAB 시설 수시 사용(30석)

■ 훈련장소

성광선교센터 : T. (032) 872-2336~8, F. (032) 862-6942



성광선교센터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4동 89번지 양치호 목사

TEL : (032) 872-2336~8 FAX : (032) 862-6942

■ 교통편 : 주안역에서 시내버스 5번, 41번, 마을버스 1번
인하대 후문 한 정거장전에 하차(20분 소요)

성도들은 헌신적인데……

지난

여름, 나는 홍콩에서 싱가포르 목회자 몇 분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다. 그 가운데 한국에 두 차례 다녀간 적이 있다는 한 목사님이 계셨다. 대화가 한국 교회의 부흥에 이르자 그는 한국 교회 부흥의 견인차로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꼽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교인은 가난해도 교회는 부유한 것’이 한국 교회인 반면, ‘교인은 부유하나 교회는 가난한 것’이 싱가포르 교회라는 말을 덧붙였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의 헌신적 교회 봉사를 높이 평가하는 이들의 식견에 놀랐다. 그리고 이 정도의 안목이라면 한국 교회의 약점도 나름대로 간파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점을 거론하지 않을까 대화 내내 전전긍긍했다. 다행히 화제가 중국 교회 쪽으로 옮겨가면서 낭패는 당하지 않았으나 다분히 내 입장을 생각하고 일부러 그 점을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한국 교회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국 교회는 성장둔화 단계를 넘어서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한국 사회가 그만큼 영적으로 척박해졌다는 말인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는 계속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성도들의 전도의 열정이 약해진 때문일까?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장둔화에 대한 설명은 될지 모르나 마이너스 성장까지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것은 상당 부분 ‘교회의 미성숙’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교회의 교회답지 못함에 실망한 다수의 초신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만약 한국 교회가 이제 ‘유아기의 이기적 본능’에서 벗어나 ‘자기희생’이라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란다면 한국 교회의 부흥은 물론 세계선교의 소임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우리는 ‘헌신된 성도’와 ‘희생적 교회’가 연출할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친히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속히 오기를 소망한다.

중국을 주께로

1995년 11/12월호



특집/ 대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18 잊어선 안 될 또 다른 중국 /편집부
- 24 대만선교, 이런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상란
- 29 대만 교회의 중국선교 사역 검토 및 전망 /陳鏞
- 33 중국선교의 징검다리, 대만 유학생에게 대륙의 비전을!
- 37 “타이아르족을 위해 여생을 바치렵니다” /권수영

선교 나침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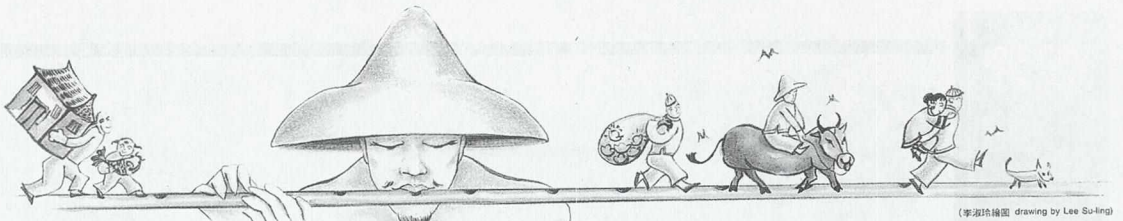
- 1 발행인 칼럼 성도들은 헌신적인데…… /이동화
- 4 선교일언 제자삼는 선교 /이중표
- 7 중국 교회 현주소 향후 10년과 중국 교회 /정현진
- 12 돌보기 천둥소리만 크고 내리는 비는 적다 /유전명
- 49 세미나 지상중계 중국인의 세계관 /채은수

선교사의 삶

- 42 문화충격 선교사의 문화적응과 자기관리 /김성복
- 48 묵상의 샘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깊은 곳에 들어가라
- 70 현지에서 온 소식 선교사의 아내 사역 /김미미
- 94 나의 사랑하는 책 다른 행진곡 /정혜선

오늘의 중국

- 14 중국 교회 초점 성경신학의 중요성을 자각하기 시작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65 시사만평 「양보」 외
- 66 중국은 지금 인기직종으로 떠오른 미용업의 어두운 그림자
- 100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112 개혁개방 시대의 유행어 ‘먹고 마시고 즐기자(吃喝玩樂)’



간증 · 인물

- 74 중국선교사의 간증(8) 산터우(汕頭)로의 부르심 /허드슨 테일러
 78 중국선교의 발자취 전란의 비극 /방지일
 80 대륙성도의 간증 참 빛 앞에 무너진 마르크스의 요새 /木
 84 한국교회 중국선교사 인물연구(4)
 1917년 중화민국 선교사 홍승한 목사(1) /김교철

중국을 알자

- 55 중국의 省 황화와 함께 흐르는 역사의 땅 하북성 · 하남성 · 산둥성
 62 중국의 문화 중국요리(II) /衣建美
 96 신간 도서 『기독교와 중국의 현대화』 외 2권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97 선교중국어 你信主多久了?(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차이나
 98 중국영화 감상 조이력 클럽 /김성곤
 113 중국어로 찬양을 當稱謝耶和華(주께 감사하세)

기도합주회

- 108 '중국을주께로' 기도캘린더

단신 · 자료실

- 106 선교단신
 114 자료실① 대만(臺灣)의 교파와 교회
 자료실② 외상(外商)의 투자성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 규정
 자료실③ 외상(外商)의 투자 방향 지도에 관한 잠정 규정

표지설명:

대만 남쪽에 위치한 어촌 동항(東港). 어시장과 사찰로 유명한 이곳의 주민들은 대부분 고기를 잡아 생활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남달리 종교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어부들은 동룡궁(東隆宮)이라 불리우는 이 사찰에서 3년마다 한번씩 모형 배를 만들어 불태워 바다에 띄어보내는 행위를 통해 숭배하는 귀신에게 평안을 빈다.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T. 592-0132

제자삼는 선교

이중표

중국 정부는 외국인들이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선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러므로 중국 교회와 협력하여 중국 교회로 하여금 자신을 복음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국 교회의 역할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중국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삼자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자기들을 식민지화하는 식민지 선교이다. 이것은 중국 역사, 특히 근대사 가운데 계속적인 서양의 침략이 있었고 그 침략에는 반드시 기독교 선교사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이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중국인으로 하여금 중국을 복음화하도록 돕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복음화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이 사실은 분명하다. 대원군 시절,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조선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던 서양 선교사들은 먼저 우리 나라 사람이 신학교를 세우고 우리 나라 사람이 이 민족을 복음화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역할을 감당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중국인 스스로가 자기 민족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

할만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강한 나라가 침략하여 점령하는 제국주의처럼, 교회도 큰 외국 교회가 와서 현지의 교회를 점령하는 식민지 선교가 되어 민족을 분열시키는 암적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

현재 북한선교에 대해 가장 크게 걱정되는 점은, 북한이 개방되었을 때 한국의 모든 교파가 나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보다는 교파의 신학을 세워서 북한 교회를 분열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걱정이 비단 북한선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선교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열정은 높이 사지만, 문제는 그들이 막상 중국에 갈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어느 교파의 제자, 어느 선교단체의 제자가 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교파의 신학을 세우게 되고, 자기 선교단체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현재 필리핀 선교가 문제가 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유 때문이다. 복음이 들어왔지만 제국주의 식민지 정서가 가득 들어 있어 오히려 그 민족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너무 많은 교파가 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복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파끼리 싸우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낮선 미지의 땅인 중국에 가서 선교의 뜻을 가지고 복음화 하려는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효과적인 중국선교를 위해 몇 가지 말을 하고자 한다.

첫째,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일을 전도라 한다면, 그 민족 전체를 예수님의 인격화 하는 작업은 제자화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목표는 겨우 예수믿고 구원받게 하는 데 있지 않다. 한 사람을 제자삼아 예수님의 인격의 높은 경지가

지 성장시키게 하는 데 예수님의 목표가 있다.

‘제자’라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을 배우는 자,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자라는 의미이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다. 여기서 멍에를 메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배우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자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식민지 선교를 버리려면 인간적인 신학, 자기만의 신학을 버리고, 심령 속에 온전히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예수님을 중국 땅에 심어야 중국에 유익한 복음이 된다.

둘째, 제자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자화하는 재생산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

전도 자체만으로는 재생산이 불가능하지만, 한 사람을 제자 삼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제자화’는 연속적인 재생산 작업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중국선교의 꿈을 갖고 나가려는 개인이나 선교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스스로 제자화 정신을 갖고 가서 중국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갈 때는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철저히 버리고 나도 역시 중국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가서 전해야 한다.

그 다음 선교의 좋은 방법은, 중국 신학교 교육을 통해 제자삼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를 볼 때,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전도했던 것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서양의 선교사들이 신학교를 세워 이곳에서 교육받은 신학생들이 결국 한국을 복음화하는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귀중하다. 이처럼 우리도 가능하다면 중국 신학교의 교수로 들어가 중국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제자삼고 양육하는 일을 함으로써, 중국을 복음화할 수 있는 많은 학생들을 세워줘야 할 것이다.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땅의 몸을 입고 땅의 사람이 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고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요, 예수님의 선교이다. 간디는 영국의 기독교 선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 정책과 함께 들어와서 선교한 기독교는 다 물러가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인도에 남겨 두고 떠나라고.

이와 같이 우리도 자기의 신학, 자기 교파의 신학을 고집하지 않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중국에 전해주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선교 방법론을 연구한다든지 중국 선교 전략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국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고, 나의 신학을 버리고 가야만 한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닮은 중국 민족을 만들고 또 저 민족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합시키는 세례를 주고 그것을 가르치라. 중국선교의 큰 꿈을 갖되 제자삼는 꿈을 갖고 들어가길 바란다.

이종표 / 한신교회 담임목사

한중교회협력위원회 상임회장

향후 10년과 중국 교회

정현진

최근

들어,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름이면 중국행 배편과 비행기편이 만원이다. 돈에 대한 관심과 중국 사람들의 사는 모습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적절하게 어울려지는 때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중국에 대해 포착하기 어려워한다. 중국을 드나드는 사업가나 여행자들, 혹은 선교사들의 중국인에 대한 평가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중국인들 자신이 애매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국제사회에서 보여주는 중국의 행보는 순진한 듯, 돌발적인 듯 보이지만 대단히 계산적이고 치밀하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중국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중국 교회

이러한 특징은 중국의 교회에 대한 이해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현재의 흐름이 장래의 모습을 반영한

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10여년 전, 중국보다 훨씬 그 구조가 단순한 한국 교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모양으로 예측을 한 바 있었다. 그 대부분의 예측이 낙관적이었다. 대표적으로는 <선교사 열전, 1983년>을 쓴 루스 터커가 금세기 말까지 남한 인구의 절반 가량이 기독교인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금세기 말에 거의 다다른 지금 이 예측이 옳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 인구의 1/4을 자랑하던 한국 교회는 오히려 기독교인 숫자의 마이너스 성장과 교회 내적 병폐들을 끌어안고 신음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교회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10년 후, 중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평균적으로 하루 2만 5천 명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있다고 하는 중국 교회의 현재적 현상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10년 후 약 1억의 기독교인이 추가될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

도 위험하다. 지금부터 10여년 전 한국 교회는 일일 평균 1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던 선상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은밀한 인구이동을 통한 교회 통폐합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 교회에 있어서 향후 10년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되리라는 것이다. 이는 여러 선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정치적인 보수성은 여전하면서도 경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개방은 꾸준히 이어지게 될 향후 10년의 기간을 중국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현재 솟아오르고 있는 중국 교회 성장의 열기에 서구 및 한국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가담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서구 교회의 선교는 내놓고서라도 지금까지 중국에 대하여 진행해온 우리의 선교 방식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들이 매우 많다. 그리고 현재 곳곳에서 이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고



대개 중국의 어느 교회를 가도 자리를 꽉 메운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 교회가 자생적인 전도 열기에 의해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라는 점이다.

있다. 우리는 이 10년 동안 중국이 보여줄 수 있는 가능한 변화들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예상하면서, 또 한국 교회가 겪어온 시행착오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중국선교의 방식을 좀 더 단순화, 집중화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독교가 중국 사회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와 더불어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중국 교회와의 관련 부분을 되짚어 보면서, 향후 10년 간 중국선교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선교방법을 발견해 보고자 한다.

과연 기독교는 중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가?

중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려면, 중국 교회의 급성장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중국 교회의 성장은 놀랍다.

그리고 자생적인 전도 열기에 의해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이를 위해 어떤 분은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던 1920~1930년대보다 선교사들이 추방된 1949년 이후의 교회성장이 현저하게 괄목할 만하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 성장은 1976년 모택동 사망 이후 거의 수직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 벌써 5천만 혹은 7천만이라고 한다(강성광, 「중국은 지금」, p. 173). 중국의 인구통계국에서 1990~1992년 사이에 은밀히 조사한 결과로는 6천만 명에 이른다고 전해졌다(국민일보 1995. 9. 19).

이같은 급성장의 배경으로서, 선교사들은 문화대혁명의 후유증으로 인한 사상적 공백기를 기독교 특유의 '활동성과 적합성'이 메워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게다가

1989년에 있었던 천안문 사태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서구적 사상에 대한 가난한 인민들의 호기심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으로 널리 받아들여진다. 최근에는 이러한 교인 수의 증가 대열에 심지어 적지 않은 공산당원들이 가세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막으려는 공산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종교활동 참여를 강력 규제하겠다는 당내 문서를 회람시킨 바 있다.

실로 기독교는 중국에서 열병처럼 번지는 것 같고, 중국 사회 곳곳을 강타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중국 교회의 급성장은 중국인 신자들의 순수한 복음적 열정과 함께 전해지고 있어 한국의 신자들을 열광시키고 있다(물론, 열광하고 감동하는 것에 비해 참여하는 정도는 매

우 미미하다). 그리고 이 열광은 한국 교인들로 하여금 거의 유행처럼 중국을 향하게 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복음화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중국의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중국의 기독교가 중국사회 전체를 강타하는 듯이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일반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너무 순진해서 선교 정책에 있어 자칫 잘못하면 성급한 실수들을 더 많이 저지르게 할 수도 있다. 조금한 만큼 성실한 열매를 거두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10월에 중국사회과학원의 세계종교문제연구소에서 초청하는 형태로 모임이 진행된 국제학술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결과물이 번역되어 최근 한국에서 출판되었다(기독교와 중국의 현대화,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1995. 5. 10, 본지 p.96신간도서 참조 - 편집자 주).

물론, 여기에 실린 글의 대부분이 중국 사회주의의 입장에서 서서 되도록 객관적으로 기독교를 논평하려고 애를 썼고, 또 기독교의 성장을 대단치 않게 보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글들은 중국 내 비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중국 교회에 대한 시각을 어느 정도라도 소개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과 도전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복음을 제시받을 사람들, 복음의 제시 앞서서 교회에 대한 선 이해를 먼저 떠올릴 현재의 비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중국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미리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글들이 대체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중국 내 기독교성장의 원인'은, 중국의 기독교 신학이 중국

인들의 구미에 맞게 현실화, 세속화의 과정을 적절하게 통과했다는 것이다(물론, 이는 삼자신학을 염두에 둔 이야기다). 죄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고 물질적인 부의 추구를 죄스러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게다가 금상첨화격으로 도덕적 기쁨도 갖추고 있는 기독교를 사람들이 쉽게 소화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전통적인 신앙관과 기독교론 및 교회학을 엄격히 지킬 필요는 없고, 현세를 부인하고 이탈할 필요도 없으며, 세속 가운데 있으면서도 속세를 떠난 삶을 살 수 있으며, 세속을 떠나 산다는 정신으로 세속의 규범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李平權의 글 중)

그리고 나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결론짓기를 “...중국을 적대시하는 서구의 정치 세력은... 신앙의 다원화를 통해 정치의 다변화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도 기독교만이 신앙의 진공상태를 메워 오늘날의 중국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수량이나 역량에 있어서나 아직 모두 미미하다. 그들은 현재 극소수일뿐 아니라 장래에도 결코 중국 인구의 대다수를 점할 수는 없다.”라고 한다.

중국의 오늘의 형편에서 볼 때, 정치적인 입장에서 중국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적 수단에 의해 기독교가 현저하게 약화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교회의 신학이 세속적인 질서에 타협함으로써 신앙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는

형태로 신도들을 끌어 모으는 대목은, 그것이 비록 공인 삼자교회의 신학에 국한되는 이야기라고 해도 웬지 섬뜩하다.

그것은 한국 교회에서 중국으로 향한 적지 않은 현금들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는 반성 때문이기도 하고, 또 현재 중국사회 전체가 파생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경제적 성취를 향한 열기가 행여나 이러한 현상을 부추길 뿐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변질 혹은 포기 현상을 낳지 않을까 해서이다. 더군다나 이와 더불어 최근에 자주 전해지는 중국 내 조선족 그리스도인들 및 한족 지도자들의 물질과 연관된 도덕성의 문제는 그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중국의 기독교는 중국 사회를 강타하지 않는다. 아니 강타하면 안 될지도 모른다. 오히려 기독교는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이고 확고하게 열매를 거두어 가는 능력이라는 것이 중국에서도 계속 증거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좋으리라.

한편, 중국이 잘살게 될 것을 대비해서 가난한 지금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실제로 위에서 지적한 교회의 세속적 질서에 대한 우려할 만한 타협과 더불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성장은 교회의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한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중국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은 중국의 국가적 성장이 더딜수록 유리하다고 본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고, 중국의 개방정책이 지속되고 경제적 성장이 대다수 중국인들의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면서 전도의 물결은 식어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리틀 쿡(Little R. Cook)은 개방의 창이 점점 넓어져 중국인들의 삶이 윤택해 질수록 복음에 대해 열려져 있는 창은 점점 작아질 것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중국의 전반적인 형편에서 볼 때, 중국이 아직 가난한 시기에 복음을 빨리 빨리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분명,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는 유력한 생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판단을 유력하게 느낄수록, 웬지 현실에 복음을 매달아 두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복음을 제시하되 현실에 대한 바르고 예리한 판단과 분석에 근거하는 것이 당연하고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는 원칙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이것을 현실에 일시적으로만 적용될 듯한 조금한 방법론 만들기예 몰두해온 것이 사실이다.

바로 그런 의식 때문에 복음 전파에 대한 진지하고도 성실한 준비가 부족하고 물량적인 파상공세로 복음을 흘뿌리는 현상이 지금 중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조선족 그리스도인들 중 상당수가 물량적 선교 정책의 희생자가 되어가고 있고, 중국에서도 한국 교회들에 대한 경계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우리가 좀 더 중국 현실에 대한 진지한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와는 사뭇 다른 방법으로 선교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향후 10년을 선교할 것인가?

부흥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께서 3년여 기간 동안 12명에게 매달리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편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오순절 사건 직후 수천 명씩 회심한 드라마틱한 부흥의 현상이다. 물론, 이 부흥의 위대함은 역사 속에서 재현되어 왔고, 또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반드시 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욕망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의 불씨가 있다.

바울에게는 소수의 헌신된 동역자들이 있었고, 결국 바울의 세계복음화 사역은 이들과의 동역을 통해서 달성되었다. 더구나, 바울은 현저한 동역자들을 발굴하고서 헌신적으로 그들을 돌보면서 훈련시켰다. 결국 이들에 의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한다.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보이는 신학들은 다수 민중들에 의한 변혁을 꿈꾸어 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헌신된 무리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확장되어 온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다. 그러나 결국 따지고 보면, 모든 따르는 자들이 각각 헌신된 소수의 그룹들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앞으로 중국이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리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97년 중반을 기해 세계적인 금융시장인 홍콩을 인수하고, 티벳과 대만과의 줄다리기를 어느 정도라도 정리하고 나면, 그들의 주도적 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위상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중국인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어울리게 되면 그들의 의식, 무의식에 가해자로 자리매김되어있는 기독교는 더이상 값싼 물량 공세로는 견뎌낼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10년 이내에 반드시 출현하게 될 것이고 그 조짐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한 자녀밖에 가질 수 없는 중국의 가정들에서 자라나고 있



21세기 중국이 국제사회를 주도해 가는 국가로 발전했을 때 그 세대의 주인공들에게 복음은 하찮은 것이 될지도 모른다.

는 신세대들은 대체로 자유분방하고 이기적인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관광명소를 방문해 본 사람들이라면 그곳에 소풍 온 중국 어린이들의 비만한 모습과 자유분방한 모습에 놀라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혼자 밖에 없는 그들에게 집중되는 부모의 사랑은 이후 세대의 중국 사회를 두렵게 느끼게 한다. 이들은 물질적 궁핍에 따른 영적 가난함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될 것이다. 10년 이내에 청년이 될 이들에게 복음은 하찮은 것이 될지도 모른다.

이제 한국 교회는 중국에 과시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선교 공세를 조심스럽게 거두면서, 동시에 빠른 시일 안에 현지인들 중 지도자적인 인물들을 발굴하여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선교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곧 체계적인 지도자 훈련계획에 따른 은밀하고도 분명한 사역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삼자교회들과 연관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며, 삼자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 중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석 같은 지도적 인물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이 사역이 배가식 제자훈련 형태로 지속될 수 있다면,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의 현지인 지도자들을 보게 될 것이며, 이후로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명백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동북지방 조선족 이재민 청소년을 지원하십시오!

조선족 동포들이 밀집돼 있는 동북 지방, 특히 요녕성과 길림성의 일부 지역은 지난 7월 1백년래의 혹심한 홍수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의 조사에 따르면 요녕성의 경우 홍수로 농작물이 유실돼 5백90만명 이상이 식량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백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가족들이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바람에 무려 1백20만명이 집도 없이 플라스틱으로 지붕을 덮은 임시 오두막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65명이 사망한 인근의 길림성에서도 1백28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그중 46만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이들 이재민 가운데는 상당수의 조선족 동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8월말 요녕성 심양시, 신빈현 및 환인현 등을 방문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 현장을 직접 목도한 바 있습니다. 벼논과 옥수수 밭 등이 완전히 모래 바닥으로 변한 처참한 광경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수많은 이재민들을 우리의 힘으로 도울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있고 또 국제적십자사 등의 구제 활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제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재민 중에서 특히 구원의 손길이 절실한 일부 조선족 동포 청소년들을 돕는 일입니다.

본인은 지난번에 심양시의 퇴직한 조선족 동포들이 경영하는 '조선족 실험 직업학교'를 방문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92년부터 한 공장 건물의 3층 전체를 세내 개교한 이 직업학교는 매년 2백여명씩의 농촌 거주 조선족 학생들을 교육시켜 주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체에 취업시켜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일부터 시작되는 신학년도를 맞아 농촌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2백여명의 조선족 학생들이 1년 과정의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개학을 앞두고 이미 납부한 학비를 반환받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심한 수재로 취학은 커녕 집안 식구들의 호구대책이 막연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1일 현재, 학비를 반환받은 학생이 15명에 달했던 것이 지난 7일의 보고에 의하면 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본인은 이 직업학교에서 1년의 공부를 마치면 농촌 생활을 청산하고 도시로 진출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던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들의 정경이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는 이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학생 1인당 연간 비용은 학비와 기숙사비를 합쳐 총 3천1백80원 인민폐(한화 약31만 8천원)가 됩니다.

이같은 액수는 우리에게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만한 액수의 돈이 한 조선족 동포 학생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는 엄청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우한 조선족 동포 학생들을 십시일반으로 도움으로써 그들의 장래에 희망을 주고 나아가 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인도하는 보람 있는 사업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1995. 9. 17.

조선족 청소년 지원 추진위원회(가칭)

「조선족 실험 직업학교」 조선족 청소년 지원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중국어문선교회로 연락바랍니다.

Tel. 533-5497, 592-0132 담당 권수영 간사

천둥소리만 크고 내리는 비는 적다

유전명

중국 과 한국이 수교한지 이미 3년이 되었다. 이 3년 동안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35만 명을 넘어섰다. 대부분 관광과 투자가 목적이었으나, 그 중에 선교사역을 목적으로 간 사람도 결코 적지 않다.

과거 10년 동안 한국 교회는 확실히 선교사역에 큰 노력을 기울였고 선교기관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 선교사로 파송받을 기회를 찾았고, 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지금은 동남아, 중남미 심지어 아프리카에까지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다. 근래들어 러시아, 중국 등도 아주 환영받는 선교지역이 되었다.

선교역사를 볼 때 어떠한 국가도 한국과 같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없었다. 이는 한국인의 적극적인 성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5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한 한국인 선교사의 보고에 따르면, 선교목적으로 중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미 7백여 명을 넘었고 그 중 대부분이 동북지역에 몰려 있다고 한다.

최근에 선교를 목적으로 대륙에 거주하는 목사가 북한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 정부 및 세계 모든 교회의 주목을 끌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아 여기저기

서 말이 많다. 오랫동안 대륙사역을 해온 어떤 분은, 이것은 자주 강단에서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이다’라고 비판하는 목사들에 대한 공산당의 공격이자 경고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어쨌든 우리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일련의 반성을 하고 조정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교회가 중국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 왜 자주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아마 대진제상에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주요 원인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의 장벽이다.

대륙에 투자한 한 상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는 중국인과 함께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난관은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물며 선교사역에 있어서라! 선교는 완전히 언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약 선교사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사역은 불가능하게 된다. 오늘날 대륙에서 사역하는 몇명의 선교사 가운데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언어장애를 돌파하지 못하여, 실제적으로는 아무 일도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 따름이다.

둘째, 문화적 차이이다.

한번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목사와 같이 대륙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는 며칠 동안 한 번도 화장실을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일을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는데, 그의 부인이 밖에서 망을 보다가 사람이 오면 안에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었다. 조금 있다가 현지의 한 전도사가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오자 부인은 “사람 있어요” 라고 했다. 그 전도사는 부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에게 말을 건넸다.

“부인이 밖에서 기다려요”

대륙에서 성장한 사람은 아무 꺼리낌없이 일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데 반해, 이 한국인 목사는 즉시 바지를 올리고 뛰쳐나간 것을 보면 그 문화적 차이를 알 수 있다. 선교사가 생활습관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려면 상당한 대가가 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서 포기하게 될 것이다.

셋째, 물질주의의 해악이다.

한국과 중국대륙의 생활수준의 차이는 매우 크다. 대륙의 1년치 월급을 한국에서는 한 달 만에 벌 수도 있다. 이러한 좋은 조건을 때때로 중국에 간 선교사들이 악용하여 한꺼번에 많은 돈을 현금한다든지, 경솔하게 전달하고 쉽게 약속을 해서 결국은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욕심, 속임수, 실언(失言), 부정, 이런 것들이 종종 중국과 한국교회 인사(人士)들 사이에 나타난다.

네째, 교파주의의 모순이다.

공산주의가 대륙을 통치한 40여 년 동안 대륙 교회 성도들의 교회관과 해외 교회들의 교회관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겼다. 이것은 중국 선교 사역을 하는 데 하나의 큰 장애요소가

한국의 사역자들이 교파의 정책에 따라 교파의 사역을 하도록 요구할 때마다 중국 사역자들은 마음에 모순이 생긴다.

되었다. 한국의 교파 중심주의는 매우 심해 어느 교파에 속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대륙에는 교파가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싫어한다. 그래서 한국의 사역자들이 교파의 정책에 따라 교파의 사역을 하도록 요구할 때마다 중국 사역자들은 마음에 모순이 생긴다. 그들의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금전적인 압력 때문에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 사역자들은 이런 사역 방식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국선교 사역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교파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해 나갈 수 없다.

결론

한국 교회의 근 10년 동안의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투자와 열정은 칭찬할 만하나, 유감스럽게도 중국선교에 투자한 인력과 물질에 비해 얻어 낸 성과는 많지 않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중국 교회에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중국 교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중국문화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중국 교회에 대한 선교방법도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은 거창하고 기세가 드높았지만, 그에 비해 효과는 별볼일이 없게 되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유전명 / 여한중화기독교한성교회(旅韓中華基督教漢城教會) 담임목사 · 중국복음선교회 대표



성경신학의 중요성을 자각하기 시작

성경신학의 중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하다.

일부 성도들이 성경신학의 중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진리를 사모하는 적극적인 태도와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의지는 바람직한 현상을 가져왔다. 그들은 성장하고 있다!

“국내 교회는 외부상황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세계적인 연합행동, 성경연구의 성과, 역사 혹은 고고학적인 새로운 증거, 독학 신학교재 등... 우리는 너무 외부사정에 어둡다. 많은 해외의 목사들이 중국 교회를 도우러 오긴 하지만 중국에 ‘송상절(宋尙節) 목사’ 같은 사람이 나와야지 외부의 지체들이 제공하는 도움만을 바랄 수는 없다. 나는 노신(魯迅)이 제창한 나래주의(拿來主義: 전통 시대의 문화 유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 서서 취사선택적으로 수용·계승하려는 사고방식-역자 주)에 매우 동감하는데 어린이 이 마냥 그저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성장하려면 지혜를 통달하여 직접 양식을 구해와야 하는 것이다...”

- 광둥(廣東)에서 한 성도가 보내온 편지 -

이밖에도 어떤 성도들은 「무디성경주석(幕油神學手冊)」, 「성경진리백과(聖經眞理百課)」, 「신앙요도(信仰要道)」, 「성경진리와 소식(聖經眞理與消息)」 등의 책을 많이 구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계시를 받아 주를 따르는 의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守望中華 第127期>

기독교 「복음삼자경」으로 교리 전파

전통 고전문학집인 「삼자경(三字經)」이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다. 이 책은 계몽서적으로 중국역사, 문화, 경전, 윤리 및 과학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광둥교육출판사에서 「신삼자경(新三字經)」이 출간된 후 반 년만에 이미 3천3백만 권이 팔렸다. 그래서 기독교 출판사에서 「복음삼자경」을 출간했는데 이것은 친구약전서를 근거로 한 것으로 산시(陝西)성 어느 성도의 작품이다. 옛 조상들의 지혜를 빌어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다.

<公教報 1995. 8. 4>



천진시(天津市) 강위로당(岡緯路堂) 교회

천주교 삼원교구, 신도 양육과정 실시

산시성 천주교 삼원교구에서는 올 4월부터 2년제 성경 및 신앙양육 과정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4월 21일 개강예배를 드린 후 20세에서 40세까지의 교우 약120명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홍콩의 한 중국교회 연구원의 말에 의하면 중국 내에서 이와 같은 훈련과정은 매우 드물다고 한다.

<公教報 1995. 8. 28>

당원들의 입교 급속히 증가

꾸이저우(貴州)성의 비지에(畢節)지역은 1991년만 해도 기독교에 입교를 한 당원 수가 전 지역을 통틀어 150명밖에 안되었었는데 올해 이미 2천명을 넘어섰다. 이 지역의 많은 당원들이 기독교에 입교하자 공안당국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젊은 당원뿐만 아니라 20여년간 당서기로 지낸 양(楊)모씨 등 나이 많은 간부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 당원의 입교 증가는 그리스도인의 급증을 불러 일으켰다.

<明報 1995. 8. 31>

샤오싱(紹興)교회 훈련센터 설립

저장(浙江)성 샤오싱시 기독교 양회는 금년 4월부터 제1기 훈련반을 개설하여, 신축한 4층 건물인 훈련센터를 정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훈련생은 69명으로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이다. 성 양회의 도움과 지지,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헌신된 종들의 가르침 속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샤오싱 양회는 이 훈련반을 시 전역의 각 교회에 확대하여 튼튼한 초석을 쌓도록 할 방침이다.

<天風 1995. 8 >

안후이(安徽)기독교협회 목사안수

1995년 4월 28일 안후이기독교협회는 허페이(合肥)에서 원신꾸이(聞新貴)와 7명에게 목사안수를 주었다. 이들은 전 성의 8개 시와 현에서 왔으며 평균 연령은 30세이다. 전원이 금릉(金陵)신학교 혹은 안후이신학교 졸업생들이다.

<天風 1995. 8 >

수십 년만에 목사안수를 받은 홍콩의 허샤오지에(何少杰) 형제

홍콩의 광따(廣大)학교 교장 허샤오지에(何少杰) 형제는 1953년에 금릉신학교를 졸업한 후 홍콩으로 건너가 일하면서 복음전도사역을 감당하여왔다. 그는 국외에 있는 38년간 줄곧 조국의 모교에서 목사안수 받는 것을 소원하여 왔다. 그래서 특별히 장수(江蘇)성 기독교협회에 이를 청원하였고, 장수성 기독교협회는 그의 몇십 년간의 간증에 의거하여 목사안수를 주기로 결정했다. 하 형제의 염원이 몇십 년만에 성취된 것이다.

4월 30일 난징(南京) 성바오로 교회에서 덩광원(丁光訓) 주교와 한베드로(韓彼得) 목사, 천지민(陳澤民) 목사의 집례로 안수식이 거행되었다.

<天風 1995. 8 >

한단(邯鄲)의 농촌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청년 찬양단

허베이(河北)성 한단에서 한 향촌교회 찬양단이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 성도들로 구성된 이 찬양단은 주로 교우들의 경조사에 참가한다. 이들의 교통수단은 자전 거지만 거리가 멀고, 날씨가 춥고, 폭풍이 몰아쳐도 개의치 않고 요청이 있으면 즉각 달려가서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열심히 섬긴다. 어떤 때는 산 속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려움에 처하고 굶주리기도 하지만 한마디 불평도 없이 아름다운 찬양을 가는 곳마다 울려 형제자매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고 이로써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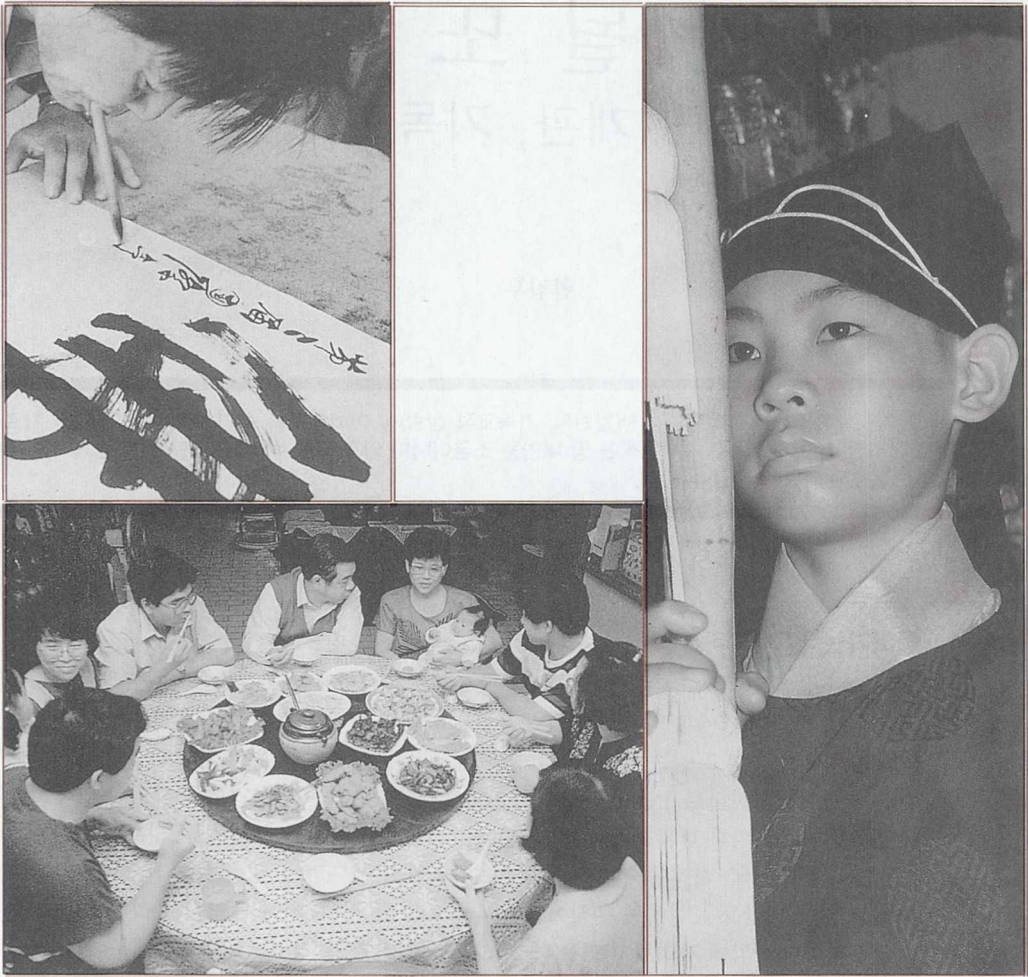
<天風 1995. 8 >

루취엔(祿勸) 소수민족지구에 지도자 훈련반 개설

위난(雲南) 쿤밍(昆明)시 양회는 1995년 3월, 루취엔 소수민족지구에서 1개월 간의 성경훈련반을 개설하였다. 이 훈련반에는 전 현 17개 향진에서 62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양육목적은 사역자들이 올바른 성경지식을 쌓아 교회를 잘 지도할 수 있게 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이단사설을 분별하며, 삼자의 정책에 따라 교회를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天風 1995. 8 >

특집 / 대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만은 진정 잊혀진 땅인가?

미국과 중국의 수교로 점차 국제사회의 이면으로 밀려가더니,
급기야 한중수교로 우리의 뇌리에서조차 희미해진 작은 중국 대만.
관광하려는 사람도, 배우려는 사람도, 장사하려는 사람도,
심지어 중국선교를 꿈꾸는 사람도 온통 대륙으로 대륙으로 쏠려가는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다.

과연 대만은 잊혀져도 좋은 나라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대만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는 대만을 위해, 대만과 함께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잊어선 안 될 또 다른 중국

대만 개관, 기독교 상황

편집부

이 글은 독자들이 대만의 기본적 상황(일반적, 기독교적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편집부에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작은 땅 대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길 바라고 이 땅의 복음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이 세워지길 바란다.

들어가는 말

우리 나라 경상남북도를 합한 정도의 작은 땅, 그러나 그 작은 섬 안에 12억 중국인의 고유한 문화와 철학이 숨쉬고 있는 나라,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 중 하나로 1인당 GNP가 US\$ 11,236에 이르고, 외환 보유고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경제 선진국,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만을 표현하는 수식어들이다.

중국 대륙이 장막에 가리워져 있을 때, 우리는 대만을 통해서 중국인과 중국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중국선교를 할 수 없었을 때 우리는 대만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이 당시만 해도 우리는 스스럼없이 대만을 '중국'이라고 칭했었다.

그러나 잠자던 사자 중화인민공화국이 개혁 개방으로 깨어나면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정치적 실리를 따라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대만은 세계 질서의 한구석으로 밀려나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던 우리의 관심에서조차 어느 정도 잊혀지게 된 것이다. 이제 모든 면에서 '중국' 하면 금방

대륙을 떠올리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도 대만을 향한 관심을 이미 거두셨을까? 물질주의와 세속화, 심각한 우상 숭배로 영혼이 찌들어 있는 대만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이미 제외된 영혼들인가? 중국 대륙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대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 역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할 중국인이기 때문이다.

일반적 상황

자연, 지리적 배경

대만은 중국 동남 해안으로부터 180km, 일본 남방으로부터 1,2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면적은 36,000km²이다. 국토의 70%가 고령화된 해발 100m 이상의 산악지대인데, 중부 이남과 동해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서해안 쪽의 대부분은 평지로 기름진 평야이다. 이 때문에 섬 전체의 1/4만이 주거가 가능하며, 현재 2,050만명 인구 전체의 95%가 서해안의 가늘고 긴 지형에 밀집, 거주하고 있다.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온 다습

한 아열대 기후이며 연평균 기온이 섭씨 20℃ 이상이다. 여름에는 30℃ 전후의 무더운 날씨이고, 겨울은 약 14℃ 정도 되며 아주 춥지는 않지만 비가 많이 내린다. 지진과 태풍 지역에 속해 있어서 주기적으로 피해를 입기도 한다.

민족과 언어

원래 대만은 말레이-폴리네시아계의 원주민들이 흩어져 살던 섬이었는데, 17세기부터 중국 푸젠(福建), 광둥(廣東)의 한족 이주민과 중국 정권의 통치가 시작됨으로써 소수의 원주민 사회가 내재하는 중국 문명권의 한 지역이 되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1949년을 전후로 하여 대륙에서 내전에 실패한 국민당 정권이 대만으로 쫓겨오게 되는데, 이들을 ‘제2차 이민’ 또는 ‘외성인(外省人)’이라고 한다. 총 대만 인구 2,075만 명(1992년 현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본성인(本省人)

약 320여 년 전에 푸젠성, 특히 취엔저우(泉州)와 장저우(漳州)에서 대만의 비옥한 토지를 찾아 이주해온 이들로써 전체 인구 중 75%로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 보통 ‘대만인’이라고 하지만, 대륙 남부 푸젠성에 있는 민강(閩江) 남쪽에 살았다고 하여 ‘민남인(閩南人)’이라고 한다. 이들의 모어(母語)는 민남어인데, 2차대전 후 40년간 이루어진 학교교육의 보급과 정책의 실시로 50세 이하의 본성인들은 거의가 공용어인 만다린어(표준 중국어)를 매끄럽게 구사할 수 있다. 그러나 본성인들은 이러한 정책의 실시가 자신들의 모어와 고유한 문화를 유실케 한다는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객가인(客家人-광둥 발음으로 ‘하카’)

또 하나의 초대 이주민으로서 광둥성에서 이주해왔으며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한다. 이들은 원래 대륙 북부 지역에 살다가 중앙 아시아 부족들에게 밀려 대륙 남부, 광둥과 푸젠



얼굴에 문신을 한 산지족 노인

성으로 이주하여 사는 동안 ‘손님(客家)’으로 불려졌다고 한다. 객가어를 사용한다.

외성인(外省人)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주해온 이들로써 대부분 저장성(浙江省), 장수성(江蘇省) 출신자들이다. 인구의 13%에 불과하지만 대만의 정치, 경제를 장악하는 리더층은 대부분 이들이다. 최근에는 본성인과 외성인간의 혼인도 증가하여 융화되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화(普通話), 또는 관화(官話)라고 불리우는 표준 중국어(현재 대륙의 표준어인 북경어)를 사용한다. 대만에서 중국어는 ‘국어(國語)’라고 하여 공식 석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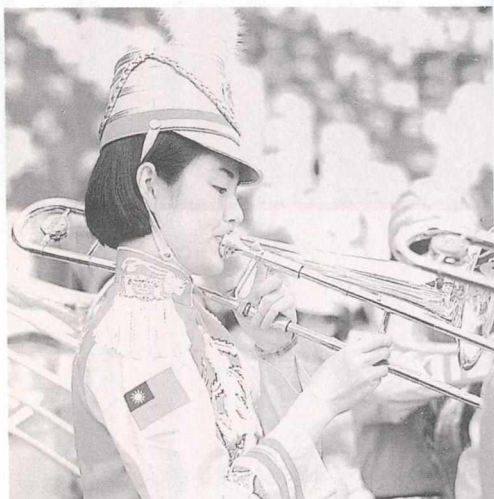
산지인(山地人)

수천 년 전에 대만으로 이주해온 말레이-폴리네시아 배경을 가진 토착 원주민으로 인구의 2%를 차지한다. 한족(漢族)들로부터 ‘고산족(高山族)’, ‘산포(山胞:산지에 사는 동포)’라고도 불린다. 주로 높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특별 보호를 받고 있다. 언어, 생활양식 등의 차이에 따라 10종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산지인들은 자기 부족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표준어를 사용한다. 일본 식민지 통치의 역사로 인해 고령자 중에는 일본어를 구사하는 이들이 많다.

역사와 정치

대만의 존재가 중국 대륙에 알려진 것은 기원전 3세기 경부터이다. 대만이라는 호칭이 정착되고 한족의 본격적 유입이 시작된 16세기

전까지만 해도 말레이, 폴리네시아계 원주민들의 낙원이었던 대만은 중국인의 역사서에 동곤, 이주, 유구 등의 이름으로 간간히 등장하곤 하였다.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과 1912년 중화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쌍십절(雙十節) 행사. 국가적인 최대 규모의 축일이다.

1544년 이곳을 향해하던 포르투갈인이 발견하여 처음 유럽에 소개되면서 ‘아름다운 섬’이란 뜻의 ‘포모사(Formosa)’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17세기 서구 제국의 식민지 쟁탈전이 본격화되면서 1621년 네덜란드가 타이완 남부를 점령, 타이난(臺南)과 안핑(安平)에 프로비덴시아(Providentia), 질란디아(Zeelandia)성을 구축하고, 대륙에서 건너온 한족들을 소작인으로 고용하여 식민정책을 실시하였다. 1626년에는 스페인이 북부를 점령, 지룽(基隆)과 댜수이(淡水)를 근거지로 세력을 뻗치다가 1641년 네덜란드인에게 퇴각당하였다.

당시 중국 대륙은 명나라에서 청으로 정권이 바뀌던 혼란기였다. 1661년 명의 충신 정성공(鄭成功)은 청을 물리치고 명의 부흥을 꾀

하기 위한 발판으로 2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금문도로 건너와, 그때까지 38년 간 이곳을 통치해온 네덜란드 세력을 몰아내고 대만의 국가적 기틀을 확립하였다.

비록 1683년 청에게 굴복, 다시 대륙의 세력권 안에 편입되었으나 대만은 타이난(臺南), 루강(鹿港), 타이베이(臺北)의 세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번영하였으며 푸지엔, 광둥 등으로부터의 이주인도 증가하였다. 한편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았으나, 1945년 2차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중화민국으로 반환되어 다시 대륙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대륙 공산화 이후 장개석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당 정권에 의해 점령당한 대만은, 아직도 전체 중국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중화민국이란 공식 명칭을 정하고 독자적인 길을 걸으

며 본토 회복의 의지를 보여왔다. 이들은 대륙 공산 정권에 대해 불협축, 불담판, 불타협을 골자로 하는 강한 '3불정책(三不政策)'을 취해 왔었다.

더 큰 중국의 일부로 존속하느냐 아니면 독립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대내적으로는外省인(外省人)들과 수많은 대만인, 즉 본성인(本省人)들 사이에 정치적 양분을 가져왔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외교 고립화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최근 심각해지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비공식적인 무역과 여행 등 대륙과의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리고 40여 년간 장개석 국민당의 1당체제 아래에서 폐쇄적이었던 사회 전반에 1987년 선거 이후 본성인의 총통 취임, 계엄령 해제, 다당제 등 점차 사회 각계의 민주화가 추진되고 있다.

사회문제 및 정치적 불안

1945년 일제 통치에서 벗어나 중화민국으로 귀속된 대만인들은 조국으로의 복귀를 기뻐하면서 섬 주인이 될 기대에 차 있었으나 곧 이어 대륙에서 건너 온 국민당 부패 관리들에 의해 배격되었다.

일본이 남겨놓은 행정기구, 기업, 재산 등은 그들에게 독점되었고 국민당은 일본의 '노예화 교육'을 받은 경험에 있는 대만인을 눈에 보이게 멸시하였다. 이들은 도처에서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여 혼란을 야기하였고, 대륙의 통화팽창이 대만에 영향을 주어 대만인들의 생활은 몰락 위기에 이르렀다. 이에 참지 못한 대만인들은 1947년 반 국민당 폭동인 '2·28 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外省인과 본성인 간에는 엄청난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게 되었다. 같은 한족이면서도 중국 대륙에서의 내전에서 실패하여 중앙정부를 대만으로 옮겨온外省인들로 구성된 지배층과 대다수를 차지하는 본성인간의 정치권리 분배의 불균형으로, 이들의 대립과 갈등이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영적 상황

다양한 종교, 우상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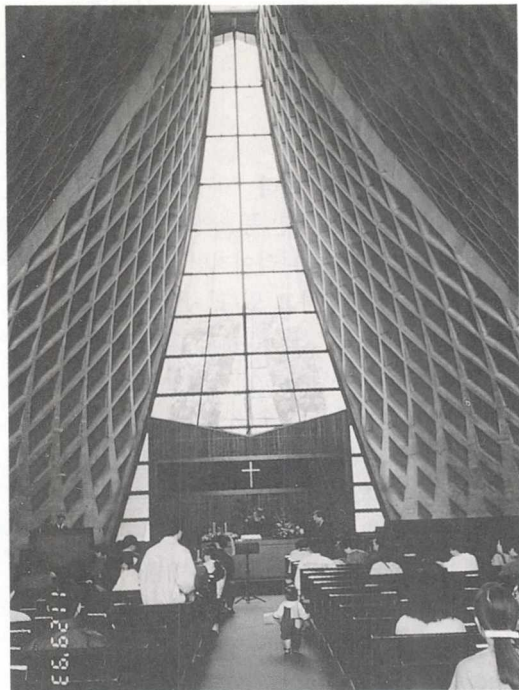
오늘날의 대만은 물질적인 풍요와 고도의 기술문명을 누리고 있는 나라이지만 전통적인 종교는 점점 더 번창하고 있다.

대만의 종교는 도교, 불교, 유교, 그리고 민간 종교의 독특한 혼합체로서 복잡한 민간 신앙 체계이다.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85%에 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다. 불교가 있는가 하면 그 속에 도교가 있고 어느 종교에나 두터운 미신의 흔적이 엿보인다. 그 가운데 서민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 도교로서 이것은 조상과 귀신 숭배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특히 내세를 믿지 않는 현세주의자들인 이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 종교는 현세에서 액을 때우기 위해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종교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인구 200명 당 사당 한 개씩'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가지에서 쉽게 호화찬란한 사원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대만이다. 어느 아시아 나라보다도 많은 사원을 가지고 있다.

대만의 일반 중국인들에게 있어 우상숭배 활동은 일상생활 그 자체이다. 거의 모든 가정마다 불당을 차려놓고 아침 저녁마다 우상 앞에서 '빠이빠이(拜拜-신들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행위)' 하는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눈에 띄는 광경이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을 따라 조상숭배와 제사 의식에 참여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을 깨뜨리기가 힘들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인들은 복음을 꺼려한다. 우상과 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갖가지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뿌리깊은 의식이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인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만큼 물질주의와 세속화의 물결은 정치적 미래의 불안과 함께 사람들을 방황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이들은 불안한 심리를 달래기 위해 계속 우상에게 복을 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심



복음전파에 큰 자유가 주어졌지만 목회자와 교인들이 점차 유실되고 있어 대만 교회는 퇴보하고 있다. 대만 교회의 부흥을 위한 우리의 중보기도가 절실하다. 사진은 타이베이에 있는 동해대학(東海大學) 내의 교회.

각한 것은 우상, 종교 숭배의 배후에 있는 악령의 세력이다. 사람들은 악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가 무엇을 숭배하는지, 숭배의 원인과 유래도 알지 못한 채 귀신을 섬기고 있다.

기독교 실태

대만의 기독교 전파는 17세기 초(1624~1667년) 네덜란드 식민지 통치 시대에 네덜란드의 개척 교회가 본국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 위해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당시 이들의 선교 활동은 미세했고, 1683년 모든 선교사들이 만청 정부에 의해 쫓겨나게 되면서 기독교는 근절되었다.

1865년 6월 16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영국의 맥스웰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기화로 장로교 선교사들이 대만 북부에서, 또 1872년 대만 남부에서 의료선교를 시작했다.

2차대전 후 대륙이 공산화되면서 당시 대륙에서 선교활동을 펴왔던 선교단체와 선교사들, 그리고 중국인 크리스천들이 대만으로 이주해 와 함께 새로운 교회와 교파를 세웠다. 초창기 대만의 선교사들은 교회개혁, 신학교

설립보다는 근대식 학교, 병원 등을 건립하는 등 사회 봉사를 통한 선교에 치중한 경향이 있다. 그때로부터 교회는 중국 전통종교와 우상숭배, 산업화, 도시화, 증가된 부, 물질주의 등과 싸워오고 있다.

1995년 현재 기독교 선교 131주년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에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은 1%에 불과하다. 이들 중 80%는 대만기독교장로회가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본성인들로 구성되어 대만어(민남어)를 사용한다.

약 천여 명의 외국 선교사들이 교회와 선교단체에 속하여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는 데는 큰 자유가 주어졌지만 사실상 교회는 계속 퇴보하고 있다. 진보적인 목사들과 교회들은 정치, 사회, 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참여를 통한 사회 구원을 주장하며, 정치적으로도 자주독립 운동의 선두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현 집권당인 국민당 정부와 상당한 갈등 관계에 놓여있다.

이러한 중에 현재 20여 개의 신학교를 통해 목회자들을 배출해내고 있으나, 졸업생들과 목회자들의 해외 유출(주로 북미)이 계속되며 이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 자신들도 교인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전도, 양육, 훈련을 통해 제자를 기르고 그들을 통해 대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이 결여되어 있다. 목회자뿐 아니라 개종자와 세례교인 중 아주 적은 수만이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 비율은 매우 낮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얻게 되기까지,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기까지 많은 인내와 고난, 결단이 필요한 곳이 바로 대만이다.

한때 선교에 대한 비전이 고취되었지만 대만의 정치적 고립으로 기독교인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중국 본토와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에 따라 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선교사 준비 훈련 과정도 늘고 있다.

최근의 대만 교회는 한국 교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오순절 운동과 경배와 찬양 운동이다. 신유은사 집회와 기도원, 방언을 강조하는 것들은 대만같이 악령의 세력이 강하게 활동하는 곳에서 복음 전파에 대단히 효과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치유의 기적과 방언의 은사만을 강조한 결과, 현세에서 복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겠다는 기복주의 신앙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대만의 민간 종교와 유사하다는 면에서 혼합주의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2000년 복음화 운동

(Year 2000 Gospel Movement)

2000년 복음화운동은 대만 교회 사상 처음 초교파적인 연합으로 시작된 자발적인 영적각성 운동이다. 범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2000년 운동에 영향을 받아 88년도부터 시작된 이 연합 운동의 비전은, 교파를 초월하여 사역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잃어버린 영혼의 필요를 보며 개인전도, 대중전도집회, 대중매체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복음화 운동의 목표는 첫째는 대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1만 교회, 1백만 신자로 배가되는 것이며, 셋째는 인구의 10%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넷째는 200명의 타문화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취된다면 교회 성장이 미진한 현재의 대만 기독교에 극적인 방향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이 갖는 또다른 의의는 대만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정치사적으로 뿌리깊은 상처로 남아온 종족 문제의 치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대륙의 공산화 이후 대만으로 이주해온 100만 명의 외성인들이, 산지족과 이전에 이주해온 본성인들을 제치고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국민당 정부의 무차별한 차별 정책에 반

대한 본성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약 30만 명에 달하는 대만인들이 희생된 '2·28 사건'이 바로 그 상처이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 대부분이 대만 장로교회의 지도자층들로 지식인들이었다. 이로 인해 대만어를 모국어로 쓰는 본성인들이 주축이 된 대만장로교회와 표준어를 쓰는 외성인들의 교회는 대립, 갈등, 경쟁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천년 복음화 운동을 계기로 그들은 화합하기 시작했고 교파, 언어, 지방색, 이념을 초월하여 함께 연합운동을 벌였다. 바로 이 운동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건을 대만의 기독교회가 먼저 해결의 물꼬를 튼 것이다.

맺는 말

불안정한 정치적 미래, 사회적 불안, 그보다 더한 영적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을 깊은 절망감과 도덕적 혼란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악령의 세력이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정신적, 영적 상태는 빈곤에 처해있는 이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참 소망이 필요하다.

대만에서 역사하고 있는 왕성한 사단의 일을 떨하고 그의 세력 아래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출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절실하다. 대만을 둘러싸고 있는 사단의 사슬이 깨어지도록 기도하자. 교회의 하나됨, 범국가적 부흥운동인 복음화운동이 대만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선교를 위한 교회연합의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하자.

참고자료

- 『臺灣百科』, 臺灣克寧出版社
- 『세계기도정보』, 조이출판사
- 『세계를 간다-대만』, 중앙일보사
- 『동아시아 기도』, 한국 오엠에프,
- 56호 「대만의 선교 상황과 한국인 선교사」, 김기문
- 72호 「대만의 민간 종교」, 김기문
- 79, 80호 「대만, 2000년을 향한 복음화의 비전」, 배영선
- 84호 「대만의 정치 상황과 대만, 대륙관계 진망」, 김석준

대만선교, 이런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상란

대륙선교의 전초기지 대만

대만, 즉 중화민국은 이전에 정치적으로 중국을 대표한 나라였으나, 1970년대 평평외교로 인하여 주권을 잃어버리는 비운을 겪고, 최근에는 마지막까지 친구관계를 지속해오던 자유우방국 한국에게서마저 버림받은 나라가 되었다.

한편 대만은 대륙이 공산화되면서 대륙 각지에서 온 중국인의 터전이 된 축소판 대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됨으로써 현재 홍콩의 선교기지가 대부분 대만으로 철수하고 있어 선교의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만은 매우 특수한 지역이며 중국선교를 위하여 선교사에게 꼭 필요한 지역이다. 대륙을 선교하려면 우선 대만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선교의 큰 부담을 안고 있는 한국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대만과 어떻게 협력을 하며 공동체적 인식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선교의 장으로서의 대만

대만 기독교 상황

과거 1765년에 영국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로부터 시작한 기독교 역사는 올해 장로교 선교 130주년을 맞이하였다. 소수의 교단이

있던 것이, 1949년 대륙의 공산화로 교단이 대거 속속 들어오게 되었고, 또한 대륙에서 넘어온 선교사들에 의하여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1993년까지 52개 교단이 있으며 기독교 인구는 2.41%로 교회는 3,099개에 이르고 있다.¹⁾ 교세는 매우 미약한 상태이나 최근에 일어난 부흥운동으로 “2000년에 1만 교회, 100만 신도, 200명 선교사”를 목표로 삼고 각 교회마다 신앙부흥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한국 선교사 현황

현재 대만에 거주하는 한국 선교사들은 약 70여 가정이 된다. 서로간에 단합이 매우 잘되고 있다. 중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한 달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선교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선배 선교사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분포를 보면 타이베이시(臺北市)에 20여 가정, 타이베이현에 15가정, 타오위엔현(桃園縣)에 4가정 등 북부에 약 35가정이 있으며 중남부 지회에 23가정이 있어, 매우 긴밀히 연락하며 서로

1) 대만의 각 교단 및 소속교회수, 출석교인수에 관한 도표는 본지 자료실①(p. 114)을 참조

돕고 있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북부에 15개 교회, 중남부에 9개 교회가 있다. 기타 선교사들은 중국인 교회에서 중국인 목회자와 동역하거나 캠퍼스 선교를 하며, 대부분 언어공부 중이다.

한인 교회의 역할

대만의 한인 교회는 한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까오슝(高雄)과 지룽(基隆)항구로부터 타이베이시에 설립되어 있어, 교민들의 안식처와 연락장소의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 이 교회들은 교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신앙의 지주로서 현재 한인 교회는 대략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유학생 교회는 유학을 마치고 한국 및 중국대륙으로 파견되어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할 중요한 인재들의 선교훈련 장소가 되고 있다.

교민들을 위한 이들 교회는 해외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의 안식처로서 관광을 겸한 선교의 몫과 현지인 교회들의 제자양육 및 훈련 등 두 방면을 돕는 가운데 선교의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선교훈련센터를 건립하고 교회개척을 하는 등 중국인 교회에 실제적인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인 사역의 어려움

사실상 대만에서 중국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선교사는 많지 않으며 또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소수이다. 이는 중국인 교회를 개척하거나 중국인의 심성을 파악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리고, 관계(關係)를 중요시 하는 중국인과의 사귄다는 것은 단시일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선교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선교사의 언어훈련은 일생을 통하여 경비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심각한 부담이 있는 것이다. 서구 선교사와 한국인 선교사가 중국어를 배우는 것을 비교해보면, 초기에는 한자에 익숙한 한국인 선교사가 월등하게 우

선교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수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서양 선교사는 느낌보 거북이식의 진보를 가져 오지만 한국인 선교사는 토끼식 잠을 잔다.

이는 후원교회의 빠른 효과의 기대와 선교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비롯된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독과 문화충격에 시달리게 되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감시와 경쟁상대가 없는 틈을 타 규율없는 자유방임에 떨어져 놀고 먹는 선교사가 되기 쉽다. 아니면 고통과 싸움을 짐으로 생각하고 거리를 찾아 헤메는 선교사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카메라 한 대 메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눈살을 찌푸리는 중국인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이미 지난 장면을 연출하느라 애쓰는 것을 보노라면 선교사가 된 것이 슬플 때가 있다. 이는 한국 교회의 시각적 보고와 전시 행정적인 요구에서 기인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들이 대만에는 많이 있다. 현재 40대 미만의 젊은 선교사들 중에는 한국 교회의 놀라운 성장배경 체험을 힘입어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는 한국 교회에서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일찍이, 그리고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8년 간의 사역을 돌아보며

첫 사역지-실수와 적응

필자가 대만에 온 지도 벌써 8년이 넘었다. 한국 기독교 감리회에서 대만 감리회로 파송을 받고 처음 대만에 도착하여, 대만 감리회로부터 수립진에 있는 요한교회에 파송받아 6년 간 봉사하였다. 처음 요한교회에 갔을 때 약 15명 정도의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었다.

첫 3년은 실수와 적응의 단계였다. 이 3년간 나는 중국인의 심성과 중국 교회의 특성을 배웠다. 결혼식 주례에다 장례식 집례, 세례식 등을 통해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며 많은 경험을 하였다. 언어도 많이 진보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교인이 약 40명이 되는 교회로 발전하였고, 이후 3년은 부흥과 발전의 시기가 되었다. 성도들은 나를 믿어 주었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교회 일에 더욱 신이 났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등을 통해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였다. 교인들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주며 모든 성도가 혼연일체가 되는 교회가 되었다.

작년 8월 요한교회를 떠나 지금 몸담고 있는 평안교회로 파송받게 되었을 당시, 요한교회는 장년 100여명, 청소년과 아동 합하여 약 50명, 주일 출석 약 70-80명에 달하는 대만에서 중형교회로 성장하였다. 이제 독립적인 교회가 되어 중국인 목사님(말레이시아 화교 林國新 목사)을 모시게 되었다.

또 다시 개척하고 도전하며

이제 나는 또 막 개척한 듯한 새로운 교회인 평안교회로 부임하였다. 이 교회의 역사는 약 30여 년이 되지만 주일 출석 8명, 우리 가족을 합하여 약 12명에 달하는 개척교회보다도 못한 교회였다.

평안교회는 비록 성도는 적지만 예배당은 무척 크다. 4층 건물에 한 층이 60평이나 되니 말이다. 장래의 희망으로 보건대 무척 맘에 드는 교회인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건대 이 큰 공간을 치우고 닦으면서, ‘아, 주여! 나는 청소부가 된 듯합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고백이었다. 다행히도 지금은 많은 성도가 나오게 되어 서로 돕고 같이 일을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제 평안교회는 착실히 성장하여 주일 출석 30여 명이 되었다. 대만의 평균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넓은 4층 건물을 어떻게 사 용하면 좋을까 걱정이 되어 이리 저리 궁리하고 있던 차에, 급변 대만 감리교 총회에서는 우리 교회 옆에 새로 지은 아파트 지하실 500평을 우리 평안교회에 빌려주기로 결정을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나이다!’ 이제 겨우 4층을 치워놓으니까 다시 지하 500평을 덩으로 주시겠다. 기뻐해야 할까, 아니면 슬퍼해야 할까? 일이 산더미같이 밀려오는 것을 본다. 물론 이런 문제를 만나면 즐겁고 힘이 나는 것은 나만이 느끼는 기분은 아니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나에게 주신 장소이니 힘을 다 하여 강권하여 하나님의 전을 채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방면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은 문산구(文山區)로 주로 학교가 많은 곳이다. 대만대학교(臺灣大學), 정치대학교(政治大學), 대만사대 분교(師大分部), 세계신문대학(世界新聞大學), 중국공상전문대학(中國工商專校) 및 대만의 유명한 중고등학교가 산재해 있는 곳이다. 우리 아이들은 뛰어 놀기에 좋고, 선교사에게는 일하기 좋은 장소이다.

무엇으로 이 장소를 채울까? 연구센터, 학 생활동 센터, 장애자 복지기관, 복음책방, 야기방, 아! 얼마나 행복한 비명인가? 하지만 이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일들을 추진해 갈 우리 성도들의 합의와 이해이다. 선교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본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도, 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가능한한 본국인의 힘으로 독립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돈으로 하는 선교는 돈이 떨어지면 허물어지고 선교사가 단독으로 하는 선교는 피선교지의 성도들을 방관자로 만들기 쉽기 때문이다.

어떤 선교사가 될 것인가?

자립심을 키워주는 선교

이제 우리 평안교회가 만난 문제는 바로 ‘새벽기도’이다. 얼마 전 새벽기도를 시작하였는

데 옆집에서 향의가 들어왔다. 기도소리가 새벽 5시 반부터 불을 지피니 도저히 잠을 잡수 없다는 것이었다. 왜 너희 교회만 유별나게 하나님을 만나며 반문한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마도 그들은 모를 것이다.

이제 교회가 틀을 잡아가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문제이다. 선교적 이상이 없고 교회관이 바르지 못하며,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 편리위주의 신앙생활로 치우치기 때문에 이를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 하지만 이 난관을 넘지 못한다면 나의 실적은 각광받는 선교야 되겠지만 대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해를 받을 것이다. 어느 정도 도와야 하고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선교사들의 고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지인들이 자립심없는 성도가 되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성도들로 배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선교사는 비록 자신의 일에

맘에 들지 않고, 한국 교회에 보고하기가 창피할지라도, 피선교지의 성도가 이용당한다 느껴지기에 앞서 선교사들 스스로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피선교지의 성도와 동고동락을 같이하는 선교적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받았을 때 중국인은 많은 도전을 받고 교회에 대한 시각이 변하는 것을 본다. 가끔 「대만 교도소선교회(更生團契)」와 함께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풀 기회를 갖는다. 그때마다 내가 그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다. “실패자와 실패한 자는 다르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실패는 우리에게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예수만이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간단하고 직설적 화법의 설교이지만, 이를 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모습을 보면 기쁘기 한량없다. 이는 아마도 중국인들의 완악한 모습을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라 믿는다. 가정이 변화되고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현지인들을 자립심 있는 성도로 목회하는 선교사,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성도들과 동고동락하는 선교사가 필요하다. 사진은 아미족(阿美族) 시온교회 금식 철야예배시 봉 안수식 광경.

**실수를 하지 않는 선교사는 진정한 선교사가 아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다시 한 번 살펴 보아야 한다.**

선교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끊임없는 보살핌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십자가를 쫓는 삶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기독교의 진정한 뿌리가 바로 이곳 중국인의 심성에 내리게 될 것이다.

선교, 십자가의 길

많은 대만 교회 지도자들이 서양 선교사를 표현할 때 사진찍는 선교사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선교사가 자신들을 이용하여 후원금을 받아 안락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바로 선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보고를 안할 수도 없고, 선교비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오지의 저급한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아마 선교사로서의 크나큰 도전과 고통 가운데 선교의 주체로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게 됨으로써 주체성이 결여된 나약한 선교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나는 매일 생활 속에서 반문한다. 우리 성도의 칭찬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가? 저들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아니면 돈을 바라는 제스처인가? 이제는 선교의 길이 영광의 길이기보다는 십자가의 길임을 인식할 때이다. 할 일이 없어 하다 못해 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귀중하고도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에는 하는 것이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선교사는 실수가 가져다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를 맞볼 때에 비로소 선교사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다. 실수를 하지 않는 선교사

는 진정한 선교사가 아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다시 한 번 살펴 보아야 한다. 선교지의 성도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피선교지를 섬길 줄 모른다면 이는 선교의 업적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한 것이다.

결론

이제까지 지내온 삶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이 앞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 믿는다.

선교는 삶이라 생각한다. 선교사가 업적에 연연한다면 그는 신실한 삶을 살기보다는 보고에 필요한 업무에 힘과 능력을 쓸 것이다. 그 선교사가 떠난 후에 과연 현지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동남아에서 한국 교회를 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이는 현지를 무시하고 우리의 사고로만 선교를 한 결과이다. 특히 중국대륙에서는 더욱 그렇다.

나는 이 점에서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증보기도, 물질, 선교사의 안식처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훈련이다. 훈련받지 못한 선교사는 실패한다. 한 사람의 실패는 우리 한국 선교의 실패와 직결한다. 보이는 곳에 돈을 쓰기보다는 백년대계의 인재양성 전문 연구기관에 돈을 쓰는 것이 아시아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길이라 믿는다.

대만은 작고 보잘것 없는 곳이다. 하지만 대만에 있는 선교사들은 대륙과 전 세계의 중국인을 상대로 결사적인 기도와 복음전파에 오늘도 구슬같은 땀을 흘리고 있다. 기도를 부탁드린다.

글/이상란 · 목사, 대만선교사

대만 교회의 중국선교 사역 검토 및 전망

陳鐸

들어가는 말

대륙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자 대륙의 동포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교는 교회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대만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책임이다.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온 교회가 합심하여 전심전력으로 동참하라는 뜻이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대만 현지의 필요성과 다른 선교사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리라.

1987년은 대륙사역에 있어 관건이 된 해였다. 그 해 11월 2일, 대만은 정식으로 대륙 친척방문의 문을 열었고, 지금까지 수백만의 대만사람들이 친척방문, 관광, 투자, 문화교류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에 있는 몇몇 선교단체들이 대륙선교 사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홍콩에서 10년 간 중국 교회를 연구하고 사역을 해온 조나단 차오 목사가 맨 처음 이것을 시작했다. 그는 1986년 중국복음회(中國福音會)를 세웠다. 그리고 대만정부가 대륙 친척방문의 문을 열기 한 달 전, <복음을 갖고 친척을 방문하다(福音探親)>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뒤이어 아시아귀주협회(亞洲歸主協會)라는 선교단체가 대륙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대만 교회의 대륙선교 사역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부터 회고, 검토 및 전망의 순서로 이 글을 잇고자 한다.

회고

고향을 떠나온 지 40년이 된 대만동포들이 감격 속에 대륙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고향의 친척들에게 자신의 삶을 생명으로 변화시킨 기독교를 소개하였다. 그 후 1년 동안 중국과 대만 두 곳에서 감동어린 많은 간증들이 오고갔다.

주일에 삼자교회를 방문했던 대만 성도들은, 아침 10시에 시작하는 주일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시간 전에 도착해야만 겨우 자리에 앉을 정도로 뜨거운 기독교 열기 상황을 직접 체험하였다. 집회가 끝나면 옆 자리에 앉은 대륙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이 지난 40여 년 간 어떠한 대가를 치루면서 먼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다.

장차 중국 교회가 굳게 설수 있느냐 없느냐는 인력의 투자에 달려 있다.

1988년부터 대만의 소수 전도인들이 대륙의 가정교회와 접촉하기 시작했고, 일부 친척 방문자들도 가정교회 사역에 참여했다. 대만의 사역자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중국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때부터 대만 교회는 중국 가정교회의 속사정을 알게 되었고 기꺼이 그들과 협력하기를 원했다. 이들은 가정교회에 큰 도움과 격려가 되었으며, 동시에 가정교회 성도들의 간증은 대만 교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과거 몇 년 동안 대만 교회는 성경과 신앙서적 전달사역을 해왔지만 수량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 외에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대륙전도인을 양육훈련하는 사역도 전개했다. 대륙의 수많은 헌신된 청년들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은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진리를 이해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훈련을 감당하려면 사전에 현지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신임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튼튼한 신학적 기초와 목회경험도 요구되는 등 많은 제한이 따랐다.

방송을 통한 복음전파도 매우 효과적이다. 최근 몇 년 간 대만에서도 몇몇 선교단체와 전도인들이 방송 프로그램과 녹음작업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직접 대륙을 향해 방송하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검토

복음사역과 파송사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단지 눈 앞에 보이는 필요 때문에, 또한 피를 나눈 동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작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륙에 사는 12억 동포들의 수많은 필요를

생각할 때, 또한 무신론을 선전하는 공산당 정권하의 동포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들을 향한 선교사역에는 반드시 큰 대가가 치뤄져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가 총동원되고 수만 명의 선교 헌신자가 있어야 하며, 막대한 금전의 투자도 필요하다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이 시대의 가장 광활한 복음의 발인 중국.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역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미래의 전망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회와 선교의 연관성을 생각해야 한다.

성경을 근거로 볼 때,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으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땀을 흘려나가야 한다. 대륙이 경제개방을 맞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며 우리는 전력을 다해 이 사역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대만 교회는 이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선교에 대한 보도와 메시지를 강조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대만 교회의 대륙선교에 대한 자세가 새롭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대륙선교든, 자체 내의 선교든 대규모의 동원은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 대륙선교는 기본적으로 타문화권 선교(Cross-cultural Mission)이다.

대만과 대륙의 문자와 언어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대륙 동포들의 개인별 문화차이는 매우 복잡하다. 게다가 40년 간 받은 무신론 공산사상의 교육으로 인해 이념, 사상유형, 생활습관, 지역개념 등에 있어 우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교사역에는 반드시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쳐 사역을 하게 된다면 장기간의 예상목표에 도달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상당한 인력과 설비에 투자하여 대륙방면의 자료를

수집, 분석, 연구하여 이에 근거한 선교전략을 세워야 한다.

셋째, 대륙선교는 대량의 선교사를 배출해서 파송하는 행동이다.

지금 대륙 내에는 5천만의 신도를 양육하는 현지 전도인들이 있다. 이들을 위한 대량의 성경교사가 필요하다. 장차 중국 교회가 굳게 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인력의 투자에 달려 있다. 많은 우수한 전도인을 양성해내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사역이다.

대만의 청년 헌신자들이 전임사역자로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대만이야말로 사역자를 대량으로 배출해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과거 학생선교회에서 배출된 우수한 전문인 사역자들이 현재 인문·상경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을 잘 훈련시키면 직업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전망

협력사항

최근 많은 모임에서 동역자들이, 대륙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각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왜 서로 협력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 물어왔다. 사실 각 교회마다 똑같은 부담을 가질 수는 없으며, 대륙을 향한 교회 나름대로의 선교전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 여러 곳에 분산되어 진행되고 있는 선교전략들을 꼭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협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단지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을 뿐이다.

첫째, 사역의 경험담을 서로 나눈다.

대륙에 있는 각 지역마다 교회의 필요성을 서로 전달하여,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자료를 수집한다.

각 단체와 교회들이 중국선교의 노하우를 모아 연구센터를 만들고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광저우(廣州)의 한 교회에 모인 신도들.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교회를 위해서 우수한 전도인과 지도자를 양성해야 하는데, 이 일에 대만 교회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견제시와 경험의 교류를 통해서 정리된 자료는 어느 단체에나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인적자원에서 서로 협력한다.

선교단체마다 인력이 몹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넓혀 서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각기 다른 은사를 지니고 있는 인재를 교환해 다른 단체에 도움을 준다면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아주 귀중한 것이 될 것이다.

인재양성

근본적으로 중국선교는 커다란 영적전쟁임이 틀림없다. '90년대 중국 교회 역사의 가장 큰 취약점은 전도인이 양적, 질적인 면에서 모두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국 교회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기초가 튼튼한 전도인을 양성해 내는 것이다. 그것이 안된다면, 중국 교회가 신앙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 점차로 다가오는 세속화의 물결을 견뎌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만의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 대형 신학교를 세워 다가오는 10년 안에 수천 명의 일꾼을 양성하여야 한다. 그 후에 이들을 중국으로 파송하여 이들로 하여금 중국의 전도인을 훈련하고 대륙복음 사역에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더 넓은 선교의 터를 닦아 놓는 것이다.

훈련교재의 편찬

공산주의하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교회의 기독교 문서는 매우 빈약하다. 소수의 신도들이나 최근 10년에 와서야 한 권의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성경이 없다. 신앙서적과 훈련용 교재는 말할 것도 없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삼자(三自)에서 설립한 신학교조차 신학교재가 없다. 수십만의 가정교회 전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훈련교재 편찬이 정말 시급하다.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과거 몇 년 동안 자체내의 필요에 따라 성도들을 위한 영성개

발 교재를 만들기도 했다. 우리가 그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필요와 실정에 맞는 훈련교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전면적인 기도

선교사역은 기도로 시작된다. 대륙선교 사역도 기도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성경을 근거로, 또한 동포들의 필요를 보면서 이 넓은 추수밭이 대만 교회의 몫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이제 전면적인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온 교회가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신 대 사명을 깨달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이 영적전쟁의 대열에 참여하여 선교사로 혹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여러 번 중국 가정교회의 기도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들의 기도제목은 선교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이었다. 목자 없는 수많은 양떼들과 추수해야 할 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만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일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맺는 말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필자는 이 글을 맺고자 한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녀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요 4 : 32~35)

이 글은 대만 中國福音會(CMI)가 발행하는 「中國福音」 23기 pp. 1-4의 문장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으로 중국복음회(CMI)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번역: 차이나/본지 편집기자

중국선교의 징검다리, 대만 유학생에게 대륙의 비전을!

이 글은 중국복음회(CMI)와 협력하여 사역하는 대만의 한국인 선교사와의 대담을 「中國興福音」 지에서 실은 것이다. 대륙(중국)선교의 비전을 품고 사역하는 그의 말을 통해 지혜로운 중국선교가 어떤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여기에서 대만의 한국 유학생들에게 중국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그 전략의 하나로서 제시하고 있다. <편집자 주>

“대만 교회에 선교의 발걸음이 더 빨라지기를 희망하는 구호가 보편적인 때에 한국 교회 역시 대륙 복음사역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들은 선교사를 통해 현장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전략과 방향을 세우고 있다.”

이(李) 선교사(원문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편집자 주)는 중국선교에 헌신한 한국인 선교사이다. 비전을 위하여 온 가족이 대만으로 건너와 신학 훈련을 받으면서 중국복음회(CMI)를 실습현장으로 삼았고, 졸업 후에도 자원봉사자로 계속 양육사역을 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그는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선교 교회를 시작했다.

그들은 중국선교의 비전을 근거로 ‘중국선교개론’이라는 수업을 시작했다. 또한 중국복음회와의 협력의 첫걸음으로 한국 유학생들에게 중국복음회의 3대 비전(三化異象)-중국 민족의 복음화, 중국 교회의 하나님나라화, 중국문화의 그리스도화-을 전해주었고 중국 선교의 기초 개념을 길러주었다.

이 선교사의 바람은 언젠가 중국인 교회가 완전히 자립, 자양하는 것이고, 한국인들은

중국 교회의 진심 어린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질문: 선교사는 파송사역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선교사는 파송국의 선교대표이며 그를 파송한 교회의 선교 선봉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선교사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명과 태도,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를 파송한 교회가 선교정책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나 개인의 노력, 비전과 사역은 한국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나 스스로도 중국 복음 사역에 큰 비전을 갖고 있다. 한국에 돌아가 교회를 방문하며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한국 교회에도 매우 많은 목회자들이 중국 복음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들 중 대다수가 중국 교회의 특성,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로지 사역의 나눔을 통해서만 이해가 있을 수 있음을 깊이 느끼고 있다.

중국 복음사역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목사들조차 대부분 정보와 훈련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내 사역의 중점은, 중국

**한국 교회가 중국 복음사역에 열심은 있지만
파송받을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일꾼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선교 경험을 통해 터득한 중국 복음사역의 적합한 방식을 그들과 나누는 것이다. 그들 역시 내가 직접 대륙에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 중국의 현재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기를 원한다. 선교사는 되도록 자주 선교 현장에 직접 나가 확실하게 견학하여야 한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교회의 상황을 보고 그들의 삶을 직접 체험한 것을 보고함으로써 본국 교회의 선교 사역 방향을 더욱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교회가 선교사 개인의 경험을 통해 선교전략을 세운다면, 선교사의 주관적인 생각이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또한 선교사의 편견과 선입관으로 야기되는 선교전략상의 과오는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이: 선교사는 선교현장에서 객관적인 관찰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송한 교회도 선교사의 보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파견하여 선교사와 함께 선교현장에 가서 실제로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야만 그들의 시야도 넓어지고 전략 또한 비교적 정확해질 수 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많은 장로들이 나와 함께 중국에 가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한편으로는 본인이 직접 체험하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사의 보고의 진실성을 평가하여 선교전략을 세우는 데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질문: 현재 대만에서 한국 유학생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중국 복음사역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인가?

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중국인 목사가 씨이판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목사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다. 씨이판에는 중국에서 온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동역자가 없다며 대신하여 찾아주길 요청하는 편지였다는 것이다. 편지를 받은 중국인 목사는 2개월 동안 마땅한 사역자를 찾아보았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중국 복음사역에 열심은 있지만 파송받을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일꾼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적절한 인재를 찾아 그를 훈련시키는 것이야말로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현재 대만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한국 학생들 대부분이 중문과 학생들이다. 그들은 대만에서 1, 2년 간 중국인의 풍습과 인정을 직접 체험했고 중국문화에 대해서도 더욱 깊은 이해를 터득한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비록 지금은 나이가 어리고 체계적인 신학훈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 복음화 사역에 종사할 가장 적합한 인재들이다. 그들은 크리스천이며 중국어도 구사할 줄 알고 장기간 중국인과 교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만에 살면서 각 방면의 문화충격을 이미 경험한 젊은이들이다.

나는 미래의 중국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전문인 사역자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내가 양육하는 이 학생들은 성경지식, 영성 및 심성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한 듯 보이지만, 언젠가 이미 준비되어진 이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중국을 섬기는 가장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질문: 현재의 사역 중에서 중국복음회(CMI)가 협조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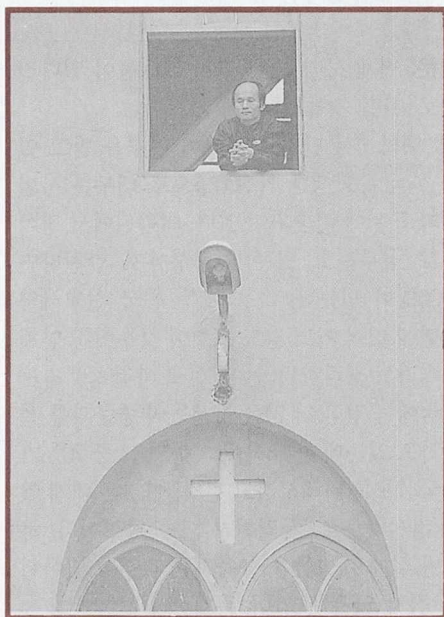
진정한 중국의 복음화는 중국인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되고, 성장되는 것이다. 우리는 옆에서 돕고 위로하는 격려자일 뿐이다. 중국 내륙 한 도시의 삼자교회 삼일 기도회 광경. 교인들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다.

이: 우리는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중국복음회의 사역자 두 분을 초청하여 본 교회에서 중국 복음사역 기초훈련반을 연 적이 있다. 그 훈련을 마친 한 학생이 6개월 뒤 한국으로 돌아가서 편지를 보내왔다. 자기는 원래 중국 사역에 대해 아무런 개념이 없었지만, 훈련반을 통해 하나님이 왜 자신을 대만에 오도록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중국복음회의 사역자들이 이 학생들과 장기간 연락을 계속하여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 일깨워 주길 희망한다. 특히 사역자들이 가지고 왔던 슬라이드 필름, 중국 형제들의 찬양과 기도가 담긴 테이프는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우리는 중국선교사역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금의 목적은 다음 3가지이다.

1. 중국 가정교회에 필요한 신앙 서적과 성경을 공급한다.
2. 중국 가정교회 사역자들의 생활을 돕는다.
3. 중국복음회에서 중국 복음사역에 종사하는 사역자의 생활비를 공급한다.



우리의 목표는 언젠가 중국의 교회가 완전히 중국인의 손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것이며 우리는 진심 어린 그들의 격려자가 되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중문과를 선택하고 있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그 중 70%가 중국선교를 위해서라고 한다!

이 밖에도 나는 중국복음회가 각 개인이 중국에 가서 중국 교회와 협력사역을 할 수 있는 여정(旅程)을 안내해 주기를 원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한국인 목사가 중국에 들어가 가정교회 상황을 직접 체험하도록 배려해 줄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이것은 그들의 파송교회로 하여금 더욱 명확한 이해를 갖게 하며 일치된 보조를 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동시에 선교사는 교량 역할을 하고 선교지의 사역은 현지인들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현재 사역 중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것들인가?

이: 대만에서 단기로 중국어 연수를 받고 있는 한국 유학생은 약 800명으로 대부분 사범대학 근처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원에서 정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연구생까지 합친다면 1200명이 넘는다. 그들 모두 중국 선교사역 방면에 있어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추어진 인재들이라고 생각한다(언어, 선교 비전 등). 최근 한국에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중문과를 선택하고 있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그 중 70%가 중국선교를 위해서라고 한다! 이것은 내게 있어 정신적으로 큰 격려가 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난관이 존재한다.

젊은이들은 각종 향락의 유혹을 받기 쉽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않아 쉽게 감동하고 쉽게 깊은 수렁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생활을 지도해 주고 붙잡아주는 노력을 할뿐이다.

한국의 일부 교회들이 중국선교를 마치 선

전처럼 떠벌리자, 어떤 신중한 목회자들은 이러한 선교 양상에 의혹을 품으면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놀아나는 일종의 도박이라고까지 여긴다. 그들은 나의 선교 이념에 매우 동감하며 함께 중국에 가서 선교의 추수밭을 보고자 한다. 그러나 언어 문제와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중국 사정에 정통한 사역자들은, 한국인인 내가 더군다나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한국인 목사들을 이끌고 중국 가정교회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나의 사역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나의 난처한 점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빈틈없는 상황에서, 중국선교의 부담을 안고 있는 목회자들로 하여금 중국 교회의 필요를 직접 체험하게 하여 적극적인 중국 복음사역의 지지자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하면 열심은 넘치지만 인식이 부족한 한국 교회에게 이 방면의 사역을 정확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적합한 때에 가르칠 수 있을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중국복음회의 협조를 간절히 희망하는 사항이다.

이 글은 「中國與福音」 5期 pp. 10~13, “教會合作「外」一章, 談一位在台韓人宣教師的宣教事工.”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으로 중국복음회(CMI)의 허락을 받은 것이다.

번역 / 김은희, 김현주 · 본지 편집기자

바로 잡습니다(1995년 9, 10월호)

5쪽 1939~1942 → 1839~1842

8쪽 약 60년 → 30~40년

“타이아르족을 위해 여생을 바치렵니다”

대만 산지족 선교사 서수원 목사

권수영

대륙의 그늘에 가려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버린 대만인들, 그 중에서도 더욱 소외된 이들이 대만의 진정한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산지족(山地族)들이다. 말레이-폴리네시아계열로서, 비록 지금은 한족과 많이 동화되었으나 여전히 산지에 부족을 이루며 살고 있다. 대만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의 2% 가량임에 비해 산지족들은 80% 이상이 이미 복음화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복음의 씨를 오래 전에 뿌려졌으나, 여러 가지 난관들이 열매맺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40년 전 일본에게서 해방된 후 평지인 (대만인)들이 산지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다. 우상숭배에 찌든 평지인들이 복음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별다른 문화나 종교가 없는 산지족들은 기독교에 대한 흡인력이 더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산지를 오르내리며 원주민과 동고동락

서수원 목사는 10개 산지부족의 하나인 타이아르족(泰雅族)을 위해 4년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교회(古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높은 산지를 오르내리며 대만 원주민 선교에 힘쓰고 있는 그가 타이아르족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의 일이다. 합동 측 남서울 노희의 선교사로

과송받아 일본 홋카이도(北海島)에서 2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던 중, 잠시 귀국했을 때 우연히 대만 산지족 목사들을 만나게 되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체험코자 잠시 방문한 이들에게 서 목사는 한국 교회를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어릴 적 일본교육을 받았던 산지인 목사들은 표준 중국어보다도 일본어를 더 잘 구사하기 때문에 서 목사의 일본어가 아주 잘 통할 수 있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인을 묻기에, 일제시대와 6·25 당시 목회자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순교가 뭐냐고 묻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니까 목숨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목숨보다 귀한 것이 신앙이라는 말에 너무 어려워하더라구요. 그 때 그들이 저에게 한번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타이아르족이 살고 있

원주민들은 민족적 자부심과 삶의 활력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는 지역을 찾아 대만으로 왔습니다.”

서 목사가 찾아간 해발 1,200m가 넘는 고산 지대에는 12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다. 크고 아름답게 세워진 이 교회들은 서양의 원조없이 부족 스스로 엄청난 돈을 들여 지은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오로지 노인 몇 명만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평지(都市)로 돈 벌러 떠났기 때문에 산지 부락 교회에 남은 이들은 노인뿐이라는 것이었다. 또 교회의 절반 이상이 목회자가 없었다. 이러다 보니 교역자들의 생계유지가 어렵고 주일학교 교육이 전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이들의 소망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데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생활언어인 모국어(타이아르어, 일본어)로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타이아르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열이 그다지 높지 않은 이들은 중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므로 중국어 성경을 소화할 능력이 없다. 말씀으로 교육받지 못한 젊은이들은 신앙과 교회를 포기하고 다른 산지 원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러 평지로 떠나간다.

서 목사는 타이아르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일본으로 가려던 계획을 바꿔, 아직 빚장이 단혀지지 않는 타이아르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일본어로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를 4년째 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민족적 자부심과 삶의 활력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부족과 가족 유대감을 상실한 채 이주한 이들은 대부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막노동꾼이나 공장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고, 알콜중독, 파괴된 가정환경 때문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교회만이 이런 이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감정과 정서가 담겨 있는 모국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산지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한족들을 복음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열린 타이아르족 청소년 수련회

대만의 희망은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하는 서 목사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산지족 청소년들을 서울에 데려와 청소년사역자 훈련을 받게 했다. 올 7월에도 10개 대만 교회와 5개의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타이아르족 청소년 32명을 서울에 초청하여 한국의 청소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졌다. 지금까지 훈련받은 130여 명의 청소년들 가운데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아이들도 많았다고 한다.

“이들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초청한 교회들은 사실 아주 작은 교회들인데 서로 연합하여 계속 이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만 교회는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하는 것을 보며 큰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 수는 많지만 말씀대로 실천하고 가르치는 교회 교육은 전혀 없는 타이아르 교회의 상황에서, 이번 수련회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강한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이 젊은이들 가운데 더 많은 헌신자들이 배출되도록 훈련하고 관리하는 일에 한국 교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개척용사를 양성한다.

대만은 현재 선교 130주년을 맞아 ‘복음화 2000 운동’으로서 1만 교회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다. 척박한 기독교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에 힘쓰는 목회자들이 있다. 이들은, 헌신된 교역자를 양성해야 교회가 세워지며, 헌신하는 이들이 있어야 대만을 살릴 수 있다는



지난 7월 개최된 「한국-대만 청소년 수련회」에 참가한 타이아르족 청소년들. 서로 얼굴은 낯설지만 몇 일 간의 교제와 훈련을 통해 친한 친구가 되었다.

뜨거운 마음으로 모여 「척황신학교(拓荒神學校)」를 세웠다. 한 마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훈련소, 개척요원 양성소라 해도 좋을 듯하다.

이 신학원의 원장이 학생들을 개척요원으로 훈련시켜 주도록 서목사님에게 지도를 부탁하였고, 그는 특히 산지족 지도자 양성과 제자훈련에 힘쓰고 있다. 이것을 위해 척황 신학교를 힘있게 조직화하는 꿈을 서 목사는 갖고 있다.

“목회자가 없는 대만 교회는 자국의 복음화도 생각하기 힘들죠. 그러나 저는 이곳에서 대륙을 향해 나가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배출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상숭배에 젖은 대만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힘있는 신학기구와 연계하여 서로 왕래하며 힘을 주었으면 한다. 생활지원을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의 지원이다. 전도와 기도에 힘쓰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헌신자를



지금은 대부분의 산지족 젊은이들이 평지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교회를 지키고 있다.
98세된 타이아르족 노인

양성하면, 이들이 대만 산지교회뿐 아니라 평지복음화에도 쓰임받는 일꾼으로 양성되기 때문이다. 이 신학교를 후원할 만한 대만 교회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지도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후원하는 일을 도와줄 한국 교회를 만나기 위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찬양하는 타이야르족 성도들. 이들이 영적으로 부흥될 때, '가장 악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대만선교와 대륙선교의 일꾼으로 삼으실 것이다.

타이야르족, 우리의 이웃

산지선교는 평지선교보다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산지에 들어가려면 정부의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하고 목을 장소도 마땅치 않다. 대만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 중에 산지족에게 들어가 목회하려는 이들이 거의 없는 이유는, 문화적 수준이 낮고 예절이 없어 함께 생활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특이한 체취(體臭)와 강한 발음도 이들과의 상종을 꺼리게 되는 이유라고 서 목사는 말한다. 교회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참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보기가 힘든 산지족, 그러기에 더욱 우리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가까운 이웃임에 틀림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기에 이해시키고 협력을 요청하기가 더욱 어려운 산지족 사역을 하고 있는 서수원 목사를 바라보면서 결코 선교가 유행이나 흐름에 치우쳐서는 안 되리라는 생각을 했다. 복음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가시밭길 같은 산지족

선교 역시 눈에 잘 띄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에 서 목사의 소망처럼 언젠가 이들에 의해 대만과 대륙이 변하리라는 소망도 가져보게 되는 것이다.

“타이야르족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올바른 지도자가 양육되도록 격려하고 소망을 붙여 넣어줄 한국 교회들과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타이야르족을 위한 저의 사역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결국은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만 산지족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가 되살아나고 말씀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은 요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머지 8개 산지부족의 언어로 성경번역이 완성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만의 원주민



대만 원주민 분포도

타이아르족(泰雅族)-인구는 약 6만여 명이며, 중앙산맥 북부에 살고 있다. 30개 정도의 부락으로 나뉘어 있으며 부락연합을 형성하고 있지만 서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 해발 1,000m 이상의 깊은 산에 거주하며 농경, 수렵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부농족(布農族)-인구는 4만 명이 채 못되며 중앙산맥 중부의 산악에서 살고 있다. 8개 계열의 종족으로 나뉘어지며 부계적인 씨족 조직을 가진다. 대가족제이며, 족외혼이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 끝까지 황민화(皇民化)를 거부하고 일본에 항전하였다. 이동성이 심하며 해발 500m~3,000m 정도의 고산에 거주한다. 수렵과 밤 재배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아메이족(雅美族)-인구는 3천 명 가량이다. 대만 동남쪽 바다의 란위도(蘭嶼島)에 살고 있다. 원주민 가운데 유일하게 섬 생활을 하는 종족으로 수렵을 하며 타로(Taro) 토란을 논에서 재배하는 것이 특색이다.

루카이족(魯凱族)-인구는 약 6천여 명 정도이다. 부농족과 남쪽의 파이완족 사이의 산악지대에 살고 있다. 세습적 수장제 및 귀족과 평민의 계급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위의 계승은 장자가 우선적으로 권리를 가진다.

파이완족(排灣族)-인구는 4만여 명이다. 중앙산맥 남부의 산악부에 살고 있다. 루카이족처럼 세습적 수장제(首長制) 및 귀족, 평민의 명확한 계급을 가지는데 지위, 재산의 계승은 남녀에 관계없이 장자 상속이다. 대부분 농업을 영위하며 보통 마을에서 혼인을 맺는다.

아메이족(阿美族)-인구 약 12만 명으로 원주민 중 최대 종족이다. 화리엔(花蓮)에서 타이둥(台東)의 동해안 평야 일대에 살고 있으며, 쌀농사 중심의 농경에 종사하고 있다. 다른 종족과는 달리 모계사회이다. 그러나 연령 계급제도가 받아들여져서 마을의 실권은 남성 장로가 쥐고 있다. 성격은 근면하고 온순하다. 타이둥(台東) 시민의 반수가 아메이족이다.

차오족(曹族)-인구는 5천 명이 채 안된다. 중부 산악지대 서쪽에 살고 있다. 르위에탄(日月潭)이나 아리산(阿里山)에도 살고 있다. 풍습은 부농족과 비슷하여 족외혼, 부계씨족 조직을 유지하고 있고, 수장(首長)은 세습제이다.

베이난족(卑南族)-인구는 6천여 명이며 타이둥의 서쪽 평지에 살고 있다. 제사, 샤머니즘이 성행하고 일반적으로 호전적이라 평이 있다. 모계사회적 풍습이 남아 있다.

핑푸족(平埔補族)-인구는 약 300명이다. 르위에탄에서 남쪽으로 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작은 종족이다.

사이샤트족(賽夏族)-인구는 약 1천여 명이다. 타이아르족 주거지역의 서쪽 끝, 신주(新竹)의 산지에 살고 있는 종족이다. 문화적으로 타이아르족에 가깝다. 그들은 평지의 한민족에게 쫓겨나 해발 500m에서 1,000m의 좁은 산악지대에 살게 되었다. 씨족상호간의 연대가 강하다.

-해외여행 가이드, 세계를 간다·臺灣(중앙일보사) 중에서-

선교사의 문화적응과 자기관리

김성복

들어가는 말

스토코우스키(Leopold Stokowski)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웃지 못할 사고가 일어났다. 어느 날 베토벤의 오버튜어(Overture)를 연주하게 되었는데, 이 곡 가운데 트럼펫 하나가 연주 도중 무대가 아니라 관중석 뒤에서 솔로로 나오는 부분이 있었다.

스토코우스키는 신나게 지휘봉을 휘두르고 관현악은 우렁찬 화음을 진동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곡을 장식하는 트럼펫 독주의 순간이 되었을 때, 지휘봉이 관객석 뒤의 트럼펫 쪽을 지적했지만 거기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지휘자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그러나 트럼펫을 맡았던 사람은 엉뚱한 봉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전에 연락되지 않아 아무 것도 모르는 수위가 트럼펫 연주자의 팔을 뒤로 비틀어 꼼짝 못하게 하고 의기양양하게 호령하고 있었다.

“미친 녀석 같으니, 네가 스토크오우스키씨의 연주를 망치려고? 어렵도 없지. 이런 데서 나팔을 불도록 내가 내버려둘 줄 알아?”

이렇게 해서 그날의 음악회는 실패로 돌아갔다. 수위는 제 나름대로 필라델피아 교향악

단을 위하여 건설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음악 전체를 죽이는 파괴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인간 문화에 대한 태도를 자기의 신앙 기준으로 판단하여 함부로 경솔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독교와 문화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가 서 있는 곳은 언제나 일정한 문화의 틀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문화와 공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에 대해 기독교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느냐는 선교사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타문화권 안에서 선교사가 사역을 수행해 나갈 때 문화에 대해 받는 충격은 대단하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선교 사역은 계속되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 특히 타문화권 선교사들에게 기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의 토착화 문제도 현대선교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과거 일부 서양 선교사들의 오류 중의 하나는 기독교의 토착화에 대해 무관심하여, 서양 문

화를 기독 문화와 동일시하여 선교지에 이식시킨 것이며 여기에서 기독교에 대한 타문화권 민족들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20세기 말 타문화권 선교사들에게는 적어도 이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의 정의

인간은 문화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화를 가리켜 제2의 자연(The Second Nature), 또는 제2의 환경(The Second Circumstance)이라고 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 본성을 기초로 하여 문화의 영향 아래서 내면적·인격적 존재가 되며, 외적이요 사회 문화적인 양면성을 띠게 된다.

‘문화’라는 것은 라틴어 ‘colere’에서 왔다. ‘colere’의 뜻은 ‘양성하다’, ‘갈무리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로 ‘agriculture’라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는, 처음에 인간의 땅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변혁시키며 활용하는 것을 뜻했다. 후에 문화는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문화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 민족 또는 여러 민족들의 생활 공동체가 창출해 내고 생성해 내어 정립한 생활양식, 성취, 그리고 그 작품 전체를 말한다.

타일러(Tylor)는 문화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동거,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을 포함하는 복합총체이다.”

로버트 E. 웨버(Robert E. Webber)는 “도구, 언어, 추상적 사유의 체계를 사용하여 지식을 배우고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에 중속하며, 사고와 언어와 행위와 가공물의 형태로 구체화된 인간의 제반 행동양식과 그 산물이 문화”라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문화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작한’ 결과라고 말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문화를 접하는 세 가지 모델

선교사가 선교지에 도착하면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특히 반기독교(Anti-Christian)적인 문화를 접하게 될 때 때로는 충돌하고, 어떤 때는 융화되고, 개혁하기도 한다. 사도 바울 역시 선교할 때 문화에 대한 충돌과 갈등을 많이 겪은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회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행 17:16~17).

문화적 사역에서 충분히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고려하여 참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선교사의 책임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과제인 것이다.

저항 및 분리(Against) 모델

이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의 문화를 반기독교(Anti-Christian) 문화로 규정하고 그 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문화 창조에서 활동적인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시켜 보려는 시도를 말한다. 과거 서양 선교사들의 오류 중에 드러난 모습 중의 하나이다.

동일시(Identity) 모델

이는 일단 모든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그 문화에 융화되어 보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문화와 타협하거나 문화와의 긴장을 인정함으로써 삶의 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옹호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의 위험성은 기독교 문화와 이교 문화의 혼합주의 문화를 창출해 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혁적(Reformed) 모델

변혁은,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반기독교적 이교 문화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기독교 문화로 변혁시켜 나가고, 포편적 문화유산을 수용 발전시켜 나가는 이상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3세계(The Third World) 선교를 원하고 준비하는 선교사들이 수용해야 할 모델이라고 본다.



타문화권에 들어간 선교사가 현지인들에게서 느끼는 생활 습관의 차이는 누구나 경험하는 문화충격이다. 한국인 선교사가 손으로 음식을 먹는 인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다.

선교사의 문화 충격 극복의 길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주변 환경의 문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민반응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는 문화의 이질감에서 오는 정신적·정서적·신체적 충격을 말한다. 이를 이해하고 훈련함으로써 극복하여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선교사의 과제 중에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 선교에서도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문화 충격 요소들은 무엇인가?

허버트 케인(Herbert Kane)은 문화 충격 요소를 8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문화적 충격은 타문화권에 들어가면 반드시 일어난다.

익숙한 환경에서 멀리 떠났을 때 충격은 일어난다. 한국인이 아프리카로, 인도인이 한국으로 오면 문화 충격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있다. 문화의 이질성 격차가 심할수록 더욱 크게 일어나는 것이다.

사회적·문명적 수준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경우 문화 충격이 더욱 심하다.

작은 집과 문화혜택이 별로 없던 집에서, 큰 집과 문화혜택이 많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적응하기에 훨씬 수월하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문화 수준이 낮은 곳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문화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의 습관에 맞지 않을 때 충격이 일어난다.

생활 습관의 차이는 선교사에게 당혹감을 주기 일쑤다. 필자가 필리핀 원주민촌에 갔을 때 그들이 손으로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 “당신들은 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느냐?” 대답하기를, “손으로 식사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늘 자기만 먹기 때문에 한 숟가락을 여러 사람이 돌려가며 사용하는 것보다 더 위생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관습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수백 가지의 다른 습관을 접하게 될 때 그 충격은 더욱 대단할 것이다.

기후는 문화 충격의 주요 원인이다.

우기가 석달 이상 계속되거나 건기가 석달 이상 계속되는 경우, 사시사철 추운 나라, 혹은 무더운 나라, 이러한 모든 것이 선교사를 괴롭힌다. 그러므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난 후 어려운 기후 조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가를 냉철히 판단하여 선교지로 향해야 한다.

언어가 문화 충격이 된다.

문자나 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부족들에게 선교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말을 미리 배울 기회 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은 많은 스트레스(Stress)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

연령이 많을수록 다른 문화에 적응하기는 어린아이보다 훨씬 어렵다.

이미 굳어진 습관과 가치관을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 충격의 극복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화 충격은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 이는 영적, 학문적, 신체적 삶의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현지 적응 훈련으로 극복된다.

선교사는 정해 놓은 선교지에 미리 가서 현지 적응 훈련을 받아, 정식 선교 활동을 하기 전에 문화 충격을 최소화시켜 놓아야 한다. 가족들과 함께 훈련받는 것이 이상적이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 선천적인 선교 적응 훈련이 되어 있었다. 길리기가 다소는 이방 선교를 위한 훈련의 장소와도 같았다. 그리고 언어 훈련, 로마 시민권까지 미리 가지게 된 것은 현지 적응 훈련의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현지 적응 훈련은 6개월~1년 정도의 단기 훈련이 적합하며, 이 훈련은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가는 것과 똑같은 가치를 지닌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선교사 자신은 물론이며 파송할 선교 기관이나 교회의 선이해가 더욱 요청되는 것이다.

신앙으로 극복하는 방법

빌 4:11~13/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히 5:8~9/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선교사역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잘 알고 계신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운 환경과 충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문화적 충격을 당연히 용납하라.

문화적 충격이란 연약한 자나 훈련되지 못한 자에게만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타문화권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우주적인 현상이며 또한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후 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하려 하심이니라.

기타 극복 요인들

-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고 장점을 찾도록 노력하라.
- 당신보다 연약한 자도 극복했음을 기억하라.
- 새 문화권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힘쓰라.
- 본국의 생활을 동경하지 말고 새 문화에 적

응하도록 힘쓰라.

• 동료, 선배 선교사들과의 교제를 긴밀히 하라.

• 가족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하도록 하라.

선교사의 자기 관리

영적생활 관리

개인 묵상의 시간(Quiet Time) 훈련

말씀 연구와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 경건의 시간의 연속은 선교사역의 성패를 좌우한다.

시 143:8 /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달려 갈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드나이다.

시 119:147 /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기도의 습관과 중보기도 요청

선교 사역은 무릎으로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시 5:3 /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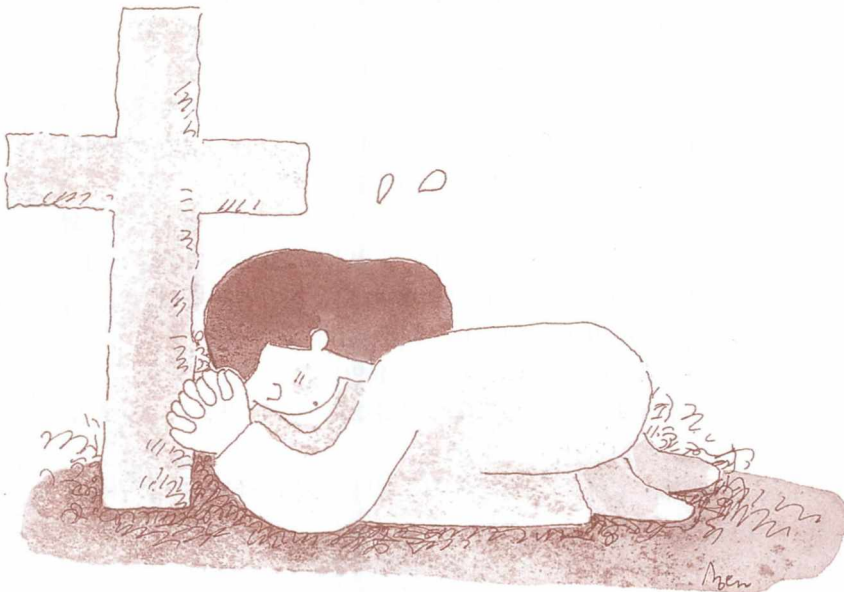
엡 6:18 /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경건 서적과 신학적 연구

선교사는 현장의 목사요, 교사요, 다스리는 자요, 섬기는 자이다.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서적을 탐독하고 신학적 연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양육하지 않으면 안된다. 성경공부도 계속되어야 한다.

가정관리

선교사의 부인 역시 동일한 선교사임을 기억해야 한다. 선교사는 자기 아내를 선교사 훈련에 적극 동참시켜야 하며, 아내 역시 선교사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부인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본분을 감당할 역량



장승원 그림

을 갖추도록 돕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자녀 교육 문제

선교사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자녀 교육 문제이다. 교육비도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선교 지역이 교육 시설이 없는 탓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형태를 보면, ①선교사 부부가 가정에서 직접 교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계성이 있어서 실천하기가 어렵다. ②자녀를 본국에서 양육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가족이 헤어져 살아야 하며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는 부담을 지니게 된다. ③자녀를 선교사 학교에 보내는 경우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단점은 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점이다. ④현 선교지 원주민 학교에 다니는 방법이다. 현지에 적응하고 언어를 배운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육 수준이 낮고 교과과정의 연결성이 없어 어려운 점이 많다.

가정의 영적 생활

가정의 목회는 선교 사역 못지않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려워지면 선교 사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교사 부부는 가정의 영적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함으로써 가정에서부터 성령충만한 삶을 유지해 나아가야 한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이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 문제도 각별히 유의해서 응급 처치와 상비약 준비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정신적 관리

늘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마음대로 책을 사서 볼 수 없는 곳이 선교지이다. 그러나 독서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선교사는 본국에서 책을 많이 가져가야 하며, 본국의 교회를 통해서 책을 계속 공급받아야 한다.

각종 국제신문을 구독하고 방송을 청취하라.

선교사는 선교지에 국한된 자가 아니고 세계 속의 선교사임을 인식해야 한다. 각종 잡지나 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하여 세계의 움직임

을 파악할 때 선교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자신의 취미를 살려 정서 함양에 힘쓰라.

그림, 음악, 서예 등 취미 생활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유지해 나가고 가족과도 친밀함을 유지해야 한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수 1:5~6)

맺는 말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던 한 분이, 어느 날 아침 갠지스 강가를 걷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다. 그 여인은 두 자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한 아이는 매우 건강한 아들이었으나, 또 한 아들은 발을 못쓰는 데다가 정박아였다. 그 선교사는 오후에 다시,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은 없고 병신 아들만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선교사는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이 어디에 갔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대답하기를, 갠지스 강에 있는 자기들의 신인 악어에게 바쳤다는 것이다. 그때 선교사는 “그런데 왜 건강하고 똑똑한 아들을 바치고, 병신이고 바보인 아들은 데리고 옵니까?”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우리는 항상 우리 신에게 우리의 제일 좋은 것을 바칩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이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제일 좋은 것을 주께 드려야 한다.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가?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깊은 곳에 들어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눅 5:3~4)

우리는 배를 띄워 육지를 약간 떠나는 것을 배워야 하며,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의 노를 저어 깊은 물 가운데로 가는 것도 배워야 한다.

육지를 약간 떠나야 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때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사람들과 인정상 너무 깊게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더이상 생명의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나친 인정은 금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데 막힘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오히려 얼마 동안은 사람들과 떠나 있어 인정을 멀리해야 그들을 교훈하기 쉽고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배를 깊은 물 가운데로 저어 가는 것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기 위함이다. 물 깊은 데로 가는 것은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기 위함이다. 깊은 곳으로 가지 않으면 그물을 쳐도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없다. 오직 깊은 곳에 이르러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

물 깊은 데로 가는 것은 자신을 내려 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경험과 경력,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고기가 그물에 들어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볼 소망이 있게 된다.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말씀을 전한 후에는 꼭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서 간구하여 성령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얻기 어렵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다. 거기에 기도를 합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얻을 수 있다. 마치 사도바울처럼 말이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엡 1:16~17)

편집자 주: 이 글은 홍콩 CMI(中國福音會)에서 출판한 묵상집 「晨光」 중에서 한 문장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으로 홍콩 CMI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번역: 이민선 / 본지 편집기자

중국인의 세계관

채은수

세계관과 선교

중국인의 세계관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세계관과 선교의 관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한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들 주위의 실재를 정의함에 있어서 즉 세계관에 있어서, 대체로 근본적인 공통성을 갖게 마련이다. 그 이유는 인간은 출생하면서부터 '문화 안으로(into)' 양육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가 속한 문화를 의식 무의식 가운데 학습함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완벽하게 자기 문화어로 '문화화(enculturation)'의 과정을 밟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문화가 다를 때 문화의 핵심인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물의 실재를 정의함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세계관을 정의하자면 사람들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 혹은 그것을 개념화한 것으로 요약하여 말할 수 있다. 하나의 사실 혹은 사건을 두고도 그것을 보는 사람이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졌는가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루이스(C.S. Lewis)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① 물질적 세계관 ② 종교적 세계관, 그리고 ③ 중간적(in-between) 세계관으로 묶는다. 여기에서 중간적인 세계관이란 물질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양자 사이의 것을 말하는데, 우주를 정신적인 것이며 동시에 기계적인 것으로 보는 것, 즉 종교적이고 물질적인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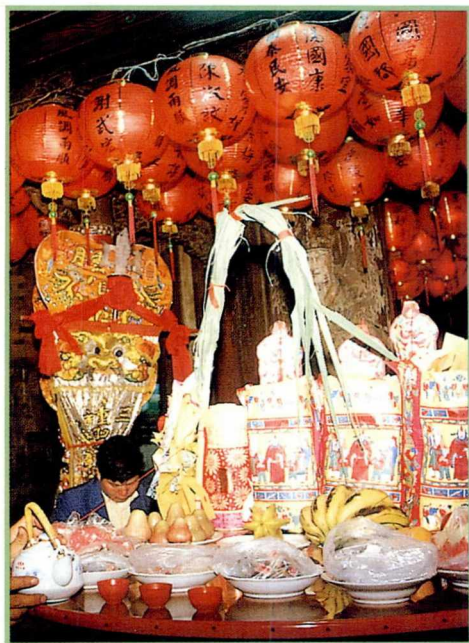
손금을 보는 중국인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점술은 중국인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

을 말한다.

세계관의 기능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우리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설명의 기능, 2) 평가의 기능, 3) 심리 보완의 기능, 4) 통합의 기능, 5) 변화의 기능이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평가할 때 세계관을 통하여 하고, 심리적인 불균형을 이룰 때 그것은 심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며, 문화의 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세계관은 항상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수정을 가



각 민족의 세계관은 종교와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과 다른 현지인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선교사는 바른 정의를 해주어야 한다.

하면서 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세계관이 종교와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 문화의 종교와 철학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가변적이다.

세계관과 관련한 선교사들의 접근을 볼 수 있다. 어떤 선교사들은 복음의 수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세계관을 옆으로 밀쳐두고 선교사들의 세계관을 채용하여 기독교의 메시지를 이해하게끔 강요한다. 그러한 접근은 소수의 친한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선교사들은 무비판적으로 비기독교인인 현지인의 세계관을 채용한다. 그렇게 하면 혼합주의에 이르기 쉽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일까? 헤셀 그레이브(David J. Hesselgrave)는 현지인의 세계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의, 선별, 각색 그리고 적용의 과정을 추천한다.

현지인들에게도 인간관이나 죄관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럴 경우 그것에 대한 바른 정의가 요구된다. 인간을 중시하는 유교도에게는 특별히 선별하여 가르칠 것이 있다. 참 인간이 된 예수와

그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됨과 좋은 아들, 남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각색이란 고쳐줌 혹은 보충하여 줌을 말한다. 흔히 이교에서는 거짓말함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가르쳐야 한다. 적용은 메시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역 사람들에게 좀 더 인격적으로 감성에 맞게끔 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인 세계관의 주제들

중국인의 세계관은 그들의 종교와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그것의 중요한 주제들을 말하고자 한다.

천(天)

중국에는 천(天)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 그들은 임금을 천자(天子)라고 하였다. 천자는 매년 동지에 남교(南郊)에서 둥근 제단에 천제(天祭)를 드렸다. 천을 인격화하여 상제(上帝)라 하기도 하였다.

중국인의 우주관은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중국의 존재가 있다는 믿음이다. 그들은 또한 하늘을 인간운명의 원천이라고 믿어 경건의

대상으로 삼았다. 천을 제일의 중요 원천으로 보았다면, 지(地)도 또 하나의 원천으로 여겨 섬기는 예(禮)를 행하기도 하였다.

도(道)

‘도’라는 말은 중국의 고전에 흔히 나오는 말이다. 그 의미는 ‘길’인데 그 길은 인도 종교에서와 같이 명상적인 데서 찾는 길이 아니라 우주 내의 행위의 길을 뜻한다. 그것은 미리 정하여진 합리적이고 합당한 길을 말하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은 자아를 실현하게 되며, 만약 그것을 벗어나면 자아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흔히 도교(道敎)에서는 길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지만 ‘도’라는 말은 도교만의 전용물이 아니고 고대 중국인의 사상 전반에 흐르고 있다.

음(陰)과 양(陽)

우주와 세계를 형성하는 이중적인 힘의 형태가 음양이다. 음양의 조화로 자연과 사회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양(陽)은 적극적이고 남성적인 원리이고, 음(陰)은 소극적이고 여성적인 원리이다.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며, 태양은 양이고 달은 음이다.

음과 양의 개념은 대립적이 아니고 내포적이다. 음은 나쁘고 양은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 어린아이가 음이라 할 때, 그가 성장하여 아버지가 되면 양이다. 움직이는 것이 양이라면 정지는 곧 음이다. 다시 말하면 양과 음은 서로 이동하는 것이고 포함하는 것이지 적대적인 것이 아니다. 음양의 상징을 아래와 같이 그린다.

양: — 음: — —



혹은

陽	大明春秋	男父君	東南高前右表	剛動
陰	地暗夏冬夜	女子臣	西北下後左裏	柔靜

천명(天命)

중국에서 통치자가 되려면 신적인 재가(裁可)인 천명(天命)을 받아야 한다. 천자(天子)라는 말은 그가 하늘의 인가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 천명은 통치자가 어떠한 그대로 계속 부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통치자가 악하여지거나 종교 의식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경우 천명은 그를 떠난다. 만약 통치자가 백성의 안녕을 지키지 못한다면 천명이 그를 떠난 증거가 되어 백성은 그 통치자에게 반역을 해도 좋다. 여하튼 천명은 황제 아래 사회를 하나로 묶는 데 강한 힘으로 작용하였다.

가족과 조상숭배(祭祖)

‘가족’이라는 기본적인 사회 단위를 거룩시하는 것이 중국문화의 특징이다. 국가라는 단위도 중국인은 천자(天子) 아래 큰 가족으로 보는 것이다. 가족 안에서 연장자, 즉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대한 절대에 가까운 존경의 마음으로 굳게 결속되는 것이 중국인의 가족이다. 그런 존경의 마음은 비단 살아있는 연장자에 대하여 뿐 아니라 죽은 조상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조상에게 기도와 희생을 드리는 것, 조상의 제단에 패를 모시는 것, 무덤을 찾아가 묵상하는 것, 그리고 장례식을 과분하게 치르는 것(굉장한 경비, 종들을 주인과 함께 생매장하는 것) 등으로 표현된다.

중국에서는 사실 그런 가족에의 충성심이 사회를 지탱시키는 안정된, 그리고 보수적인 힘이였다. 사람들은 조상들이 걸어간 길을 후손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윤리로 여긴 것이다. 그런 사상의 근저에는 인간 사후에도 다른 세계가 거기에 있고 조상의 영이 자손을 보호한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

다신적 신관(多神의 神觀)

중국에서는 천지, 산천초목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고 동물도 신성시하여 경배하였다. 일반적으로 선한 영들을 신(神)으로 칭하였고 악한 영들을 귀(鬼)로 칭하였다. 최고의 신은

상제(上帝)라 칭하였다.

중국인의 세계관에 대하여 헤셀 그레이브(David J. Hesselgrave)가 몇 가지를 지적한 것을 들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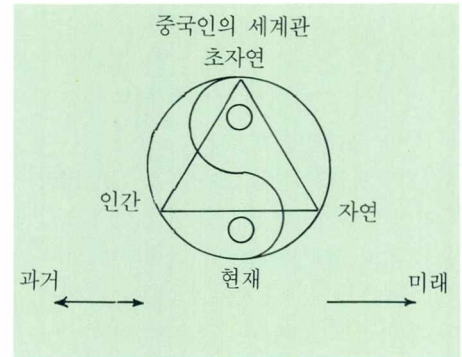
천(天), 신(神) 그리고 도(道)

고대 중국인의 세계관은 상제(上帝), 천(天), 신(神) 그리고 도(道)를 믿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세 가지의 말은 사기(史記)에 언급된 요(堯), 순(舜), 우(禹)황제의 황금의 기록에서 찾는다. 주전 23C 순(舜)황제도 그가 등위할 때 상제에게 희생을 드렸다고 기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6위의 존귀한 존재에게도 희생을 드렸고 언덕과 시내들을 위해서도 희생을 드렸다고 한다. 순 황제는 또한 타이산(泰山)에서 언덕과 시냇물들을 위해 희생을 드림 이외에 천에 소제를 드렸다고 한다. 신이라는 말은 사기에서 발견된다. 우(禹)황제는 거기에서 ‘지성이면 신을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다.

상제, 천, 신 이 세개의 말은 동의어는 아니다. 상제는 인격신이며 모든 땅 위의 통치자들위에 군림한 최고 통치자이다. 역사를 통하여 중국의 황제들이 북경에 있는 천단(天壇)에서 상제에게 경배를 드렸다. 천은 비인격적 하늘이나 섭리이다. 왕으로부터 농부에 이르기까지 천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신은 거의 단수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선한 영들, 그리고 악한 영들(鬼神)이라고 불려졌다. 바람, 불의 신들도 신으로 불려졌다.

중국인은 세계 구조와 창조에 대한 신화를 통해 이해에 도달한다. 그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원시적인 신화는 반고(盤古)의 신화이다. 그것에 의하면 천지가 존재하기 이전 혼돈의 상태는 달걀처럼 보였다. 반고는 이 달걀에서 탄생되었다. 18000년 이후 그 달걀은 열렸다. 반고의 몸은 땅(음의 요소로부터 형성되었다)과 하늘(양의 요소로부터 형성되었다)간의 거리만큼 컸다. 반고의 죽음으로 그의 몸은 세상의 부분이 되었다. 그의 머리는 4개의

중요한 산들이 되었고 눈은 해와 달이 되었으며, 머리는 식물이 되었고 살점은 강과 바다가 되었다.



전통적인 중국인의 세계관과 인도인의 그것은 모두 범신론적이라는데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인도인의 범신론이 실체는 브라만이고 그것은 기만의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일원론(monistic)인 것이고, 중국인의 것은 도가 실제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것과 최고의 영으로 보는 범신론이다.

공산주의는 도(道) 대신 변증법적 유물론을 도입하고 음양을 정반의 대립으로 두었다. 도는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요 14:6). 그리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朝聞道, 夕死可)’는 공자의 말을 토대로 주님이 도임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내세(來世), 미래관(未來觀)

중국인의 세계관에는 내세관이 분명치 않다. 그러나 중국에는 사기(史記)가 있는 점을 감안, 성경은 역사서이며 역사서에서 언급하는 황금기는 에덴동산의 때임을 말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래의 날을 덧붙여 말해야 할 것이다.

자연주의(自然主義)

중국 고유의 2대 사상은 두말할 것 없이 유교와 도교이다. 중국인의 세계관은 유교의 영향으로 가족, 사회관계, 교육, 성공을 중요시하는 현세적 세계관이다. 자연주의자이며 도교

의 창립자인 노자의 영향으로 중국인은 자연을 숭배하는 경향을 띤다.

그런 중국인에게 선교사는 세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지나감을 말해야 하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선포하는도다’ (시 19:1) 라는 것을 말해야 할 것이다. 자연의 법칙과 미(美)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어떤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말해야 한다. 중국인에게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인간의 감격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선교사의 의사 소통

중국인들에게도 인도인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선한 의지의 사람으로, 순수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임이 중요하다. 선교사는 자기 문화보다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다. 그는 정말 성경과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그는 또한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혼란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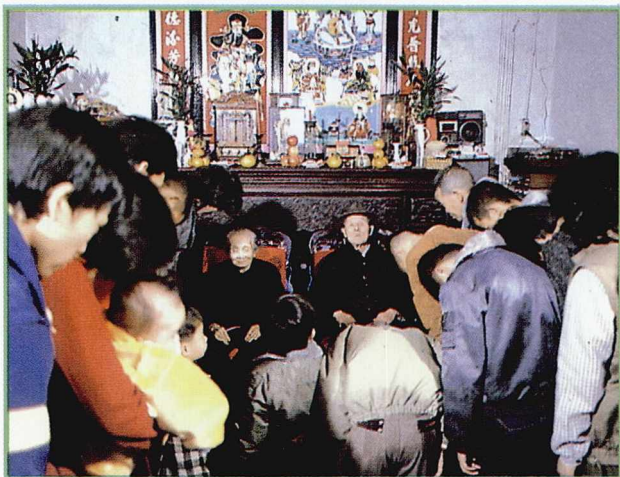
중국인에게 진리를 너무 보편화시켜 말하지 말 것이며 죄인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복음증거를 위하여

세계관과 관련하여 나는 결론적으로 복음 증거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중국인들의 문화적인 자부심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서방세계가 야만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미 문명된 사회를 건설하였다. 그들이 자부하는 그들의 철학 체계와 윤리 사상에는 확실히 깊은 데가 있다. 18세기 이래 과학 문명에서 중국은 서방보다 뒤졌지만 그들의 우주관과 윤리관은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깊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윤리의 표현인 예(禮)는 천(天)과 의(義)에 입각하여져 있다. 그들이 말하는 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는 것은 그들의 깊은 윤리 사상의 일면



중국인의 세계관은 유교의 영향으로 가족, 사회관계, 교육, 성공을 중요시하는 현세적 세계관이다. 명절에 웃어른을 모시고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대만 사람들.

을 말한다. 그들이 서방 세계뿐 아니라 다른 세계의 사람을 모두 야만인으로 보고 자신의 나라를 중화의 나라로 보는 이유를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세계에서 서양 선교사들이 서양문화를 대표하여 자궁하며 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더욱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주의 메신저(Messenger)가 되어 성경을 가지고 겸손히 가르치며, 호령하는 지도자가 되기 보다는 사랑으로 동역하는 자가 되어 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 그들에게 접근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그들의 기독교에 대한 비 수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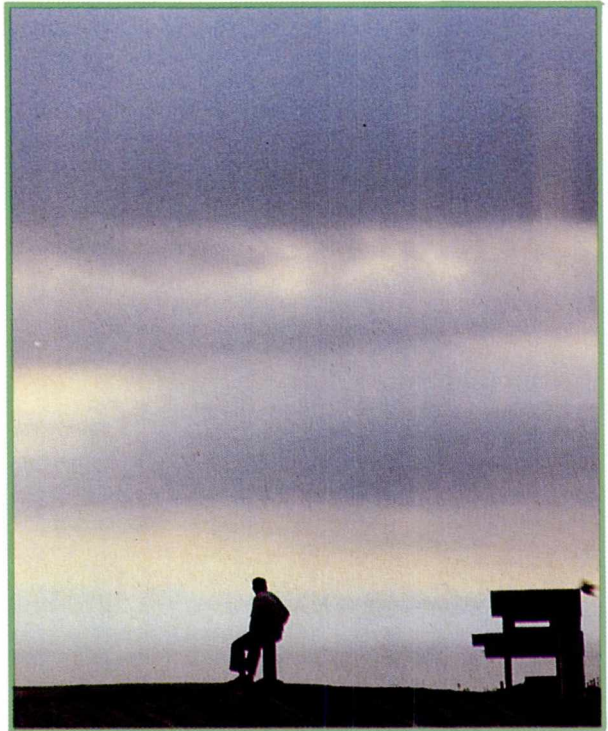
그들에게 종교성이 결핍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오히려 종교성이 풍부하다. 그들에게 종교의 형태를 준 것은 한나라 말기 불교와 도교가 크게 흥왕하여 자리를 잡음으로부터 되었다.

그 이전에는 애니미즘적인 형태의 신앙을 가졌다. 즉, 왕은 천지(天地)에 제사하였고 제후들은 사직(社稷)에 제사하였으며, 대부(大夫)는 오사(五祀)에 제사하였고, 명산대천(名山大川)이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었다. 중국 철학자들은 또한 천(天), 천도(天道), 천명(天命)을 말하였지만, 그들이 말한 하늘은 자연적이고 도덕적 근원이며 원리인 자연주의적 일신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에게 그런 자연주의적 신앙이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초월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황제, 부모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를 포함하는 조상 숭배는 인간을 가족에게 얽매어 노예화시키며 어떤 중요한 결단, 즉, 예수를 수용함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조상숭배와 효사상은 미풍인 동시에 기독교 전도에 크나큰 방해사함을 알아야 한다.

세계관(世界觀)에 대한 접근

인도인이 이 세계를 부정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인은 이 세계를 긍정하는 것이 특색이다. 그들의 모든 것에 대한 조화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은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여 발전과 진도에 방해가 되고 있으나, 그들의 그러한데서 나오는 교육열과 윤리관은 장점이기도하다. 그들은 천(天), 도(道), 이(理)라는 원리적인 존재는 믿으나 인격적이고 사랑이 있는 하나님, 용서와 화해, 은혜의 하나님은 믿고 있다. 그러한 그들의 심리에 어떻게 하면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는 변화를 가



하늘, 즉 우주가 탄생시킨 생명과 새 가치는 끊임없이 이 우주와 인간사회에 나타난다. 그래서 생명이 무궁무진함과 천인(天人)화합을 이뤄가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인의 철학이요 세계관이다.

저오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기도하며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가운 이치로 된 세계만을 보는 그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수용케 함으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업이다.

중국은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할 사마리아와 같은,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까운 곳이라고 본다. 중국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입은 바 있는 한국 문화권 아래의 한국 교회는 중국을 이해하는데 그 어느 국가의 교회보다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런 사실들이 더더욱 중국 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의 사명을 절실하게 하는 것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8월 28일 중국어문선교회가 주관한 중국선교세미나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채은수 / 전 대만선교사
현 총신대 선교학 교수

황하와 함께 흐르는 역사의 땅 하북성 · 하남성 · 산둥성

산둥, 하남, 화북의 3성은 지리적으로 황하의 중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발해만과 황해에 인접해 있다. 황하의 중하류 지역은 중화문화의 요람으로, 개발의 역사가 오래된 고대 중국의 경제가 발달된 지역의 하나로서, 황하와 함께 찬란한 농업문명을 창조하였다. 춘추전국시대 이래로 이 지역은 중국 정치문화의 중심이었다. 하남의 낙양, 개봉과 북경은 모두 저명한 중국의 고대 도시로 역사적으로 20여 개 조대(朝代)가 이곳에 도읍을 정하였다. 산둥성은 공자와 맹자가 태어난 곳으로 중국 유가사상의 중요 발원지이다. 오늘날에도 이 지역은 중국의 문화와 교육이 비교적 발달되었다.

이 세 지역의 전통적 사상이 비교적 강해서 지금도 어떤 점에서 문화적 우월감이 남아 있는 지역이나, 토지와 기후조건은 비교적 불리하다. 토지는 상대적으로 척박하고 수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은 비교적 어렵고 사회 전반적인 발전 수준도 남방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하북성(河北, 冀, Hebei)



위치: 화북지방 북부에 위치하며 몽고고원 동남부에 걸쳐 있다. 동쪽으로는 발해를 끼고 있으며 직할사인 천진과 수도인 북경을 안고 있는 형세를 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산서(山西)성, 북쪽은 내몽고 자치구, 남쪽은 산둥(山東)성, 하남(河南)성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면적: 188,000km²

인구: 약 6,275만(1992), 인구밀도 334명/Km²

민족: 주민은 거의 전부가 한족이고 회족, 만주족, 몽고족이 소수 거주한다.

행정구역: · 성도(省都) - 석가장(石家莊: Shijiazhang, 천진에서 1967년 옮김)

· 8개 지구-형수(衡水), 석가장(石家莊), 감단(邯鄲), 형대(邢臺), 보정(保定), 장가구(張家口), 승덕(承德), 창주(滄州) 지구

· 10개 지급시(地級市)-석가장(石家莊), 감단(邯鄲), 형대(邢臺), 보정(保定), 장가구(張家口), 승덕(承德) 당산(唐山), 진황도(秦皇島), 창주(滄州), 낭방(廊坊)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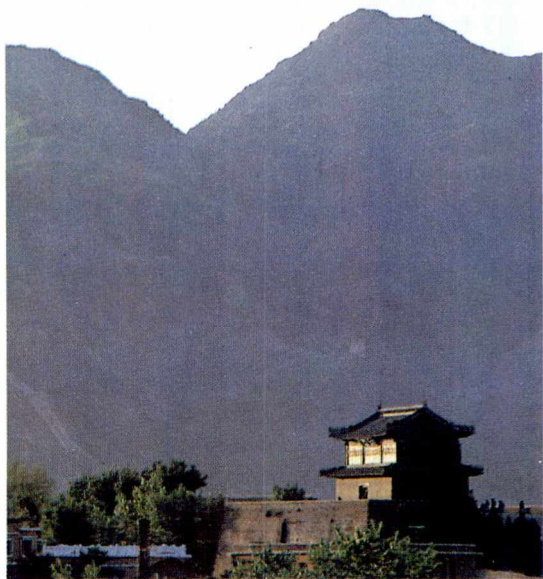
· 그 밖에 13개 현급시, 120개 현, 6개 자치현이 있다.

기후: 몽고의 고기압권 중심에 가깝기 때문에 건조 한랭하며 여름에는 고온다우한 대륙성 기후이고 남부와 북부간의 기온차가 평균 14℃에 이른다.

하북

성은 황하의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하북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하북성에서 고원과 산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성 면적의 3/5이며, 동남부에 위치하는 평원은 약 2/5를 점하고 있다. 산간에는 분지가 많고 지형이 험하여 하류는 산 능선이 끊긴 곳을 따라 흐르며,



중국의 동북지역 하북과 요녕의 경계가 되고 있는 전쟁 요지로서 '천하제일관'이라 불리는 산해관.
명대 홍무년 간에 건립된 장성(長城) 동쪽의 웅장한 관문이다.

동북쪽 산해관은 특히 험하여 '천하제일관(天下第一關)'으로 불리며 만리장성의 동쪽 끝에 해당한다.

하북성은 수도 북경과 중국 제2의 도시 천진 등과 같은 지역권 내에 위치하여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 북부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성 전체의 인구는 화북 전지역의 거의 절반에 달하며 공업의 기초가 튼튼하고 연료, 동력 및 강철공업이 발달하였다.

교통의 요충지 성도 석가장(石家莊)

북경에서 남쪽으로 약 28km 떨어진 하북성의 성도 석가장은 금세기 초에는 겨우 100호 남짓하던 촌이었는데, 현재 인구 90만 명으로 성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였다. 경광, 석태, 석덕 철로 등 주요 철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최근 급격한 발전을 이룬 신흥 공업도시이며, 또한 중요한 상품의 집산지이기도 하다. 1984년 이곳에 「석가장시 물자무역중심」이 건립되었다.

만리장성의 끝, 진황도와 북대하

진황도(秦皇島)는 북경에서 동북쪽으로 약 300km 거리에 있는 발해(渤海)에 면한 도시로, 중국에서 가장 활기찬 무역항 가운데 하나이다.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라고 일컬어지는 산해관(山海關)과 북대하(北戴

河)를 포함하고 있다.

북대하는 1893년 북경~산해관을 잇는 철도가 개설된 후 건설된 도시로, 진황도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인구는 약 2만 명이다. 1949년에는 이미 중국 주재 외교관과 선교사, 중국 부유층들의 별장과 호텔 건물이 700여 개나 들어섰을만큼 피서지로 유명한 곳이다.

젊은 도시 당산(唐山市)

대지진으로 잘 알려진 당산시(唐山市)는 북경에서 서쪽으로 180여 km 떨어져 있고 남쪽의 천진과는 전장 60km의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도시이다. 지난 76년 7월 28일 진도 7.8이라는 유사 이래 최악의 기습적인 지진으로 무려 24만 2천여 명의 당산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도시는 전체 77%가 잿더미로 변했다.

그로부터 18년이 흐른 오늘날 인구 6백62만여 명(93년 말 현재)이 거주하는 당산시는 완전히 새로운 면모를 갖춘 중국의 대도시 가운데 가장 젊은 도시이다. 주택이며 건물, 공장 등 거의 모든 것을 다시 건설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중기기 관차가 생산된 곳이며, 중국 최초의 표준궤도 철도가 놓인 지점이며, 중국 최초로 시멘트 생산이 시작된 중국의 '3대 제일'을 긍지로 삼는 곳이다.

북경, 진황도, 요령성의 심양, 산서성의 대동(大同) 등과 연결되는 4개 철도가 통과하는 당산은 육상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경진당대경제구" 구상이 바로 북경, 천진을 중핵으로 하고 있을 만큼 당산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 현황

하북성은 중국에서 천주교가 가장 왕성한 지역으로 93년 현재 신도수는 150만 명이고 신부(神父)는 약 300명이다. 개신교 신도수는 정확한 통계로 나와있지 않으나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한다.

근래 하북성의 신도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상호간의 내왕과 집회도 증가하고 있으나, 목회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북성 지구는 사역자 훈련을 중시하여 매년 겨울 농한기에 성·지구·시현에서 사역자 훈련반을 운영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해 가장 보수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북경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가정교회 신도들의 집회는 늘 압박을 받아 왔으며, 최근에도 금지와 폐쇄조치를 당하고 있다. 천주교와 기독교인들이 체포, 구속되는 사건도 빈번하다. 이단 출현소식

도 가끔 들리는데, '91년 경우 위(威)현의 피립풍(被立風)의 출현을 예로 들 수 있다. 신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은 교회재산 귀환정책이 아직 완전히 설정되지 않은 형편이라 집회활동 대부분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남성(河南, 豫, Henan)



위치: 하북성 남부에 위치하며 산서, 하북, 산둥, 안휘, 호북, 섬서 등 6개 성의 접경지역이다.

면적: 167,000 km²

인구: 8,551만 명(1992) 인구밀도 531명/km²

민족: 대부분 한족이며 회족, 몽고족, 만주족 등 소수민족도 거주한다.

행정구역: · 성도(省都) 정주시(鄭州市: Zhengzhou)

· 5개 지구-상악(商岳), 주구(周口), 주마점(駐馬店), 신양(信陽), 남양(南陽)

· 12개 지급시(地級市)-정주(鄭州), 개봉(開封), 낙양(洛陽), 평정산(平頂山), 초작(焦作), 학벽(鶴壁), 신향(新鄉), 안양(安陽), 부양(濮陽), 허창(許昌), 래하(漯河), 삼문협(三門峽)

· 그 밖에 14개 현급시, 104개 현이 있다.

기후: 사계절이 뚜렷하고 연평균 기온은 15℃(1월 영하 2℃-영상 2℃, 7월 28℃)이며 연 강수량은 600~1,000mm인데, 50%가 여름에 집중된다. 봄에는 한발과 서북풍에 따른 황사 현상이 심하다.

중국의 성(姓)씨 가운데 1백 개의 발원지라고 하는 하남성은 황하주변에 드넓게 펼쳐진 중원평야 한복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예주(豫州)에 속한 구주(九州)의 하나로 '중원(中原)' 또는 '중주(中州)'라 불려지던 내륙지역이다. 하남성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성이다.

하남성의 역사는 중국 문명사(文明史) 그 자체이다. 황하문명의 발원지로 3,500년 전부터 은(殷)왕조가 시작되었다고 사학자들은 정주의 오래된 유물과 토성을 통해 추측한다. 황하의 영광과 함께해 온 하남성은 북송 때까지 중국에서 가장 번영을 누린 곳이다. 정주와 개봉, 낙양 등지의 문화유적은 송나라 고대 중국의 영광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전에 유태인들이 이곳을 식민지로 삼았던 증거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고대문화의 중흥지였던 만큼 보수적이며 봉건적

이다. 진취성이 약하고 배타적이라 현대에 들어와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었다. 농사짓는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지역은 쌀을 주식으로 삼는 장강(長江) 유역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지역으로 예전부터 밀을 주식으로 삼아왔다. 불교무술인 소림권법의 창시지역이기도 하다.

하남성은 생물자원과 광물자원이 다양한 중국의 에너지, 원자재 및 농부산품의 중요 기지 가운데 하나이다. 하남성은 비록 농업 중심의 성이지만(성 전체 면적 중 평지는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지면적의 31%를 점하는 것이다), 자연환경(한발, 황하범람)의 영향과 '좌'경의 간섭과 파괴(1958년 하남성에서 처음으로 인민공사가 설립되었다)를 받았고, 생산조건 역시 별다른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 농촌경제 구조가 불합리하며 임업, 목축업, 어업과 부업 역시 발전하지 못한 상태이다.



하남성 안양(安陽) 남쪽의 작은 마을의 모습이다. 용왕님이 바다와 호수를 지배한다고 믿는 사람이 지금은 비록 적지만, 제사는 지금까지도 성행하고 있다. 이들이 진실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그 영혼이 힘을 발하며 살기를 기대한다.

역사의 도시 정주(鄭州)

중원의 한복판에 위치한 인구 7백만의 성도 정주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상나라가 도읍했던 고도로 유명하다. 황하에서 30km 떨어진 정주는 전한시대의 수도였고 지난 54년부터 하남성의 성도가 되었다. 가로수가 아름다워 녹색(綠省)이라 불리기도 한다.

중원의 중심지이며 곡창지대인 관계로 하남성은 물론 인근 하북성과 산둥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산지이다. 그러나 아직은 공업이 그다지 번성하지 못하여 농산물가공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정도이다.

하남성 정부는 최근의 개혁, 개방 붐을 타고 60만평 규모의 하이테크 개발구를 지정했고, 중국의 교통, 유통 중심지인 관계로 백화점 업체들이 몰려 유통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 최대의 화물 중계역으로, 북경에서 광저우에 이르는 경광선과 연운항으로부터 우

루무치까지 연결된 농해(龍海)철도가 교차하는 정주시는 다른 어느 도시도 따르지 못할 교통의 요충지이다. 중국 중부의 상업센터로 발전해가고 있다. ‘동방의 시카고’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정주의 목표이다.

실크로드의 시발점 낙양(洛陽)

고대 비단길(실크로드)의 동쪽 시발점이었던 낙양은 중국 최초의 왕조인 하로부터 상, 동주, 동한, 북위, 후당, 후진 등 10여 개 왕조들이 도합 1천3백여 년에 걸쳐 도읍으로 삼았던 고도이다.

현재 인구 590만의 낙양시에는 1천여 개의 대, 중형 국영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 낙양 트랙터 공장, 유리 공장 등 10여 개는 전국 최대급이다. 또한 강소성의 항구 도시 연운항으로부터 멀리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에 이르는 농해철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낙양은 중국 3대 석각(石刻) 예술의 보고로 일컬어지는 용문석굴(龍門石窟)과 중국 최초의 불교사원으로 유명한 백마사(白馬寺), 그리고 세계 제일을 자처하는 고분 박물관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왕조 시기의 문자인 갑골문자가 발견되어 유명해진 안양(安陽)과 북송왕조의 수도로서 영화를 누렸던 개봉(開封)도 하남성의 대표적인 도시들이다.

기독교 현황

하남성의 기독교인 수는 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20세기 초 중국내지선교회(현 OMF의 전신), 미국 장로교 등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선교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인근 성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러나 공산화된 이후 1960년대에 하남성은 절강성과 내몽고 자치주 등과 함께 종교 폐지운동의 실험지역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가혹한 조치를 취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중국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신도 수는 많으나 목회자가 적어 목회사역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성경과 신앙서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의 종교정책이 적절히 시행되지 않아 벌금, 교회 교구활동 간섭 등의 사건이 부단히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교회가 왕성한 만큼 이단의 활동도 대단하여 호합파, 영령파, 화설화파(華祥和派) 등이 출현했다.

산둥성(山東, 魯, Shandong)



위치: 중국 북쪽해안, 황하 하류부에 위치하며 황해(黃海)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마주보고 있다. 산둥반도와 내륙지역의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북쪽과 서쪽은 하북성, 남서쪽은 하남성, 남쪽은 안휘성 및 강소성과 접하고 있다.

면적: 153,600km²

인구: 8,610만 명(1992) 인구밀도 563명/km²

민족: 주민은 대부분 북방 관화(官話)를 쓰며 한족이 압도적으로 많다. 성 곳곳에 이슬람교도인 회족이 작은 집단을 이루고 살며 만주족도 소수 있다.

행정구역: 성도(省都)-제남(濟南; Jinan)

- 5개 지구-덕주(德州), 헤민(惠民), 임기(臨沂), 하택(荷澤), 료성(聊城)지구
- 11개 지급시-제남(濟南), 청도(靑島), 치박(淄博), 조장(棗莊), 동영(東營), 유방(濰坊), 연대(煙台), 위해(威海), 제령(濟寧), 태안(泰安), 일조(日照)시
- 그 밖에 23개 현급시, 76개 현 등으로 구성

기후: 추운 겨울과 덥고 건조한 여름이 특징인 대륙성 기후이다. 그러나 반도와 내륙지역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내지는 혹독한 겨울 추위와 봄날 모래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여름에는 때로 가뭄과 잦은 홍수가 뒤따른다. 동반부의 반도지역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해양성 기후를 띠고 있어 여름에는 온화한 기후이다.

중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성인 산둥성은, 지리적으로 황하의 중하류에 위치하여 황하와 발해에 접해 있다.

산둥성 내륙지역은 산둥성 전체 면적의 약 2/3을 차지하며 유명한 태산산계에 집중해 있는 중부 구릉지대도 포함된다. 북, 서, 남쪽은 비옥하고 집약적인 경작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중앙 산지를 둘러싸고

있으며, 황하 분지와 화북 평원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내륙지역과는 대조적인 산둥반도는 해안선이 톱니모양이며 전체가 고원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주민들은 예로부터 어업, 광업 및 항구와 관계된 활동에 의존해왔다. 경지 면적이 총면적의 60%이며 주민의 9/10는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다. 손꼽히는 항구로는 청도(靑島), 위해(威海), 석도(石島), 용구(龍

口) 등이 있다.

현재 산둥성은 두 개의 '세기를 걸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하나는 내지를 기지로 하여 해양으로 발전하여 해양자원의 종합적 개발을 위한 '해상산둥'의 건설이며, 둘째는 황하 삼각주 건설을 가속하여 산둥성을 유주(油洲)에 더한 녹주(綠洲)로 건설하는 것이다. 황하 삼각주는 비옥한 토지로 환발해 경제권과 황하 경제지역의 교류점에 위치하며, 또 동북경제와 중원 경제지역과 이어지는 매우 풍부한 자연자원을 지니고 있다. 이곳은 장강(長江) 삼각주, 주강(珠江) 삼각주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둥성은 한국의 서해안에서 가장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인해 동북 3성, 광둥성(廣東省) 등과 함께 중국 내 한국기업의 투자적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또 산둥성은 광둥성, 강소성(江蘇省) 등과 함께 중국에서 개혁과 개방을 선도하고 있는 성이기도 하다.

샘물의 도시 제남(濟南)

황하 하류 소청하(小清河) 남안에 위치한 제남시는 산둥성의 성도로 인구 약 260만의 도시다. 춘추전국

시대에 제나라 서부의 도시로 발전했으며, 한대에 이르러 도시 이름을 제남이라 불렀다. 제남은 수, 당, 원, 송, 명, 청의 각 시대를 통해 번영해 온 도시이다. 현재의 시가지는 진포(津浦, 천진-포구)와 교제(膠濟:청도-제남)철도의 분기점인 제남역을 중심으로 선로의 남쪽에 발전해 있다. 동부는 명대에 건설된 내성을 중심으로 공원, 학교 등이 있는 문화지구가 형성되어 있고 서부에는 상업지구, 남쪽에는 주택지구가 자리잡고 있다.

제남은 옛부터 물이 좋기로 유명해 우물이 잘 개발되어 있다. 제남의 우물은 근교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여 1백여 개소나 되는데, 중국인들은 옛부터 샘물이 분출되어 경치가 아름다운 제남을 천성(泉城)이라 부르고 있다.

제남에는 한족을 비롯 만주족, 회족, 묘족, 조선족 등 29개 민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 도시로 다양한 생활 풍습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푸른 해양도시 청도(靑島)

황해를 굽어보는 산둥반도 제1의 도시 청도, 우리말로 푸른 섬의 도시이다. 현재 1,400만 명의 인구가



산둥성 작은 마을 沂水현의 모습.
집집마다 앞마당에 댕돌을 놓고, 쌀과 콩을 갈아서 가족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는다.

살고 있으며, 유럽풍의 건축과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하여 여름마다 중국의 고위관리를 비롯 해외에서도 즐겨찾는 피서지이기도 하다.

청도는 1891년 중국정부에서 요새를 건설하고 해군을 주둔시킬 때까지는 작은 어촌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7년 뒤인 1898년에 독일이 청조를 독일 선박의 항구조차 지역으로 선택해 중국정부에 강제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그 후 1년 이내에 독일인들은 유럽풍의 도시를 건설하고 외국 지배하의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중국인 거주지역을 따로 설정하였다. 1914년에는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했다가 잠시 주권을 회복하였지만 다시 일본군 손아귀에 떨어졌다가 결국 중국 공산당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다.

현재 청도는 산동성 '용두(龍頭)정책(최우선 개발 계획)'의 핵심지로서 명실상부한 '산동성의 공장'이자 수출항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불과 30년 사이에 공업생산성은 20배가 늘어나고 천진을 따라잡기 위해 항만시설의 확충에도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산동성 경제의 머리가 바로 청도이며 신흥 경제지구로 발전하는 인근의 위해, 연대, 제남이 청도를 중심으로 동반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공자의 고향 곡부(曲阜)

산동성의 내륙부에 속하는 곡부는 지금으로부터 2천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공자의 탄생지이다. 61만 명이 살고 있는 현급시 곡부에는 지금도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여만 명이 공(孔)씨 성이다. 이곳은 '곡부에 공자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거의가 공자일색이다. 공부(孔府: 공자 및 그 자손들의 거주지), 공묘(孔廟: 공자의 사당), 공림(孔林: 공씨 가문의 묘지)등을 통칭하는 삼공(三孔)이 곡부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자와 유관한 사적 및 문물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공자 및 맹자와 관련된 문물을 보러오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한 해에 30만 명을 헤아릴 정도이다.

기독교 현황

신도 수는 '93년 현재 40만~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산동성의 교회는 부흥이 매우 빨라서 지난 십여 년



청도의 한 작은 어촌 마을. 그물을 낚고 있는 여인과 어린 아이의 모습이 평화로와 보인다.

이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현재 대량의 성경과 체계적 양육이 필요하다. 충분한 집회 장소가 없어서 야산이나 숲속에서 예배모임을 거행하기도 한다.

산동 교회는 자립교회이며 선교사업의 모범이 되기도 하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921년 창립된 예수가정(耶穌家庭)으로 모든 물자를 교회에서 공용하는 공동체 생활을 실행한 자립, 자양, 자전의 교회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연변에 기업은 들어오지 않고 선교사는 200여명 이상이 와 일부가 지나친 포교 경쟁을 하는 바람에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아직 중국에서는 공식적인 종교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과잉 선교를 자제해 주는 것이 이곳 조선족과 한인들을 돕는 길이다.”

-최근 고국을 찾은 중국 연변 한인회장
조흥연(趙興衍, 49세)씨의 말-
《주간조선》1995. 10. 5



衣建美

중국요리(Ⅱ)

요리를 주문하는 기술과 방법

중국 음식점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주문하는 것이다. 그 많은 음식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 뭐가 뭔지를 모르는 때가 많다. 주문을 알맞게 하면, 먹기 좋을 뿐 아니라 경비도 절약할 수 있다. 주문할 때 그 비결을 알아야 한다. 간단한 요리와 복잡한 요리가 교대로 배합되고, 요리가 나오는 앞뒤 순서도 손님의 기호와 습성, 환경 등이 모두 고려된 것이어야 한다.

한국에 있는 중국 음식점은 메뉴가 다소 단순하지만 중국, 홍콩, 대만, 미국의 음식점에 간다면 당신은 요령껏 주문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음식점의 메뉴는 한계가 있지만, 크고 유명한 음식점에서는 전문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잘 알다시피 “빠없

는 봉황의 발톱(去骨鳳爪:봉황의 발톱은 바로 닭발이다)”, “굴 기름 친 두개의 겨울(蠔油雙冬-여기서 두개의 겨울이란 버섯(冬菇)과 죽순(冬筍)이다)”, “백옥진미(白玉藏珍:백옥은 일종의 호박이고, 진은 말린 조갯살)”, “나무에 오르는 개미(螞蟻上樹:잡채를 말함)”, “기와 모양의 생선튀김(瓦捲魚)”, “동과 돼지고기(東坡肉:장조림을 한 돼지 비계살)”, “서시혀(西施舌)” 등 이름도 희안한 요리가 부지기수이다.

또 중국인에게는 항상 범사가 뜻하는 대로 잘 되기를 기원하는 ‘문화상징’ 단어가 있다. 예를 들어, ‘6’이라는 숫자는 ‘매끄럽다’라는 뜻을 가진 ‘溜(liu)’와 발음이 같아서 ‘순조롭다’는 뜻을 연상하게 하며, ‘8’ 역시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의 ‘發(fa)’와 같은 발음이므로 중

국민들은 이 두 숫자를 매우 좋아한다. 음식 이름도 예외는 아니다. “상서로운 용의 헌상(祥龍獻)”, “날개를 펼친 공작새(孔雀開屏)”,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다.(一帆風順)”, “소나무와 학처럼 장수하다(松鶴延年)”, “용·금게처럼 길하다(龍柱呈祥)”, “영원히 한마음(永矢同心)”, “색동 나비의 춤(彩蝶飛)” 등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며 웅장한 이름인지 외국인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어떤 때는 중국인인 나조차도 이름만 보고 근사하게 주문해 내지 못하니, 음식 주문은 실로 큰 과제처럼 느껴진다.

중국 음식의 계보

입맛의 정도는 지역과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중국 각지의 진귀한 요리는 독특한 특색이 있다. “산을 낀 곳에서는 산에서 나는 것을 먹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靠山吃山, 靠海吃海)”는 중국 속담도 있다. 이로 인해 아주 자연스럽게 남쪽은 달고, 북쪽은 짜고, 동쪽은 맵고, 서쪽은 시게 먹는 각기 다른 음식 기호로 나뉘게 되었다.

중국인은 맵게 먹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친구에게서 듣건대 쓰촨(四川), 후난(湖南)에서 먹는 그 매운 맛은 입에 불이 붙는 것 같다 하니 그 매운 정도를 짐작할 만하다.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쓰촨 계열의 음식을 주문해도 무방하며 그 맛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방별 음식 계열의 형성은 각자 아주 오랜 역사의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지방은 당시 국내외 경제 문화가 교류되고, 지하자원이 풍부하던 곳이었다. 보통 광둥(廣東), 쓰촨(四川), 베이징(北京), 장쑤(江蘇)의 4대 음식 계열로 구분된다.

광둥 요리에 쓰이는 재료는 광범위하고 선택이 엄격하며, 맛은 깔끔하고 신선하고 상큼하고 매끄럽다. 요리법은 찌고, 볶고, 데치는 것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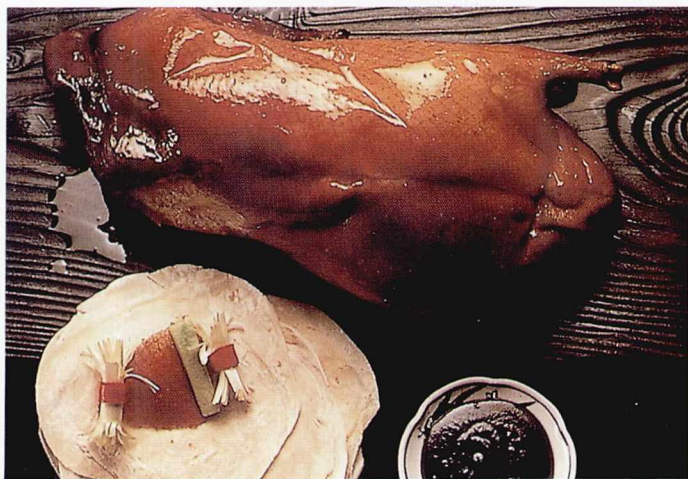
계절이 바뀔에 따라 요리에 곁들이는 것도

매우 풍부하다. 간식(點心)과 죽 요리는 광둥 요리에서 특히 발달하였다. 홍콩에 가 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찻집에 간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각양각색의 간식과 죽이 손님에게 제공된다. 찻집에 가는 것은 광둥 사람들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쓰촨 요리의 특색은 기름기가 많고 맛이 강하며 매운 맛의 양념을 많이 쓴다는 것이다. 이것은 쓰촨의 기후와 관계가 깊다. 안개가 짙고 흐린 날이 많고 습기가 많은 이 지역에서, 매운 맛은 몸의 답답한 기운을 쉽게 발산시켰기 때문이다. 쓰촨 요리의 또 다른 특징은 평범한 재료를 잘 이용하여 여러 가지 맛을 낸다는 것이다. 한 덩어리의 고기로도 여러 종류의 다른 맛을 만들어 낸다.

장쑤 요리는 남북의 맛을 겸비한 혼합요리이다. 민물게와 어패류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가 특히 발달되었다.

베이징 요리는 명말 청초에는 그리 유명하지 않았으나 건륭년 간에 이르러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 후 중국 청 황실의 식사를 위해 전대의 경험을 축적하여, 전국의 정수를 모았기 때문에 전통과 격식과 맛을 갖춘 ‘궁중요리’가 형성되었다. 현재 베이징에는 청대 궁중 요리를 모방하여 만들어 내는 음식점이 있는



베이징의 명물 오리구이. 일명 베이징카오야(北京烤鴨)



데, 돈을 좀 들이면 청나라 황제의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중국의 식탁 문화

현재 세계 각지의 중국 음식점은 더욱 고급화 되고 있고 중국식 연회(宴會)는 거의 사치의 극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대만에서는 1년 간 먹는 데 들이는 비용으로 타이베이(臺北)에서 까오슝(高雄) 간의 고속도로 몇 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이다. 대륙의 고급 관료와 정계 인사들의 연회는 사치스럽다 못해 지나쳐서 일반 서민들의 실생활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중국인들 스스로도, 만약 중국인들이 먹는데 쏟는 정신과 연구를 과학과 문화에 투자했다면 벌써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을 것이라고 늘 자조식으로 말한다.

어쨌든, 중국인들은 어디를 가나 그 지방에 어떤 특산품과 유명한 음식이 있는가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다. 여행 코스에서조차 먹는 것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꼽는다. 중국이 개방된 이후, 일부 미식가들은 과거의 그 맛을 못 잊어서 어떻게든 다시 한 번 여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고향의 맛이 이미 과거의 맛이 아닐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나 추억이 깃든 옛 음식점에는 여전히 앉을 자리가 없다. 베이징에 가면 ‘취엔취더(全聚德)’의 베이징 카오야(北京烤鴨:구운 오리)와, ‘둥라이쑤(東來順)’의 샤이양러우(涮羊肉:신선로에 양고기를 살짝 데쳐 먹는 요리)를, 티엔진(天津)에 가면 ‘거우부리(狗不理)’의 고기만두를 먹어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중국은 농경민족이다. 가정제도가 여기에서 생겨나서 식탁에서도 가부장제의 위엄과 권위가 나타났기에, 중국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식탁에서 장유유서 및 예절의 웅대 문화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 후에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에서의 인간관계가 점점 확대된다. 오가는 인정 속에 다 같이 식사를 구실로 우정을 나누고 교제하며 유지한다.

식사하는 장소는 실제로 중국인의 가장 중요한 생활 중심지이며 오고가는 인정의 중심지이다. 사교장소가 바로 음식을 먹는 곳이니 중국 음식이 발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衣建美 / 여한중화기독교한성교회 유전명 목사 사모,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선교사훈련원 전임
교수, 고려대 중문과 강사

번역 / 이민선 · 본지 편집기자

시 사 만 평

양보

卡增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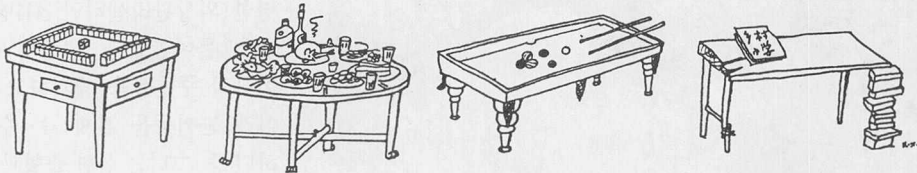


공금을 유용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관례화된 중국에서는, 회사나 국가기관의 공금을 들고 찾아오는 손님을 최고로 대접한다.

大款(dàkwàn): 많은 돈을 쓸 고객이란 뜻
公款(gōngkwàn): 공금

탁자의 연상(聯想)

曹開翔



마작, 당구, 술과 음식이 놓여진 탁자들은 멀쩡한데 시골 소학교의 책상은 부서지기 일보직전이다.

자부심(自豪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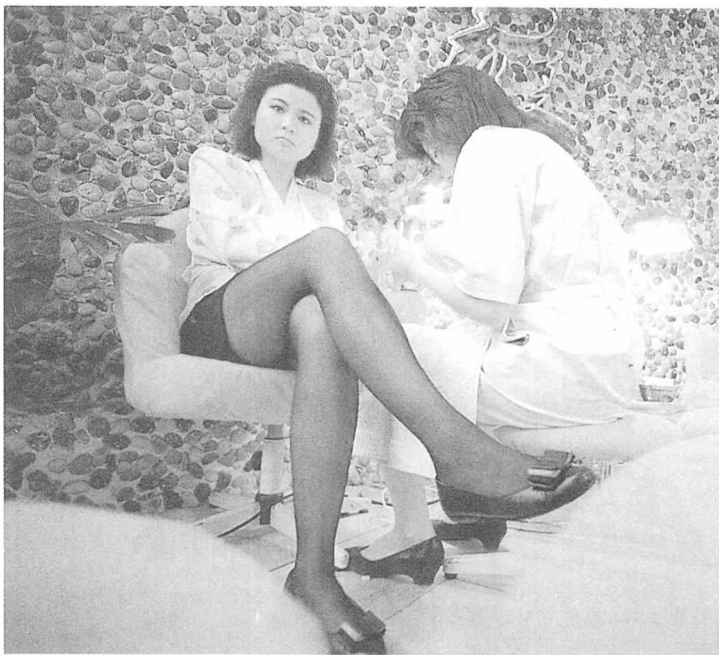
李中强

두 만화는 중국이 여러가지 면에서 소비수준이 높아가고 있지만, 낙후된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중국 농촌의 열악한 상황을 풍자한 것이다.



《工人日報》에서 발췌

인기직종으로 떠오른 미용업의 어두운 그림자



생활수준의 향상과 사교활동의 빈번함으로 중국의 미용실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 되었다.

중국 대륙에 미용업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미용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성형수술을 겸하고 있다.

관리의 혼란으로 악덕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여성들의 얼굴을 망치는 일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퇴폐업소도 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서서히 들어서고 있다.

60세의 마샤오싱(馬肖馨) 여사는,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자신을 창출하고자 북경의 유명한 외상관리센터인 304병원에 발을 들여놓았다. 성형외과에서 이마의 주름살을 제거하고 양쪽 아래 눈꺼풀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던 중, 그녀는 심한 출혈과 구토로 인해 응급실로 옮겨져야 했다.

5일 후, 거즈를 떼보니 눈꺼풀이 밖으로 뒤집혀 있고 붉은 색으로 축 처져 있어 마 여사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주치의는, 거즈를 막 떼어냈을 때는 다 이러하니 한달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며 놀란 그녀를 안심시키려했다. 열흘 후 이마의 거즈를 떼어보니 이마의 피부가 좌우로 약 1.5cm 정도 차이가 나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때문에 양 눈썹의 높이가 틀려지게 된 것이다.

마샤오싱 여사는 절망에 빠졌다. 한 회사의 고위간부이며 연출단 단장이기도 한 그녀는 중국

BTV와 CCTV에서 개최하는 춤과 패션쇼 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도 있다.

수술 실패 후 6개월이 지나서 의사는 눈꺼풀의 재수술을 시도했지만 두 번째 수술 또한 성공하지 못했다. 두 달 후 의사는 밖으로 뒤집혀진 눈꺼풀을 3차 수술해 주었지만 눈꺼풀은 여전히 뒤집혀 있었다. 얼마 후 의원에서는 잘못 수술된 이마 부분을 수정해 주었지만 역시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수술 부위는 여전히 기울어 있었고 눈썹 또한 높이가 틀려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304병원에서는 마 여사에게 자신들의 할 도리는 다했다는 투였다. 이 병원의 의무처 조수로 있는 황샤오팅은, “범률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 미용성형은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협화외과대학 성형외과의원의 리린카이 교수에 의하면 성형이 보기에는 쉬워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성형의학은 3급 의학과에 속하며 그 기초는 외과와 정형외과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이다. 그는 “우리 병원에서는 반드시 전문의 이상만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종 명목으로 시술하고 있으며, 그 이하 진료소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고객들은 많은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자협회에서 최근 발표한 94년도 10대 소비자 고발 사건 중에서 미용부문에 관련된

소송이 6위를 차지했다. 요녕성 소비자협회는 작년에만 194건의 미용관련 고발사건을 수리했는데 이것은 1년 전에 비해 62%나 증가한 숫자라고 한다. 각급 법원에서 수리한 이런 류의 사건은 배로 늘어나고 있다.

미용시장의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자 조건이 좋지 않은 병원들마저 경제적인 이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속속 미용성형 업무를 개설하고 있다. 피부과, 구강과, 안과 및 일반외과에 종사하던 의사들 중에서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이 분야에 뛰어드는 이들이 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형편없는 위생상황에 기술 수준이 조악한 개인 미용실에서조차 아이라인, 눈썹 문신 등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의사는 눈꺼풀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시술하여, 속 눈썹과 눈물샘을 잘못 건드려 환자의 속눈썹이 빠지게 해서 종일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가벼운 정도에 불과하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아이라인 문신의 경우, 색소가 너무 깊이 침투해 ‘팬더눈’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늘을 너무 깊이 찔러 색소가 피하조직에까지 침투해 넓게 퍼진 결과이다. 또한 수술기구가 제대로 소독되지 않아 각종 세균에 감염되는 일도 허다하다.

상하이(上海) 성형외과학회 주임 관원상(關文祥) 교수는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길거리의 이발소나 떠돌이 이

발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용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에서 빨리 관련 규정을 정해 성형의학이 올바른 길로 들어서길 바란다.”

『동방 대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상하이탄(上海灘)에서 최근에서야 겨우 국제화에 발맞추게 된 것들이 있는데 미용업이 바로 그 중의 하나이다. '89년 이전에는 전 상하이에 전문 미용업소라 할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규모의 미용실에서 고급 미용실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뻗뻗이 들어서 있다.

그중에 국영은 천여 곳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3천 개 소에 이른다. 이것은 미용업무를 겸하고 있는 이발소는 포함시키지 않은 숫자이다.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미용업소와 기관은 이미 70만 개가 넘어서고 있으며 미용 종사자만도 약 5백만 명에 이른다.

중국에서 미용업 허가증을 취득하기란 비교적 까다롭기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상하이 정안구(靜安區) 공상국(工商局)의 한 인사는, 미용업 허가증은 다른 어떤 영업 허가증보다 취득하기가 쉽다고 귀뜸해 주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용업을 시작하려면 지금 3가지 경로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면 직접 관련부문에 허가증을 신청하는데, 장소 증명서 외에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영업수준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하다.

이발소가 미용실로 변하기도 하고 혹은 병원에서 미용성형과를 증설하기도 한다. 병원에서는



경제개방의 물결을 따라, 미용실은 부유층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는 이전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다.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신들의 수준높은 기술을 자랑이라도 하듯 마구 성형수술을 해대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중국에서 미용관련 증명서는 자격증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금전증서가 되어버렸다. 돈만 있으면 자격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다. 광저우(廣州)에서는 인민폐 2천원(한화 20만원)정도면 국제미용사 자격증을 살 수 있다. 요녕성 선양(瀋陽)에 있는 수백 군데의 미용실들의 대부분이 국제미용대사(國際美容大師, 대사는 대가, 거장의 뜻·역자 주)라는 증서를 미용실 벽에 걸어놓고 있다.

어떤 미용사는 홍콩인에게서 인민폐 250원(한화 약 2만5천 원)을 주고 국제미용협회 회원증을 샀다고 한다. 이런 부류의 홍콩인

들은 중국 대륙을 겨냥해 이런 증명서를 매매하는 전문적인 사기꾼들이다. 어떤 때는 중국 내의 미용실을 거쳐 도매가격으로 팔아 넘기기도 하고, 개인에게 직접 팔기도 한다.

미용 관련 기관이 중국 내에 들어와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국가 행정부문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국제미용협회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도대체 이들이 얼마만큼의 증명서를 도매로 팔아넘겼는지 그 숫자를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요녕성 다롄(大連)의 3백여 개소 미용실 경영자들의 절반은 이런 종류의 증명서를 소유하고 있으며, 푸신(阜新), 안산(鞍山) 등 작은 도시에도 국제 미용사들이 수도룩하다. 미용에 대해 아무 지식도 없는 '미용의 대가'들이 사람

들의 얼굴에 제멋대로 각종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탓에 얼굴을 망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신문에서 미용학교 수강생 모집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학교들은 갖가지 미용훈련반을 통해 졸업 후 학원생들에게 국가기사 자격증, 노동부 등급증서, 중화인민공화국 기술등급증서 등을 발급해 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이 미용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는 상관하지 않은 채 도장을 찍어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 미용풍조가 일어나고 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도나도 아름다워지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고 있다. 판원상 교수는 실제로 있었던 웃지못할 이야

기 하나를 들려주고 있다.

어느날 자신을 찾아 푸지엔(福建)에서 상하이까지 온 세 명의 20대 아가씨들이 주름살 제거술을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판 교수는 “아가씨들 얼굴에 주름이라곤 없는데 어디를 어떻게 제거해 달라는 말이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세 아가씨들은 계면쩍은 웃음과 함께 도망치듯 가버렸다고 한다.

상하이에서 정기적으로 미용실을 이용하는 고객 중 3분의 1은 남성이라고 한다. 이들은 날썸을 정해놓고 얼굴 마사지, 피부보호, 모발 염색 등을 한다. 예전에는 인민폐 20~30원(한화 2,3천 원) 정도면 부담없이 미용실을 드나들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광저우,

상하이, 하이커우(海口), 베이징, 난징(南京), 우한(武漢) 등 대도시에 있는 고급 미용실에 가면 가장 간단한 미용 서비스에만 최소 100원(우리돈 약 1만원)은 들어야 한다.

설비의 개선, 기술 향상, 원가의 증가로 인해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많은 미용실들이 이런 이유를 빌미로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만큼 미용 가격이 높아졌다.

중국에서 미용업 관리는 상당히 혼란하여 각 지역마다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어떤 지역은 공상국(工商局), 어떤 지역은 경공업국(輕工業局), 어떤 지역은 여유국(旅遊局), 사

회과학연합회 등 소재 지역마다 관리와 소속기관이 각기 다르므로 상당히 혼란스럽다. 또한 미용업의 80~90%를 차지하는 개인 혹은 합자(역자주: 외국 기업과 자본을 함께 투자하는 것) 미용실은 어느 곳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관리의 혼란으로 미용업이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 약점을 이용해 범죄자들이 미용실을 추악한 범죄의 온상으로 만드는 일도 빈번하다. 어떤 미용실들은 손님을 끌어들이며 퇴폐, 도박, 마약 따위의 장소로 제공되기까지 한다.

미용시장의 강한 수요가 미용업의 팽창을 조성했고 이것은 관리의 소홀을 초래했다. 베이징 국무원이 공포한 의료기구관리조례가 작년 9월부터 실시됨으로써, 의료기관 및 미용서비스업의 심사기준, 등기, 감독, 명명과 평가에 대한 조례와 규정이 생기기는 했으나, 실행에는 여전히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 대륙의 미용업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하느냐는 것이다.



벽마다 뽁뽁이 들어찬 광고들은 여러 직종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그 중에는 세소 생긴 미용학원 수강생 모집이 대부분이다.

편집자 주: 이 글은 “亞洲週刊”(1995, 6, 25)에 실렸던 “美麗行業的醜陋運作”을 번역한 것으로 아주주간의 승인을 얻은 것이다. (本文轉載自亞洲週刊 1995年 6月 25日 70~71頁, 已得批准).

번역/신호정 · 자원봉사자

선교사의 아내 사역

김미미



“하나

님을 사랑하여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나?”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속삭이듯 이렇게 말했다. 그러더니 무릎꿇고 앉아 있는데 곁에서 노트에 무엇인가를 정성껏 쓰기 시작했다.

나도 복음을 거절하는 나라에 들어와 그 동안 왜 우리가 여기에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았다.

아내 사역자로서 나는 먼저 가정사역이 중요하다고 여겼기에 나름대로는 남편을 돕고 자녀들을 섬기노라 노력했던 것 같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나면 열심히 언어를 배우는 일 외에 특수지역에 있는 고로 사업에까지 간섭을 해야 했다. 생각해보면 아내, 엄마, 학생, 구령사업에다 돈 버는 사업까지 - 한 가지 일도 똑바로 못해낸 것 같아 죄스런 마음이 든다.

가정

선교지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단이 선교사 가정을 많이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알게 모르게 받는 스트레스가 가정 안에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는 서로가 조심하면서 친구처럼 대화로 풀어나갔던 것 같다. 사소한 일로 큰 위기까지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가정들도 보았다. 특별히 우리가 있는 곳은 ‘남녀평등’ 사상이 완전히 자리잡고 있어, 남녀가 한방에서 몇 년씩 근무하는가 하면, 당직 때 남녀 둘이서 밤을 새워도 누구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당황하기도 했다. 본인이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무턱대고 남편을 바꾸라는 전화를 받기도 하고, 부부가 싸고 미인계로 돈을 벌리려는 이웃도 있으며, 춤추러 가자고 남편에게 스스럼없이 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인내해야 했다. 그땐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몰라 애태왔는데 이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친구가 되어가면서 점점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다.

어느 날 국민학교 1학년인 우리 아들과 반 친구들이 우루루 몰려 들어와 “××가 오늘 입당했어요”라며 기뻐했다. 우리 아이가 드디어 ‘붉은 넥타이(홍령건:紅領巾)’를 받았다는 말이다. 국민학교 때부터 성적 순서대로 한 명씩 주는 붉은 넥타이는 어릴 때부터 공산당 교육을 시키는 한 방편이라 생각된다. 어떤 목사님 딸은 그것을 꼭 끌어안고 잠잔다는 말을 들은 터라, 미리 아이들에게도 일렀고 나 스스로도 준비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서고 보니 기분이 참 묘했다. 교과과정 중에도 ‘존경하는 모택동 주석님...’, 우리는 오성기를 사랑합니다’ 라고



암기식의 교육을 시키는데 정말 난감하기만 했다. 우리는 담임 선생들을 초대하여 남북한 관계를 설명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산당 교육을 좀 면제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아침 8시면 학교에 가고 5시가 다 되어야 돌아오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받는지 늘 점검해 보고, 집에서는 따로 한글과 성경을 가르쳐야 하니 부모도 힘들지만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가 여간 아닐 게다.



언어와 문화적응

처음 ××에 도착했을 때 우리집 전화번호 외에는 중국말을 한 마디도 할 줄 몰랐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미 한 달 반 이상 진도가 나가 있었고 학생들은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미 1년 이상씩 공부를 하고 온 상태였다. 그때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 하루에 4시간 듣는 학교수업 외에 2시간은 가정교사로, 2시간은 나 혼자, 이렇게 평균 8시간씩 꼬박 언어공부를 했다. 그렇게 3개월 하고 나니 방학이 되었고, 방학중에도 중국 학생들과 하루종일 지내면서 공부를 하여 떨어진 진도를 만회했던 기억이 있다.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나는 제대로 발음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몇 번씩 반문할 때였는데, 이럴 때마다 낙망이 되곤 했다. 아이들도 처음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할 때는 매일 안 가겠다고 우는 것을 때로 때리면서, 달래면서, 기도하면서, 또 선생님들과 계속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보내야 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은 네 식구 모두 그런대로 언어 적응이 잘 된 것 같고 문화에도 차츰 익숙해지는 것 같다.

현지의 좋은 문화는 받아들이고 나쁜 것, 고쳐야만 되는 문화는 지혜롭게 고쳐보려고 노력했다. 집에 온 중국인들이 음료수건 음식이건 대접을 하면 꼭 손을 안 대거나 남기고 가길래 왜 그런지 물었더니 그것이 그들의 ‘체면문화’라고 했다. 우리가 그들의 집에 갔을 때 접시를 깨끗이 비우면 주인이 음식을 적게 차렸다고 생각하게 되어 예의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에 오는 중국 형제들에게 우선 먹을 것을 주면 맛있게 다 먹어서 나를 기쁘게 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집에 초대받았을 때는 맛이 있어서 다 먹는다는 것과 우리는 접시가 비면 주부들이 더 기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용기있게 그릇을 비웠다. 그 후로부터 우리 친구들은 이제 적어도 체면 때문에 안 먹는 일은 없어졌다.

처음 쇼핑하러 갔을 때 복무원들의 불친절이 눈에 거슬렸는데 이제는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다. 무엇이든 물으면 “없어요”, “몰라요”가 그들의 대답이란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요령이 생겨서 “아가씨 어쩌면 그렇게 예뻐요?” 란지, “××의 아가씨들은 친절하더라”는 식의 유머를 먼저 던져 한번 웃은 후 물건을 사는 지혜도 배우게 되었다. 거스름 돈을 집어 던질 때는 늘 기분이 나쁘지만 같이 집어 던져보기도 하고, 일부러 떨어뜨려 주워오게 하면서 나름대로 그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터득해 나가고 있다. 주변에서 큰소리가 난다 싶으면 어느새 칼부터 빼들고 싸우는 북쪽 사람들의 다혈질적 기질에 기가 죽기도 하지만, 그런 반면 솔직하고 관대한 그들을 사실 난 참 좋아한다.

어느 날 베갯잇 한 장을 사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두 장이었다. 중국인에게 선물할 때는 꼭 쌍으로 해야 하고 그들은 홀수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음식을 차릴 때도 짝수로 맞추어서 내놓고 전화번호나 자동차 번호에도 ‘8’자(字)를 받기 위해 돈을 더 쓰기도 한다. 덕분에

우리는 좋은 번호를 싸게 받은 적도 있었다.

대학생들과 자주 접하다 보니 학교 안의 일들을 알게 될 기회가 많다. 어느 날 교실에 성적표가 붙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성적표가 우리 것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 항의 것은 학과 성적표였고, 두 번째 것은 반 학생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점수로 평가한 성적표요, 세 번째 것은 당과 반장이 평가한 개인의 성적표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스스로를 평가당하는 그들인지라 한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공개적으로 장단점을 다 말할 때는 얼굴이 붉어지곤 했지만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했다. 내가 쇼핑을 나가면 “저 사람은 한국 여잔데 집은 어디고 아이가 둘이고…” 하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린다. 이러한 말들이 처음엔 귀에 거슬렸지만 이제는 그들의 친절과 관심으로 받아들여 같이 이야기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곤 한다.

어느 날 공안 직원이 불려서 무슨 일인가 하여 갔더니, 그 동안 바뀐 정책을 알려주면서 한국 기업인 간에 사기사건이 발생했으니 조심하라고 했다. 한 한국 기업인이 다른 한국 기업인에게 사기를 당하여 기업이 도산상태가 되었는데, 중국인 친구가 자기 재산을 팔아 도와 주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 민족성에 대한 한 단면이다. 친구로 사귀기가 어려운 반면,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관대한 중국 사람의 한 모습이 아닐까? 외국인에게는 터무니없이 바가지를 씌우고 메이관시(沒關係:관계없음)일 때는 안면몰수 하다가도 작은 친절 하나에 마음의 문을 여는 그들을 우린 사랑할 수밖에 없다.

구령사업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공산당 통치 밑에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예수님 역시 안전한 지역이 아닌 악독한 헤롯의 통치 밑에 있으셨고,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사명이 있어서 그곳에 있으셨고, 필요하다면 공산당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다.

무신론과 진화론의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창조론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새삼 깨닫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이다. 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기도의 권능이 더 요구된다. 내가 할 때는 어렵지만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거짓말같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은혜를 받게 된다. 사도행전 13:48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했는데 우리의 할 일은 전하는 일인 것 같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주께서 도우시고 이적을 베푸셨다. 한 영혼이 흑암의 세계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이상의 이적이 또 있을까? 중국에서의 2년 반 동안 큰 기쁨으로 우리를 지탱했던 힘은 바로 새로운 영혼들이었다. 한 영혼이 탄생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살려 주셨다.

때론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가슴아파하기도 했다.

『침묵정진 여주동행(沈默正進 與主同行)』 박윤선 박사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침묵으로 정진하셨다는 이 귀절을 붙여놓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그들을 초대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형제간의 사랑을 체케 해 주셨다. 좋은 것을 가지려면 그것에 수반되는 싫은 것도 견뎌야 하고 고통도 따름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훈련으로 거듭난



자만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사업

사업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주의 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지역에서 진짜 사업을 시작했다. 하는 일마다 실수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사업의 지혜를 얻어가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와 사업상담 몇 번만 하면 “저 사람은 사업가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창세기 31:24에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던지. 분명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럽고, 사업적인 상식으로 안될 일인데, 주의 종의 입에서 떨어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와주셨다. 지금 중국에는 군인이건 교수건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꾸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삼풍백화점의 아비규환 속에서 세 명의 젊은이들이 살아나오는 것을 온 국민이 자기 아들딸이 나오는 것처럼 감격스럽게 지켜보았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그 원인 제공자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끼어 있음을 보면서 남몰래 숨 죽이고 민망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새삼 다시 생각해 본다. 내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정직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 주를 바라보기를 주께서는 원하실 것이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들 속에서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일꾼,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라 생각되어 오늘도 나는 우리의 작은 가정을 위해서 뿌듯한 마음으로 주방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미약하나마 힘 닿는 데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비바람,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법.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튼튼한 기초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사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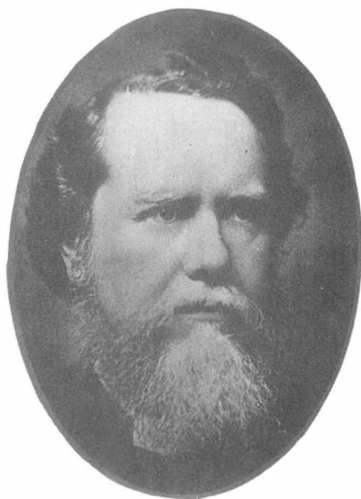
산터우(汕頭)로의 부르심

허드슨 테일러

갑자 기 우진(烏鎮)을 떠나게 됐을 때 우리는 무척 실망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 우리는 이곳에서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우리가 보기에 나쁜 환경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일부분이며 앞으로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박해가 임하는 것도 허용치 않으신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비록 우리가 그 길을 잘 모를지라도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다.

상하이로 돌아온 후에 우리는 며칠 안으로 전도책자들과 돈을 가지고 다시 섬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때, 우리는 산터우(汕頭)에서 선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우리에게 그곳의 필요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영국 상인이 스완다오(雙島)에 살면서 아편을 팔고 쿨리 무역(역자 주: cooly 중노동에 종사하는 중국이나 인도의 하층 노동자-실질적으로는 노예 무역)을 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영국인 선교사는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했다. 그러나 수일이 지나도 여전히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었다. 나는 여태껏 빈

선생같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준 분을 만나지 못했고 이처럼 거룩한 성도로서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려본 적도 없기 때문이었다. 빈 선생과 헤어지는 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던 어느 날 밤, 나와 빈 선생은 로리에 목사님(Rev. R. Lowrie)을 방문했다. 로리에 목사님은 미국장로교단의 선교사인 데 집은 상하이의 난먼(南門)에 있었다. 차를 다 마신 후에 사모님이 우리를 위해 찬양 한 곡을 불러 주셨다. “복음 사역자의 부르심(The Missionary Call)”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다. 전에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찬양이었으나 나는 이내 큰 감동을 받았다. 찬양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내 마음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다. 나는 이 곡의 가사처럼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다.

“주님! 가겠습니다.

다시는 친한 친구들과 내 어리석은 생각들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장승원 그림

또한 내 마음과 조국을
연결시키는 모든 끈들도…….
세상에서 나의 운명이 폭풍이든
태양이든,
내 잔이 쓰든 달든
이후로 다시는 계산하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로 성결케 하옵소서.
주님, 제게 용기를 주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그곳을 떠날 때 나는 빈 선생을
나의 작은 방으로 불렀다. 그 방은
여전히 상하이의 본부로 사용되
고 있었다. 얼굴이 온통 눈물로 범
벅이 된 채, 나는 그에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그
리고 그와 헤어져서 나 홀로 새로
운 사역지로 가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빈 선생의 표

정은 의아해하는 듯 했다. 그는 조
금도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는
곧이어, 같은 날 밤 주님께서 자기
에게도 산터우로 갈 것을 지시하
셨다고 대답했다. 당시 그는 나와
헤어지게 되어 매우 섭섭해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결국 우리는 함께
그 지역에 가서 다시 한 번 복음
사역을 펼칠 수 있었다. 수년 동안
이루어진 이 사역에 하나님은 풍
성한 은혜로 채우셨다.

오래전 바젤 진도회(Basel
Missionary Society) 소속 레클
러 목사(Rev. R. Lechler)는 산터
우 근교 일대를 두루두루 유람한
적이 있다. 그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쫓겨났고 마지막으로 홍
콩으로 쫓겨났는데 그가 한 모든
일은 영원히 잊혀질 수 없을 것이
다. 이 충성된 주님의 종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사람을 낚는 어부”

로 살아왔다. 최근에 그는 그를 열
심히 돕고 있는 부인과 함께 다시
한 번 홍콩을 떠나 중국 내지로 돌
아가 오랜 세월 동안 사랑해온 백
성들에게 남은 생애를 바치고 있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리스
도인 친구 바워 선장(Captain
Bowers)은 나와 빈 선생에게 산
터우의 필요들을 말해 주었고 우
리가 앞으로 그 번영되고 인구밀
도가 높은 상업 중심지에서 복음
을 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 기
대 이상의 성과라며 매우 기뻐했
다. 돌아갈 때가 다가오자 바워 선
장은 우리를 선뜻 지룽호(基隆號)
에 무료로 승선시켜 주었다. 우리
는 1856년 3월 초에 상해를 떠났
다.

6일 동안의 즐거운 여정을 마치고
우리는 스완다오에 도착했다.
우리는,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곳의 서양인들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이들은 아편 매매에 종사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장사를 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동류로 여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도심에서 거처할 곳을 찾기로 했다. 이 도시는 대륙의 갑(岬-반도처럼 바다 또는 호수 안으로 내민 땅:역자 주)에 위치해 있었고 한장(韓江)으로부터 수장(溯江)까지는 약 5마일이 된다.

도심지에서 방 한 칸을 찾는다는 것은 확실히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혀 가능성이 없아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오로지 기도로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맡길 뿐이었다.

어느 날, 한 광동 상인을 만났는데 그는 그 도시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관리의 친척이었다. 빈 선생이 광동어로 그와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상인은 자기의 방언으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다. 우리는 곧 그와 친구가 되었다. 또 그가 우리를 위해 거처할 곳을 구해주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처마 밑으로 손만 내밀면 달궀진 기왓장이 만져지고 난로처럼 뜨거운 비좁은 방에서 길고도 무더운 여름을 보내게 되었다. 그때의 일들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환경이 좀 낫거나 더 넓은 곳을 찾는다는 것은 모두 불가능했다.

부근의 마을을 심방할 때면 우리는 그나마 기분을 좀 전환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위험은 매우 심했을 뿐 아니라 발생하는 빈도도 잦아서, 이전에 북

쪽에서 했던 사역들은 이에 비하면 오히려 안전하고 덜 힘들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광동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증오와 멸시는 정말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다. ‘서양 귀신(洋鬼)’, ‘서양개(洋狗)’, ‘서양 돼지(洋豬)’ 등이 우리가 가장 흔히 듣게 되는 호칭들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오히려 나와 주님과 그의 사이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해주었다. 주님 또한 사람들에게 멸시와 거절을 당하지 않았던가!

마을을 심방할 때는 언제든지 납치를 당해 몸값을 요구당할 위험이 있었다. 촌민들은 이 일대를 ‘무법지대’라고 불렀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당시 주먹이면 뭐든지 통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작은 마을을 방문했을 때 이 마을 주민들이 다른 마을의 부자를 납치해 어마어마한 몸값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다. 그 부자가 몸값을 거절하자 주민들은 나무 몽둥이로 그 사람의 복사뼈를 부러뜨려 강제로 돈을 빼앗으려 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외에는, 이 지역에서 우리도 그와 똑같은 운명이 되는 것을 막아줄 아무 것도 없었다.

마을의 사면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1만에서 2만 명의 같은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늘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싸움을 걸었다. 한 곳에서 정성스런 대접을 받는데 다른 곳에서는 생명의 위험을 받는 이런 상황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큰 능력을 보여주셨다.

얼마 후, 이 곳의 한 관리가 병에 걸렸는데 의사들은 모두 속수무책이었다. 나중에 이 관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서 치료를 받고 나았다는 말을 듣고 곧 도움을 청해왔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사용한 약에 축복하셔서, 관리는 곧 완쾌되었다. 그는 너무 고마워하며 나에게 집을 빌려 병원과 약방을 열라고 권유했다. 그의 허락을 얻은 후 우리는 원래 세들어 살던 집 전체를 빌릴 수 있게 되었다. 약품과 수술 기구들은 상하이의 친구 월리가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곧 가서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

빈 선생은 암부(庵埠) -우리는 이곳을 여러 번 갔었다-로부터 내려와서 나와 작별을 했다. 내가 출발한 후에 요한슨 목사(Rev. J. Johnson)가 홍콩에서 파견한 두 명의 본지 선교사는 다시 암부로 돌아갔다. 요한슨牧사는 미국 침례회 전도연합회(American Baptist Missionary)에서 파송한 목사이다. 주민들 모두 그들의 설교를 듣길 원했고 받은 책들은 선물로 삼았으나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은 꺼려했다.

어느 날 밤, 한 떼의 강도가 쳐들어와 빈 선생들의 물건을 모조리 끌어갔는데 유일하게 책만은 가져가지 않았다. 이 책들이 값이 나가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튿날 아침 빈 선생은 노크 소리에 잠이 깨다. 알고 보니 촌민들이 책을 사러 온 것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는 이미 충분한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아침도 먹었을 뿐 아니라 그 중



장승원 그림

한 사람에게 여비를 주어 산터우 아래에 있는 스완다오로 가서 빈 선생의 편지를 그의 대리인에게 전해주어 쓸 돈을 마련해 오도록 했다. 그날 이후 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을 이었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은 책이 한 권도 팔리지 않았다. 책을 판돈이 막 바닥났을 때 스완다오로 갔던 친구가 필요한 돈을 가지고 돌아왔다.

내가 상하이로 향했을 때가 7월 초순이었으니까 산터우에 머무른 지 이미 4개월이 되었다. 나는 상하이에서 몇 주일 간만 머물면서 모든 의료기구들을 갖고 산터

우로 돌아와 빈 목사와 함께 일을 처리해 나갔다. 우리 앞에 새로 열린 희망이 가득한 사역지에서 우리는 모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장래의 일을 전망했다.

산터우와 인근 지역은 주님이 복을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 어떤 사람에게도 이곳에 머물면서 익은 곡식들을 거두어들이라고 지시하지는 않으셨다.

내가 떠나고 오래지 않아 빈 선생은 내륙에서 중국 관리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고 후에 광둥으로 보내졌다. 전쟁(1856년에 발발한 2차 중영전쟁(中英戰

爭):역자 주)이 난 후에 그는 다시 산터우로 돌아왔지만 사정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고 다시는 산터우로 돌아갈 기회가 없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도 다른 사역지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편집자 주: 이 글은 홍콩 선도출판사에서 출판한 『헌신중화(獻身中華)』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으로 선도출판사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번역 / 신호정 자원봉사자

전란의 비극

방지일



일본 은 만주를 다 집어삼키고 그것이나 소화했다라면 좋았으련만, 중국 대륙까지도 삼키려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 대동아를 다 손에 쥐려 했던 것인데 결국 그들의 참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기에 만주 대지도 다 내놓고 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

유신 정부를 남경에 세워 전 중국 대지를 다 손에 쥔 듯 하였지만, 도처에 유격전이 일어나서 불안에 쌓여 있었고 민생고는 극도로 치솟고 있었다. 이런 혼란 속에 사는 백성들은 가련하기 짝이 없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지 못했다. 갑작스런 습격을 당하면 일병을 증파하여 토벌작전을 벌였다. 전 촌락이 완전 화염에 싸이게 되니 정신없이 헤매는 가련한 난민만 늘어났다. 가능한 대로 먹을 것, 입을 것, 있을 곳도 준비를 해 주어야 했다. 믿는 식구들은 목사를 찾게 마련이다.

사방에 호소하여 큰 거지 노릇을 하게 된 셈이다. 여름일 때는 풀잎, 풀뿌리라도 닥치는 대로 먹고 살려고 하나, 장기간일 때는 얼굴이 퉁퉁 부어 보기에다 딱하였다.

겨울철에는 이것도 없으니 더욱 딱하였다. 최선을 다해서 죽지나 않게 주선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다. 어떤 피난민 중엔 너무 급하여 아이를 안고 갈 수 없어 마른 우물에 두고 갔다와서 찾겠다 하였는데, 갔다와서 보니 죽어버린 일, 아이를 들고 간다는 것이 베개를 들고 갔다는 일, 별별 일이다 일어났다.

이런 정황에서 그들과 같이 지낸 것은 악몽이었긴 하나,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나누었던 일은 여러 난관을 같이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지미교회」는 우리 선교의 근거지 중 한 곳인데, 이대영 목사가 계시던 곳으로, 그 교회는 이 목사님께서 완전히 한국에서 지원받



아 건축했고, 종과 풍금은 한국에서 가져간 것이다. 이 교회만이 이렇게 된 오직 한 교회이다.

거기에는 중국인 목사로 범순청(范旬淸)씨가 있었다. 귀한 성경학자로 많은 인기가 있는 목사인데, 하루는 상기된 얼굴로 내게 왔다. 강대상이니 의자니 종이니 다 일본군이 가져가고 텅빈 교회당만이 남았다는 것이다. 거기 주둔한 일본군은 「좌목(佐木)부대」였다. 즉시 그 부대를 찾아갔다. 이를 항의하니 전혀 모르는 일인데 알아서 처리해 준다는 것이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갔으나 한결 같은 대답이다. 일군 정권하라 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 일본이 투항한 다음에야 다 찾을 수 있었다.

중국 대동맥이 되는 천진 남경 간 철로는 남북으로 놓여 이를 진포선이라 하고, 동서로 서주에서 교차된 철로를 용해선이라 한다. 이 철로가 개봉에서 오한선과 교차되었다.

1942년 겨울, 철도 여행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청도를 떠나 천리 길

인 산둥성의 수도 제남(濟南)으로 갔다.

밤차는 운행을 못했다. 낮차를 탔는데도 습격을 당해 차장이 부서지고 내가 앉은 자리에 탄환이 날아들었는데, 내 자리 밑으로 지나가버려 위기를 면하기도 했다. 제남에서 일박을 하고 거기서 서주까지 다시 천리, 다시 일박하였다가 천리 길이나 되는 개봉까지 더 갔다 거기서 다시 야간 차가 있기에 야간 차로 하남성 석가장(石家莊)까지 가게 되었다. 대지에는 백설이 덮였다.

차 습격을 또 받았다. 차 아래로 도피하느라고 야단이었다. 벌써 전에 습격받아 전복된 기관차가 옆에 넘어져 있는데 밤새 내리는 눈에 태산같이 보였었다. 한참 접전이 되다가 몇 시간 후에 간신히 움직여 석가장에 도착하기도 했다.

어디나 평안한 곳이 없었다. 한번은 성례를 거행키로 하고 한 20리 떨어진 교회로 가는데, 유격전이 벌어져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나와 함께 동

행하려 했던 장로는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래도 성례를 약속한 주일 예배라 가야 한다고 나서니 자기도 하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둘이 자전거를 타고 나는 성찬기를 핸들에 걸고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갔다. 눈에 보일 만한 곳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같이 가던 장로는 계속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가자고 했다. 실은 되돌아 갈 수도 없는 것이, 뒤에서도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로 앞으로 나가 교회에 도착하니 모였던 교인들이 환영을 올렸다. 같이 간 장로님은 거의 변모한 모습이였다.

대동지란이라 모든 백성이 다 당하는 이 어려움을 우린들 어떻게 당하지 않을 수 있으랴. 6.25사변에 비하면 새 발의 피 같은 일이었다. 그래도 회고하니 큰 은혜로 지나왔고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나눈 것이다.

《福音歷史半百年》중에서

방지일 / 목사, 중국어문선교회 고문
전 중국 산둥성 선교사

참 빛 앞에 무너진 마르크스의 요새



예전 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더욱이 신학을 공부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40년 동안, 나는 무신론에 심취해 있었고 공산주의를 맹신했다. 마침내 40년 후, 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와 참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나의 젊음은 낭만적인 색채로 가득했다. 일찍이 학창시절부터 박애, 민주, 자유, 평등의 이상적인 사회를 동경해오던 나는, 정치적인 이유로 네 번의 옥살이를 해야 했다. 수감과 노동개조로 14년을 보내며 여러 번 죽음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늘 큰 화는 면할 수 있었다.

일련의 우여곡절을 거쳐 나는 1980년 8월, 중국을 떠나 홍콩으로 갔다.

귀국 금지

1989년 3월 말, 나는 웨이징성(魏京生)과 그 외의 국내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는 전 세계 저명인

사들의 서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북경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입국을 거절당했고 그들은 사실상 나의 중국 국적을 박탈하였다.

매우 분개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내가 홍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글을 쓰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미련이 남아 있었다.

바로 그 때, 멀리 미국에 있는 부모님과 누나와 여동생이 여러 차례 전화와 편지로 미국으로 건너올 것을 권유했다. 그들은 '97 이후, 내가 홍콩에서 공산당의 박해와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했던 것이다.

기독교와의 첫 만남

1991년 9월 나는 미국으로 가서 누나 집에 머물게 되었다.

누나 집의 맞은편에는 한 교회의 학생연합회가 있었다. 함께 미국으로 건너 온 친구와 그곳을 찾아갔을 때, 한 미국 노부인이 웃는 얼굴로 맞아주었다. 나는 그녀에



장승원 그림

게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녀는 “그럼요, 일요일 오전 9시까지 이리로 오세요. 제가 데려다 드리죠.”라고 했다.

일요일, 노부인은 차로 우리를 교회까지 바래다주었다.

이것이 내가 미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교회에 간 날이다. 모든 것이 매우 낯설고 어색했다. 그러나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미소로 환영해 주었다. 나는 친구와 함께 우선 영어 성경공부반에 참가하였고, 그 후에 예배당에서 예배에 참가하였다.

예배가 시작된 후, 서로 악수를 하며 안부를 묻는 시간이 있었다. 전혀 안면이 없는 많은 미국인 친구들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해왔다. 그들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내 심장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 열정적인 음성들이 내 마음 속

에서 요동쳐서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수십 년 간 공산당을 추종하였으나 되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잔혹한 투쟁과 무정한 공격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초면부지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대 가정 속에서 나는 뜻밖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부터 나는 그들이 외국인 친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집회에 계속 참여했다.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나는 살아있는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 특히 그 노부인은 주를 위해 매우 충성하는 분이었다.

진짜 퇴봉(雷鋒)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이 “퇴봉을 본받으라”(퇴봉은 해방군 전사로써, 공산당은 그가 공산주의 정신을 갖추었고 조금도 자신을 위하

지 않고 전적으로 남을 위하여라고 선전한다. 따라서 모택동과 공산당 지도자들은 인민들이 그를 본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역자주)고 고취시켰으나, 본받기는커녕 몇 명의 ‘가짜 퇴봉’을 내세워 사람들을 기만했을 뿐이다. 그런데 나는 미국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많은 ‘진짜 퇴봉’을 보게 되었다. 그들이야말로 마르크스가 오매불망 소원하던 소위 ‘공산주의 정신’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아이러니인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정말로 성령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는 건가?…… 무신론자인 나는 고뇌하기 시작했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중국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처럼 착한 사람(나는 줄곧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었다)을 벌하려고 하시는걸까?
……. 이러한 의문들이 나를 곤혹
스럽게 했다.

살아 움직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는 이런 의문들을 그 노
부인에게 털어놓았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이
당신의 의문을 풀어줄거예요.”

그녀의 대답이었다. 어리석게
도 나는 말씀을 읽는 데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냥 하루 하루 미루
기만 했다.

이러한 날들이 흐른 뒤 노부인
이 달라스로 친척을 방문하러 가
게 되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내게 21일 동안 신약을 통독하도
록 권했다.

그날 밤 나는 성경의 오묘함을

탐색해 보기로 결심하고 신약을
읽기 시작했다.

아! 내가 신약 제1편 마태복음
을 읽을 때, 그 속의 한 구절 한
구절, 글자 하나 하나가 마치 자석
처럼 나를 끌어들이며 내 마음에
박혀 왔다! 구두점 하나까지 그렇
게 합당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
었다!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내 마음이 온통 끌렸고 탄
복이 절로 터져 나왔다. 나는 계속
해서 다른 복음서를 읽어 내려갔
고 읽으면 읽을수록 흥분되었다.
성경 속에서 나는 평생 동경해 오
던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다. 신약
의 저자는 모두 네 사람인데 그들
이 말하는 이야기의 줄거리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고 모순이 조금
도 없어서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았다. 이분이 누구실까? 신약
에 실린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
고 완전히 믿을 만하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나는 한번 붙잡았던 성경을 놓
을 수가 없었고 조금도 지겹지 않
았다. 다만 너무 재미있어서 읽고
또 읽어 갔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
미 동쪽 하늘이 환히 밝아 있었다.

이튿날 저녁 식사 후 나는 또 서
둘러서 로마서부터 읽기 시작했
다. 나의 느낌은 그저께 밤과 마찬
가지였고 뜨거운 피가 끓었다. 내
가 마지막 한 편인 계시록을 다 읽
고 일어났을 때, 내 눈앞에 한 줄
기 빛이 비취 와서 나는 하마터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소리칠
뻔했다. 창 밖을 바라보니 날은 이
미 밝아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장승원 그림

그대로였으나 내 마음은 격렬하게 두근거리고 있었다. 나는 결단을 내렸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나에게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었다.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왜 40년 전에 진작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았을까하는 후회가 들었다. 왜 난 줄곧 성경이 ‘신화’일 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 왔을까? 만약 그 시절에 성경을 읽어보았더라면 아마도 40년 간의 험하고 곡절 많은 길을 건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 과학은 성경을 증거한다

과거에 나는 어리석게도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여겼다. 사실상 ‘과학’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나, 성경은 수천 년을 거쳤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성경과 참 과학이 모순되지 않으며 더구나 참 과학이 성경의 진실과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또한 세상의 유명한 과학자들의 예를 들어 뉴턴, 에디슨 등이 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미국인이 달에 착륙한 후부터 많은 우주인들이 참 하나님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 중 13명은 사임을 하고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후 전도인이 되었다고 한다.

성경을 읽고 나서야 나는, 어느 누구도 중국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중국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

닫게 되었다.

중국인은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믿지 않는 자들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중국에 복음을 전할 10만 명의 목사와 전도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준비해서 이 대열에 참가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모른다.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마침내 신학교에 들어가 훈련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

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눅 9:23~24)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나의 좌우명이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길은 아니다. 이 길은 언제라도 사단과 싸울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가시밭길이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미 나의 몽롱한 두 눈을 활짝 여셨고 나로 하여금 진리와 참 하나님을 찾게 해주셨다. 나는 이후의 세월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원히 주 예수의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종으로 살며 이를 영광으로 여기길 원한다.

편집자 주: 이 글은 CCL(福音證主協會)에서 발간하는 “수망중화(守望中華)” 126기, pp. 10-12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으로 CCL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本文轉載自“守望中華”126期, 10-12頁, 已獲批准)

번역 / 김현주 본지 편집기자

여러분
잠깐만!

중국상식 퀴즈

1.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성(省)은?
2.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
3.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소수민족은?
4.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소수민족은?

정답은 p. 93에 있습니다.

1917년 중화민국 선교사 홍승한 목사 (I)



김교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

중국선교연구협회 상임총무, 연구원
대한예수교장로회 부개동교회 외국인예배담당
교역자
중국선교연구협회 인준 재한중국인 선교사
인천 외국인근로자 선교협의회 운영위원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한국 교회는 그 초기부터 우리 민족과 회로애락을 같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타민족에게 동고동락하는 교회였다는 증거를 가진 교회이다.

홍승한 목사가 중국 산둥에서 사역할 당시인 1920년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1회 총계표만 보더라도 국내와 국외(외지전도) 전도사역을 둘 다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1913년 최초로 파송되었던 선교사 박태로 목사가 질병으로 귀국하였고 김영훈, 사병순 목사까지 자퇴하는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으나, 타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을 더 잘 감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조선예수교장로회는 총회 부회장인 홍승한 목사를 선교사로 선택, 파송하기에 이르게 된다. 한국 교회에서 유능하게 일하던 인물을 타민족을 위해 선택, 파송하였던 것이다. 이제 홍승한 목사라는 인물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인물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중화민국 선교사로 선택된 홍승한 목사는 총회의 부회장이요, 경상도 노회장을 역임하였고 경북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현 대구제일교회의 위임목사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민족을 위하여 모든 중직을 내어놓았던 것이다.

한국 교회는 이제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는 교회로 성장을 하였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국으로도 상위에 드는 교회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선교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의 선교사들은 어떻게 사역을 했으며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타민족 백성들이 한국 선교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에 대한 연구는 한국 교회 타민족 선교를 더욱 발전시키고 효과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키 위해 시급하고 매우 중대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할 뿐이다.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타민족을 위해 파송한 인물들에 대한 연구는 한국 교회가 이해에도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다는 데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홍승한 목사를 통해서 초기 한국 교회가 중국 선교 사역을 조명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사와 중국 교회사의 한 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 교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를 타민족을 위해 선택, 파송하였던 우리의 신앙 선조들의 훌륭한 정신과 태도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선교의 꿈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교회는 실로 큰 축복을 받은 교회이다. 타민족 선교의 꿈을 크게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와 선교사, 선교 지망생들은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훌륭한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자료와 범위, 방법

홍승한 목사에 대하여 깊이있게 연구된 적이 없다. 다만 인물

소개 차원에서 다루어진 글이 있다.¹⁾

그러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충신대학 부설 선교연구소의 연구물은 기독교대백과사전의 내용을 옮겨 적은 정도의 글이다. 홍승한 목사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참고문헌을 사용했으나 깊이있게 다룰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홍승한 목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그가 여러 편의 글과 신구약성경사전을 남겨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다. 1913년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에 비교해 볼 때 그는 여러 편의 글을 후세를 위해 남겨주었다. 홍승한 목사는 1918년 3월에 창간, 평양장로회신학교에서 발행하기 시작한 “신학지남”에 기고하였고 1915년 12월 창간, 발행되던 “기독교신보”에 홍승한 목사의 편지가 실려 있어 그의 연구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아울러 1910년대의 독노회록, 그리고 1912-1930년대까지의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록, 그가 활동하였던 경상도 지역 교회사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경상노회록, 경북노회록을 들 수 있다. 홍승한 목사의 초기 신앙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근거를 알려주는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하권” 그리고 방지일 목사의 글과 증언, 기타 문헌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료들이 국내 자료로서 우리 선교사와 우리 측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므로 중국 교회와 성도들의 증언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자 한계이다. 아울러 홍승한 목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국내에서 사역하는 동안 동역하였던 교계 지도자와 성도들, 그리고 당시 조선에서 그와 동역하던 서구 선교사들의 증언을 여러 측면에서 채택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점이 역시 단점이자 한계이다. 그러면서도 그가 남긴 글들을 통해 간접적이거나 엿볼 수 있다는 데서 위로를 받고 싶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자료 발굴을 통해 이미 지적한 단점과 한계가 극복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과 같은 자료를 통해 연구하되 홍승한 목사의 중화민국 산둥성 사역 기간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에 임하고자 한다. 그 외 중국 선교 사역들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홍승한이라는 인물을 연구하되 사건의 외면(Historie)과 내면(Geschichte)을 구분하면서 총체적으로 재구성되도록 하는 연구의 방법을 채택하려고 한다.

홍승한 목사와 그의 생애를 연구하되 중화민국 산둥성 선교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겠으므로 그의 출생부터 선교사가 된 37세까지의 시기를 먼저 그의 생애의 전반기로 구분하고 제2편에 중화민국 산둥성 선교 시기를, 그리고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귀국하여 별세하기까지의 시기를 생애의 후반기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제1편 생애의 전반기(1881-1917)

제1장 출생과 성장기(1881-1900)

1. 시대적, 지역적 배경

홍승한은 1881년 9월 2일에 태어났다.²⁾ 그가 태어난 1880년대 초는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은 시기였다.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가 없던 시기였으나 그가 태어날 즈음에 국내에 복음전파와 사역이 한국인들에 의해서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었다.

중국 만주 지역에서 세례를 받아 최초의 개신교인이 된 의주 사람 백홍준, 이응찬, 이성하, 김진기, 서상륜에 의해 1883년 봄부터 국내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였다.³⁾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의주 사람들이 최초의 개신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활동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최초로 이성하가 인쇄된 복음서를 가지고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성하의 뒤를 이어 백홍준이 복음서를 등에 지고 중국 봉천을 출발, 입국 전에 복음서를 꺼내어 종이를 떼어 한 장씩 한 장씩 풀어 말아 가지고 노끈을 꼬고 그 노끈을 다시 합쳐 가지고 굵고 긴 끈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시중에서 오래된 종이를 몇 장 사다가 책의 열마는 그 속에 감추고 끈으로 묶어 마치 고지를 사오는 것처럼 가장하여 의주 지역으로 반입하여 복음을 확산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반년도 못된 그 어느 날부터 백홍준은 자기 집에서 신자를 모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던 것이다.⁴⁾ 의주 지역 사람들은 그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도 먼저 복음과 복음서를 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것이다.

복음이 한국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즈음에 홍승한은 바로 의주에서 태어났다.⁵⁾ 의주 사람 홍승한이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일찍이 복음을 접하였던 것 같다.

홍승한이 태어난 1881년을 전후로 하여 당시 우리 나라는 쇄국정책을 탈피하여 개항 및 구미 제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개시하게 되었다. 1882년(고종 19년) 구미 제국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과 조미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국

2) 방지일, “만준 할아버지 직계손명부”, 1996.

이하 “만준직계손명부”라 약칭함. 만준직계손명부에는 1883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홍승한 묘비에는 1881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경성:신문대교회당, 1928), pp. 7-9.

4) 김광수, “한국민족기독교백년사”, (서울: 기독교문사, 1978), pp. 29-33.

5) 경북노회 제3회 회록(1918), p. 51.

기독교대백과사전(기독교문사), 제16권, p. 632에는 그가 평북 철산에서 출생하였다고 기록하였고 평북노회사(서울:기독교문사, 1979), p. 238 역시 평북 철산군 출생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918년 경북노회록에 기록된 내용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경북노회록에 홍승한 목사의 중화민국 선교사 피임략사를 기록하면서 홍승한 목사의 출생지를 소홀하게 다루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경북노회가 홍승한의 피임략사를 보고, 채용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1) 기독교대백과사전(서울: 기독교문사), 제16권, p. 632, 김해성 외 3인 공동연구, “조기 한국 교회의 해외선교연구”, 충신대학부설선교연구소, p. 45.

교를 개시하였고 1883년에는 영국, 도이치와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1884년에는 프랑스, 1892년에는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와도 차례로 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된다.⁶⁾ 당시 우리 나라는 열국의 정치, 경제적 침략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종교, 문화, 사회면에서 새로운 사조를 받아 들여 근대화 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시기였다.

홍승한은 불안정스럽고 급변하는 시대에 태어났으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지게 되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홍승한이 의주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졌는지 아니면 서양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하여서는 알 수 없으나 서양의 종교로 일컬어진 기독교 신앙을 일찍이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가정환경

홍승한의 부모가 어떠한 분들이었는지, 가정형편과 그의 성장과정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경북노회록을 통하여 그가 평북 의주군에서 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분명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그가 철산군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방지일 목사의 증언에 의하여 홍승한이 한학을 공부하였으며 한학교사(서당선생)일을 보았다는 것과 두 명의 딸을 둔 형 홍승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⁷⁾

제2장 청년시기, 신학수업기(1901~1911)

서당교육을 받고 성장한 홍승한이 20대의 청년 시기를 맞이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장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의 청년 시기에 나라는 열강의 전쟁터로 변하여 1904년 2월에는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한일협상조약(을사조약)을 체결케 하였고 5조약의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민의 항일열이 고조되어 의병과 지사들의 투쟁이 사방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부터 20대의 청년 홍승한에게 일어난 일들과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결혼

홍승한의 나이 28세되던 1908년경, 그는 방승화와 결혼하였다. 방승화와 결혼은 그에게 매우 의미깊은 일이 된다.⁸⁾ 그의 장인되는 방만준은 양교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자진하여 당시 조사였던 장관선을 찾아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으로, 한국 땅에 개신교가 처음 전래되던 시기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다.⁹⁾ 장인 방만준은 방씨 가문의 갖은 핏박에도 굴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고향에서마저 쫓겨나 부득이 수정이란 곳으로 이사하였으나 결국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와 학교까지 세워져 교장으로 택함받기까지 한 신앙인물이었다.¹⁰⁾

장인되는 방만준은 5명의 아들(효원, 효형, 효정, 효천, 효순)과 1명의 딸을 두었는데, 홍승한 청년은 방승화와 결혼하

게 된다. 1889년 1월 15일에 태어난 방승화는 이와 같이 철저한 신앙을 가진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신앙이 돈독하고 원숙한 외모를 가진 청년 홍승한과 결혼하게 된다.¹¹⁾ 홍승한이 방승화와 결혼토록 주선한 사람은 바로 방효원이었다고 한다.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청년 홍승한에게 결혼시키는 것을 집안이 원치 아니하였으나 결국 성혼이 되었다 한다. 그 엄격한 조상승배 씨족사회에서 장손이었으면서도 1898년 9월 20일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교회식으로 하고 철저한 주일성수, 근면노력, 십일조 등 여러 면에 빈틈없는 신앙 인물 방만준의 사위가 되었던 것이다.

1909년 5월 12일, 홍승한과 방승화에게서 장남 홍석은이 태어나게 된다.¹²⁾ 아들을 선물로 받은 홍승한의 기쁨은 매우 컸을 것이다. 홍승한과 그의 가족이 거주한 지역은 철산군 영동으로, 홍승한은 영동교회에서 1909년 장로장립을 받게 되었다.

2. 조사 활동

홍승한은 수년 간 평북 철산 지역에 세워진 여러 교회에서 조사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그의 결혼을 전후로 하는 시기에 이미 그는 조사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질을 인정받았던 것이다. 그가 조사로 활동하였던 교회는 다음과 같다.

1) 원세평교회¹³⁾-원세평교회 설립 내력은 다음과 같다. 1898년 본리인(本里人) 방원태(方元泰)씨가 선천(宣川)에 여행하여 복음을 처음 듣고, 마을에 돌아와서 열심 전도하여 방여곤(方汝坤)과 그 집안 사람 여관(汝觀), 문관(文觀), 길곤(吉坤), 지봉(芝鳳)이 믿게 되어 자기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는데, 선교사 위대모와 조사 양전백이 래순(來巡)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방원태로 인도하게 하였던 것이다.¹⁴⁾

이러한 설립 내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홍승한이 조사로 일을 보게 되었다.¹⁵⁾

그의 장인 되는 방만준이 살았었고 가문의 핏박으로 쫓겨나기까지 하였는데, 바로 그 지역에 원세평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로 그 교회에서 홍승한이 조사로 시무하였던 것이다.

7) 방지일 목사의 증언, 1995년 6월 7일(중국선교역사증언 자료집, p. 4.)

8) 만준직계손명부, p. 20. 만준직계손명부에는 장남 홍석은의 출생년도가 1907년으로 되어있으나 방지일 목사께서 1909년으로 정정, 증언하였다.(1995년 6월 7일 증언)

9) IBID., p. 1.

10) IBID.

11) IBID., p. 20.

12) IBID. 홍석은이 방지일 목사보다 두 해 위이므로 1909년생이라고 방지일 목사께서 증언하였다. 홍승한의 결혼 시기와 장남의 출생년도에 대하여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13) 교회 명칭이 세 가지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만준직계손명부, p. 1에는 “세평교회”로,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1928), p. 50에는 “서평교회”로, 평북노회사(1979), p. 180에는 “원세평교회”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목회와 신학(1990년 11월호), p. 166. 방지일 목사의 증언에는 “원세평 교회”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세평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14) 차재명, OP. CIT., p. 50.

15) 만준직계손명부, p. 1. 홍승한이 조사로 일하였던 기간과 당시 교회 상황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

6) 이현희, “한국사총론”, (서울:일신사, 1988), pp. 269-270.

원세평교회는 후일에 약 500명 가량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하였다고 한다.¹⁶⁾

2) 단도교회(檀島敎會)

1900년 읍내 교인 장관선(張寬善)의 전도로 이정현, 김의항, 김찬경, 정서형 등이 계속 믿게 되었고 동군 사경회에서 600여 량(兩)을 보조하니 교우도 힘껏 연보하여 예배당을 신축하게 되었다. 그 후에 홍승한이 조사로 시무하게 되었다.¹⁷⁾ 그리고 1915년 방효원 목사가 맡은 교회 중 한 교회가 되었다(장로회사기, 1928, p. 218).

3) 입석교회(立石敎會)

입석교회는 1950년에 설립되었다. 교회 설립 전에 정진호, 박형빈 등이 믿고 학암교회로 다니며 예배하다가 교인이 증가됨으로 이에 분립하였고, 그 후에 홍승한의 인도로 교회가 전진되었다.¹⁸⁾

4) 수정교회(水晶敎會)

수정교회는 1907년도에 성립된 교회이다. “철산군 수정교회가 성립하다. 선시에 본처인 안승원, 김석창, 홍석륜, 김의진, 손의풍 등이 동시 신주하야 읍교회에서 매 주일을 수(守)하더니 린인(鄰人)의게 전도하야 신자가 점차(漸多)함에 병력 연보하야 예배당을 신축하고 교회를 분립하니 당시 조사난 홍승한이라”¹⁹⁾

홍승한은 조사의 직무를 맡아 철산군 내 여러 교회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수정교회의 교세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신설교회였으므로 돌아볼 일이 많았을 것이다.²⁰⁾

5) 보산교회(保山敎會)

철산군 보산교회는 1909년에 성립된 교회이다. 본처인(本處人) 박찬서, 신국명, 김문식 등이 동시에 믿고 1905년 설립된 영동(嶺洞)교회에서 예배하며 린동사경(鄰洞四境)에 전도하더니, 그 후에 김정수, 임재순이 믿고 따르게 되었고 또한 30여 명이 증가하게 되어 예배당을 신축, 교회를 분립하기에 이르르게 되었다. 분립된 이 교회 조사로 홍승한이 역시 수고를 하였다.²¹⁾ 그리고 1915년에는 그 해 목사안수 받은 방효원 목사가 맡은 4 교회 중 한 교회가 되었다.²²⁾ 홍승한 조사는 보산교회에서 일하던 시절 평양에 있는 신학관에서 신학공부도 겸하고 있었다.

3. 장로장립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조직된 1907년에 홍승한은 조사로 평북 철산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1909년 철산 영동교회에서 장로로 장립을 받게 되었다.²³⁾ 그가 장로장립을 받게 되면서 영동교회는 당회(堂會)를 조직하게 되었다.²⁴⁾

1907년 안수 받은 장로교 목사는 7명, 그리고 1909년에 8명이 추가로 목사로서 장립받아 한국인 목사는 모두 15명뿐이었다.²⁵⁾ 1909년 목사로서 장립된 8명 중에 장관선 목사는 철산을 남편 일곱 교회에 선교사 로세영과 동사무사로 일하게 되었고, 정기정 목사는 철산을 북편 여섯 교회에 선교사 로세영과 동사무사로 일하게 되어 한국인 목사가 서구 선교사와 동사무사로 교회들을 돌보게 되었다.²⁶⁾

장로 홍승한은 로세영 선교사, 장관선 목사, 정기정 목사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장로이자 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당시에 장관선 목사는 철산읍과 서면 수정, 입석, 수부산동, 문령동, 영천, 가도, 보산 등지에 선교사 로세영 목사와 동사무사였으므로 홍승한은 장관선 목사, 그리고 로세영 선교사와 잘 알고 지냈으며 동역하였던 것이다(4회 독노회록, p. 20).

홍승한이 장로 장립을 받아 당회가 조직된 영동교회는 1905년에 성립된 교회로 김성수, 김민철, 송찬홍 등이 철산읍 내 신자에게 전도를 받아 믿은 후 열심으로 예배드리다가 수년 후 신자가 증가하자 예배당을 신축하게 된다.²⁷⁾

홍승한은 영동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교회에서 조사로 활동을 하였다. 홍승한 장로가 영동교회에서 시무한 기간은 1909년에서 1911년까지로 봐야 하겠다. 영동교회 역시 1915년에 방효원 목사가 안수받으면서 목사로 시무하게 되었다.²⁸⁾ 홍승한과 방효원은 처남 매부 사이로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였는데 1917년부터는 중국에서 같이 선교사역에 임하게 된다.

4. 대한민국 예수교장로회 독노회 활동

1907년 9월 평양에서 창설된 독노회는 처음으로 7명의 한국인을 목사로서 장립하였고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로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다.

장로 홍승한이 독노회에 참석한 것은 1910년 9월 18일 평안북도 선천군에 위치한 염수동예배당에서 개척된 제4회 독노회였다. 참석한 총대수는 선교사 목사를 포함하여 55명, 장로는 74명으로 모두 129명이었다. 홍승한은 북평안대리회 소속 장로 총대 중 한 사람으로 참석하였던 것이다.²⁹⁾

17) 차계명, OP. CIT., p. 63. 이 교회에서의 시무기간과 교회 상황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18) IBID., p. 131. 장로회사기에 “목사 홍승한의 인도로 교회는 전진되니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가 목사안수 받은 것은 1911년이고 그 이후에 입석교회에 시무했다는 기록이 없다.

19) IBID., p. 199. 평북독노회사(1979), p. 179에는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교회 명칭을 “蓮水敎會”라고 하였다. 김석창은 1911년에 선천남교회 목사로 부임하였다.

20) 홍승한 조사가 수정교회에서 일 본 사실을 방지일 목사도 “만준직계손명부”에 기록하였다. 만준직계손명부, p. 1.

21) 차계명, OP. CIT., p. 210.

22) IBID., p. 218.

23) IBID., p. 210. 평북독노회사(기독교문사, 1979), p. 183에 홍승한이 1970년에 장로장립 받은 것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24) 당회의 조직, 성수, 당회장, 당회의 직무, 권한 등에 대하여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발행 “헌법”책을 참고하라.

25) 장로교회사 전회집(1918년간), pp. 192-193.

26)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 제3회(1909), p. 23.

27) 차계명, OP. CIT., p. 131. 영동교회 김민철은 총신대학장을 지낸 김희보 박사의 부친이다.

28) 백낙준,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1968), p. 87. 이하 “사기 하권”이라 약칭함.

29) 예수교장로회 조선국교회, 제4회(1910), pp. 1-3. 1909년 “대한로회”라 하던 것이 1910년에는 “조선국교회”로 변경이 되어졌다.

16) 방지일, “산동선교 20년”, 목회와 신학, 1990년 11월호, pp. 164-166.

홍승한은 제4회 독노회에 이어서 1911년 9월 17일 대구에서 개최된 마지막 독노회에 참석을 하게 된다. 총대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목사 장립식에 참석,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노회로서는 5번째이자 마지막이 된 노회에서 공천위원의 보고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내대전도국위원 일년에 삼익순, 김익두, 김규식, 이년에 마로덕, 윤산은, 최성두 삼년에 방위량, 홍승한, 계택선 구시오”³⁰⁾

내지 전도국위원 중 한 사람으로 일하게 된 것이다.

5. 신학수업 및 졸업

신학생 홍승한은 평양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신학교”에 다니면서 조사활동과 신학공부를 하였다. 1907년 신학교의 명칭을 “대한예수교신학교”라 하였고 1910년부터 “조선예수교신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홍승한은 1906~1907년경 신학교에 입학하여 5년 간 수업을 받았다.

신학교는 1907년 최초의 졸업생 7명을 배출하였다.³¹⁾ 1903년 당시 교수는 마포삼열, 배위량, 소안론, 이길함, 한위렴, 편하설 등 7인이었고 1904년부터 언더우드, 전위렴, 왕길지 선교사가 교수로 시무하게 되었다.³²⁾ 1909년 당시 5년 이상 교수로 근무한 선교사는 마포삼열, 이길함, 소안론이었고 이들 모두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McCormick)신학교 출신 북장로교 선교사였다.³³⁾

홍승한은 이들에게서 조직신학, 교회정치, 구약 및 신약주경학, 기독교 윤리, 설교학 등 신학공부를 하였다. 특히 성경의 권위와 무오설을 가장 강력하게 변호하였던 마포삼열, 소안론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성경의 권위와 무오에 대한 홍승한의 입장을 다음 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근일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구약은 신의 명령과 말씀도 있고 사람의 역사와 말이 있으니 완전히 성경이라 할 수 없다하여 구약을 경솔히 여기는 자가 있으니 이것은 참 섭섭한 일이다.”³⁴⁾

서양 선교사들에게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훈련을 받은 홍승한은 1911년 6월, 제4회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그와 함께 졸업한 이들은 이일영 등 14명으로 졸업생 수는 모두 16명이었다.³⁵⁾ 홍승한은 장로회 총회 성립 이전에 신학교를 졸업한 인물이었다.

제3장 목사장립 및 경상도 목회시기 (1911~1917)

1. 목사장립

1911년 9월 17일부터 경상북도 대구 남문안예배당에서 마지막 독노회가 개최되었다. 홍승한 등 신학 졸업생들은 시험을 치렀는데 홍승한에게 강도(講道: 설교)와 해석검사를 한 위원은 부위렴 선교사였다.³⁶⁾ 시험을 치르고 난 후 9월 20일 홍승한 외 16명을 강도사로 세우기로 하였고 그 중에 노회의 허락한 청원서를 받는 사람에게는 목사로 장립하기로 하였다.³⁷⁾ 그 다음날인 21일 독노회에서 정사위원이 홍승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였다.

“신학 졸업생 홍승한은 대구교회에서 부해리씨와 동사무사로 청원하였는데 월급은 이십 원씩 작정한 일”³⁸⁾

즉, 홍승한은 강도사로 세움을 받고 대구교회의 청빙으로 목사장립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³⁹⁾

마지막 독노회의 결정 사항 중 하나로 목사 청원하는 교회가 월급 15원 이상 되지 못하면 청원하지 못할 것이요 할 수 있는 대로 20원 이상으로 힘써 권면할 일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홍승한을 청원한 대구교회는 20원 씩으로 작정하였던 것이다.⁴⁰⁾

1911년 9월 22일 독노회 마지막 날 목사장립식이 거행되었다. 회장 이눌서 선교사가 기도하고 개식하였고 “너의 전진을 사람 앞에 나타내라”는 제목으로 양전백 목사가 권면을 하였다. 홍승한은 마지막 독노회가 모인 교회에서 목사장립을 받았고 바로 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⁴¹⁾ 마지막 독노회는 일곱 교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경상노회 조직 회장에 왕길지 선교사로, 그리고 1912년 3월 이전에 노회조직회로 모이고 각 노회가 조직된 후에 그 서기가 총회서기에게 통지하기로 하였다.⁴²⁾ 독노회의 결정에 따라 1911년 12월 6일⁴³⁾ 경상노회 조직회(제1회)로 부산진예배당에 모여 회장에 왕길지 선교사, 서기에 홍승한 목사가 선출되었다. 경상노회 회원은 선교사 15명, 조선 목사 2명(김영옥, 홍승한), 장로 9명으로 조선인 목사는 2명뿐이었다.⁴⁴⁾

31) 김진경, “영계 김선주 목사 유교선집”, 제1집,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8), p. 174.

32) IBID.

33)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서울:총신대학출판부, 1992), pp. 62-65.

34) 홍승한, “구약설교사전”, (서울:기독교문사, 1976), 서문.

35) 정인파, “예수교장로회연감”, (경성:대동출판사, 1940), p. 116. 장로교회사전취집(1918년간), pp. 195-196.

36) 예수교장로회 조선로회, 데오회(1911), pp. 6-7.

37) IBRD., p. 20-21.

38) IBID., p. 37.

39) 경북노회 제3회 회록(1918), p. 51. 독노회록, 조선예수교장로회록 등에 남문안예배당, 대구교회등 여러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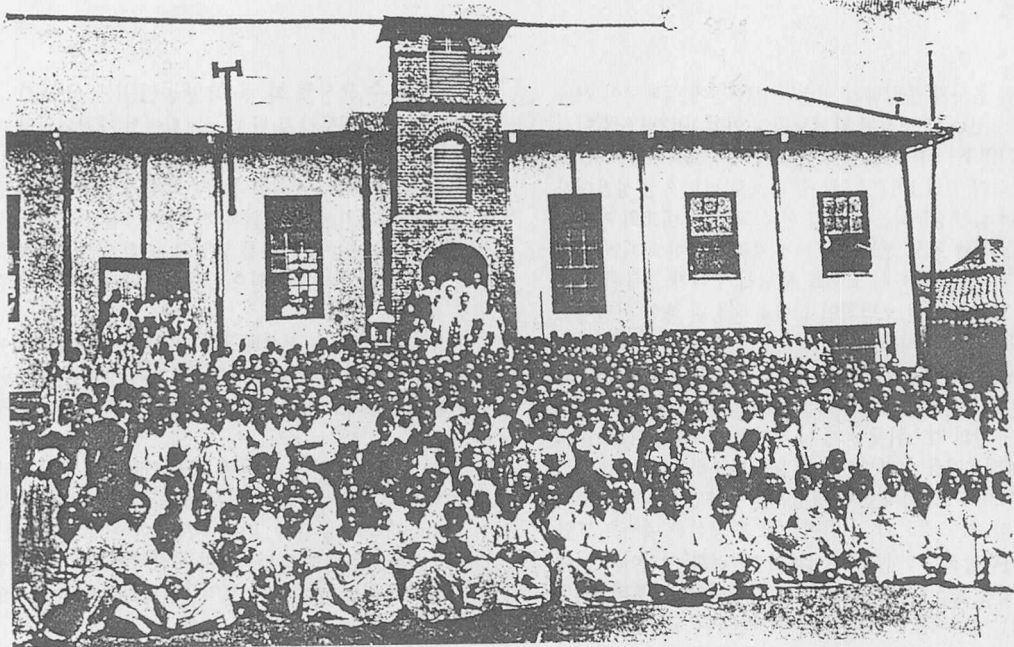
40) 예수교장로회 조선로회, 데오회(1911), p. 40.

41) IBID., pp. 43-45. 기독교대백과사전(기독교문사), 제16권, p.632에 “1911년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제4회)하였으며 이듬해 9월 경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듬해 9월 경상노회에서”라는 기록은 잘못되었다. 홍승한은 1911년 9월 마지막 독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김혜성 외 3인, “초기 한국 교회의 해외선교연구”, 총신대학부설선교연구소, p. 45에도 목사안수 받은 시기와 관련하여 잘못 기록하였다.

42) IBID., pp. 43-45.

43) 예수교장로회 조선총회 제1회 회록(1912), p. 53과 대구제일교회 90년사, p. 72에 경상도 노회 설립일을 1912년 1월 6일이라고 잘못 기록하였다.

44) 경상도예수교장로회 회회회록, (1911), p. 1.(복사본) 이하 “경상도노회록”이라 약칭함



홍승한 목사가 시무하던 남성정교회의 모습(현 대구제일교회 초창기 모습)

2. 대구교회 부임과 목회활동

홍승한 목사와 그의 가족이 평북 철산에서 경상도 대구로 이사한 시기는 1911년 9~10월 경이었을 것이다. 즉 홍승한 목사의 대구교회 부임시기 역시 1911년 9월로 보아야 할 것이다.⁴⁵⁾ 경북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대구교회에서 목사로서 첫 목회를 시작케 된 것이다. 홍승한 목사가 1911년 12월에 개최된 경상노회 조직회에 회원으로 참가하여 서기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이미 북평안대리회에서 경상도 지역 대리회로 이명되었다는 사실과 그가 대구교회에 부임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해 준다. 경북노회록에 나타난 “홍승한씨 피입략사”의 한 부분을 살펴보자.

“대구부 남성정교회 목사 홍승한씨는 본래 평북 의주인으로 1911년에 신학을 졸업하고 동년 추에 조선로회가 대구부에서 회집할 시에 남성정교회의 청빙으로 목사장립을 받고 교회사역에 착수하여 6년 간 근무하는 중 1912년(1911년-필자 주)에 본 로회서기로 피입되고”⁴⁶⁾

홍승한 목사는 부해리 선교사와 동사무사로 일하게 되어 대구교회에 부임, 첫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가 부임하던 당시 대구교회는 부흥도상에 있었고, 1912년 경에 이르러서는 매주일 1,000여 명이 모이는 대교회를 이루고 있었다.⁴⁷⁾

대구교회는 그가 부임하기 이전인 1907년 6월 경북지역 최초의 장로 김성호, 박덕일 씨의 장로장립에 의해 당회가 조직되었고, 1909년 김덕경, 이만집 두 사람이 장로장립을 받아 여러 명의 장로가 시무하는 교회가 되어 있었다.⁴⁸⁾

대구지역을 최초로 방문한 선교사는 배위량(William M. Baird)이었고(1893년), 1896년에 배위량, 안의와(James E. Adams) 선교사가 방문하였다가 1897년 안의와 선교사가 정식으로 대구에 부임하게 되었다. 홍승한 목사가 부임하게 된 대구교회의 창설자이자 대구 선교사업의 개척자는 바로 안의와 선교사였던 것이다.⁴⁹⁾ 안의와를 비롯하여 부해리(Bruen), 어도만(Erdman) 등 선교사들이 대구교회에서 선교사 목사로 사역을 감당하였다.⁵⁰⁾

45) 이상근, “대구제일교회 90년사”, (대구:중외출판사, 1983), p. 102, 305, 313에 홍승한 목사의 부임년월일을 1912년 9월 8일로 잘못 기록하고 있다. 홍승한은 1911년 9월에 부임하였다.

46) 경북노회 제3회회록(1918), p. 51.

47) 이상근, OP. CIT., p. 87, 102.

대구제일교회 90년사, p. 102에 1911년에 김천일 목사가 최초의 본국인 목사로 시무하고, 다음해(1912년)에 홍승한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p. 82에는 “1911년 4월 5일, 우리교회는 안의와 목사를 돕는 동사무사로서 김천일씨를 초빙하였다”로, 그리고 김천일 목사의 사역기간을 1911. 4. 5.~1912. 9. 20.까지로 잘못 기록하고 있다.

대구교회 최초의 한국인 목사 김천일은 1911년 4월부터 그해 가을 즉 9월까지 대구교회에서 단기간 시무하였다. 김천일

목사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김천일씨는 영유음과 외동부, 팔동, 솟독, 략계, 어과 등지에서 방위량 목사와 동사무사될 일”(1910년 4회 독노회록, p. 21), “김천일씨는 평남대리회에 맞겨 일하게 한 일”(1911년 5회 독노회록, p. 38) 독노회에 근거할 때 김천일씨가 1912년에 대구교회에서 사역했다고 볼 수 없다.

48) IBID., pp. 81-82.

49) IBID., pp. 60-61.

50) Harry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1884-1934”, VOL. I,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4), p. 181.

로데스는 홍승한 목사가 남성정교회에 부임한 첫 번째 한국인 목사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1912년에 부임하였다고 잘못 기록하였다.

홍승한 목사가 부임하기 이전인 1908년에 예배당이 건축되었고,⁵¹⁾ 1906년 조직된 남전도회에 이어 1912년 6월 여전도회가, 1913년 3월 13일에 주일 소학교가 조직되었으며, 그가 사임하기 전인 1917년 7월 경 최초로 남녀혼성 성가대가 조직되어 남성정교회는 초창기 한국 교회 중 대교회 가운데 하나로 조직과 행정, 전도사업 등에 자리가 잡힌 교회였다.⁵²⁾ 남성정교회는 초기부터 교회를 분립시켜 나가 경북지역 교회들의 모교회가 된 모범적인 교회로 홍승한 재임 기간에도 여러 교회를 분립시켰다.⁵³⁾

1917년에 조직된 남녀혼성 성가대는 혼성합창에 대한 당회의 반대가 일어나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남성정교회는 복음주의 신앙의 기초위에 굳게 서 전진하는 교회였다.⁵⁴⁾ 1914년 초 예배시간을 살펴보면 오전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를 “성사(聖事)” 시간이라 하여 성경을 공부하였고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는 “강론회”라 하여 설교를 중심한 예배를 드렸으며, 저녁집회는 7시부터 8시까지 “면려회” 시간이라 하여 전도사업을 중심한 종교활동을 하고 곧이어 8시부터 9시까지 저녁찬양예배를 드렸다.⁵⁵⁾ 즉 주일성수와 말씀강론, 권면, 전도에 힘쓴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홍승한 목사가 재임하던 시기에 평양의 길선주 목사가 내려와 부흥집회를 인도하기도 하였다.⁵⁶⁾

세례받고자 하는 자가 늘어나 세례는 수시로 매월 일회 이상 시행하였고 문답은 거의 매주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주일성수와 축복에 관한 문제를 특히 엄하게 다스려 신앙의 골격을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⁵⁷⁾ 홍승한 목사는 서구 선교사와 장로들, 제직들과 함께 천여 명의 기존 교인과 늘어나는 구도자들을 인도하고 목양하기 위해 수고하였다. 홍승한 목사는 남성정교회를 시무하는 기간에 두 아들을 얻게 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차남 석만이 1912년 12월 27일에, 삼남 석철이 1916년 8월 17일에 태어난 것이다.⁵⁸⁾

홍승한 목사는 남성정교회에서 7년 간 위임목사로 근무(1911년~1917년 9월)하다가 총회의 파견으로 중국 산둥성 선교사로 임명되어 눈물로 작별하게 되었다.⁵⁹⁾

3.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활동(1912~1917)

홍승한 목사가 시무하게 된 대구교회에서 개최되었던 마지막 독노회는 다음 해에 총회를 창립하도록 결의하였다. 1912년 9월 1일 평양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 경상노회 목사 총대로 참석하여 경기 충청 노회록 감사위원, 헌의위원⁶⁰⁾, 사단(社團) 설립사원 등의 직무를 맡았고, 총회 인장을 마련하되 한석진, 주공삼 목사를 위원으로 정하자고 동의하여 가결되기도 하였다.⁶¹⁾

1913년 9월 경성 승동예배당에서 진행된 제2회 총회에서 역시 경상노회 목사 총대로 참석하였으며 방효원 씨가 북평 안노회 장로총대로 참석하여 만남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다.⁶²⁾

제2회 총회는 제일 먼저 선택, 중국 산둥성을 답사한 박태로 목사와 추가로 사병순, 김영훈 목사를 선택하여 중화민국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다. 1913년부터 한국 교회의 타문화, 타민족 대상으로 하는 해외선교가 시작되게 된 것이다. 홍승한은 전도국 위원, 정치위원, 토지문권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⁶³⁾

제3회 총회는 1914년 9월 6일 황해도 재령군 남산현 예배당에서 개최되었으며 경상노회 목사 총대로 참석, 성찬례 시간에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간절히 권면을 하였다.⁶⁴⁾ 홍승한 목사는 1917년까지 위대도 선교사, 이기풍 목사와 정치 위원으로 일하도록 선정이 되었다.⁶⁵⁾

제4회 총회는 전주부 서문밖예배당에서 1915년 9월 4일 개최되었으며, 경상노회 목사 총대로 참석하여 5일 저녁 찬양회에서 히브리서 3장, “신자들의 세 가지 큰 두려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⁶⁶⁾ 홍승한 목사는 1916년 전도국위원, 정치위원, 토지문권위원, 포교규칙에 대한 교섭위원의 직무를 수행하였다.⁶⁷⁾

제5회 총회가 1916년 9월 2일 평양신학교에 회집하였는데 경상노회 목사 총대로 참석한 홍승한 목사는 개회시 염 41~6절까지를 낭독하였고, 경상노회를 경북, 경남으로 분립하는 사건에 경북노회 조직할 임시회장으로 결정이 되었다.⁶⁸⁾

홍승한 목사는 한국 교회가 조직을 갖추어 가는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경험을 축적해 나갔다. 평북 영동교회 당회조직, 경상노회조직, 경북노회조직에 중요한 인물로 관여하였던 것이다. 즉 당시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이 인정하는 인물이었다. 홍승한 목사는 1919년까지 전도국위

60) 창립총회 헌의위원은 마포삼열, 이눌서, 한위림, 관안련 선교사, 김찬성, 리여한, 홍승한, 김선두 목사였다.

61) 예수교장로회조선총회 대일회회록, (1912) p. 2, 8, 10, 27. 이하 “총회록”이라 약칭함.

62) 총회록, 제2회, (1913), p. 2.

63) IBID., pp. 63-66.

64) 총회록, 제3회, (1914), p. 1.

65) IBID., p. 32.

66) 총회록, 제4회, (1915), p. 6.

67) IBID., pp. 57-60.

68) 총회록, 제5회, (1916), p. 1, 4, 39.

51) IBID.

52) 이상근, OP. CIT., pp. 82-83. 제일교회당회록 69회, 86회회록.

53) IBID., pp. 87-88. Harry A. Rhodes, OP. CIT., p. 182. 대구교회, 대구음교회, 남문내교회 등으로 불리우던 교회 명칭이 남성정교회로 변경되었다. 남성정이란 동명은 1914년 이후의 일제시의 동명이라 한다. 이재원, “개신교 대구전래사의 그 문제점”, 창조, (대구:도서출판 예지원, 1985), pp. 83-99를 참조하라.

54) 이상근, OP. CIT., p. 84.

55) IBID.

56) 길선주 목사 설교, (서울:혜문사, 1969), p. 218.

57) 이상근, OP. CIT., pp. 84-86.

58) 만주직계손명부, p. 21.

59) 기독교신보, 1917년 10월 10일자.

원으로, 1917년까지 정치위원, 그리고 재단위원, 포교규칙에 대한 교섭위원⁶⁹⁾ 등의 직무를 맡게 되었으며 1917년 가을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였다.⁷⁰⁾

제6회 총회가 1917년 9월 1일 경상 중등예배당에서 개최되었는데 경상노회에서 분립한 경북노회 목사총대로 참석하였다.⁷¹⁾ 참석자는 선교사 42명, 목사 76명, 장로 76명 포함 194명이었다. 임원을 투표 선정하였는데 회장에 한석진, 부회장에 홍승한, 서기 장덕로, 회계 객안련 선교사가 선정되었다.⁷²⁾ 부회장에 선출된 홍승한 목사에 대하여 총회전도국장 김건두 목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고 있다.

“방효원, 홍승한 양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되 전도국에 전임하여 그 본 노회와 교섭하여 진행케 하고 만일 못 가면 다른 사람을 파송케 할 일”⁷³⁾

방효원, 홍승한 목사가 중화민국 선교사로 선택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13년 파견된 박태로 목사는 몸이 아프게 되어 부득이 귀국하게 되었고 김영훈, 사병순 목사는 전도국 허락없이 선교지를 떠나게 되었다.⁷⁴⁾ 중화민국 산둥성 래양 선교지에서 선교하던 선교사 모두가 떠나게 되자 총회는 1917년 5월 7일 병치료중이던 박태로 목사를 방효원 목사와 우선 급파하였으나, 박태로 목사는 병이 심해져 부득이 귀국 길에 올랐고 중국말을 못하는 방효원 목사만이 남게 되자 평북 선천 사람 김병규 조사를 보내 돕게 하였던 것이다.⁷⁵⁾ 김병규는 1917년 6월부터 돕기 시작하였다. 조사 김병규는 1917년 가을 총회에서 임시 전도인 자격으로 1918년 2월까지 파송된 인물이 되었다. 한국 교회가 타민족 대상 타문화권 선교에서 처음으로 ‘임시 전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예가 되었다.

홍승한 목사는 총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인물이었는데 바로 그를 중국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었다. 당시 미국북장로회 조선선교부의 삼대 선교거점은 평양과 서울, 대구였으며 그 대표 선교사는 마포삼열, 언더우드, 안의와라 할 수 있었다.⁷⁶⁾ 그리고 그 삼대 거점에서 한국인 목사로는

길선주, 차재명, 홍승한을 들 수 있다. 객안련 선교사에 의하면 당시 총회 전도국에서 외지의 선교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선정할 때는 각 경우마다 선택 가능한 사역자들을 조사하여 그 선교과업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조사하여 선정하였는데 이 때 선택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선교사로 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한다.⁷⁷⁾

1913년에 파송된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목사 그리고 1917년에 파송된 방효원, 홍승한 목사 모두 기꺼이 선교사로 갔다. 1,000여 명의 교인을 맡고 있으며 경상도 지역 선교거점의 중심교회 목사인 홍승한 목사를 선교사로 지명한 것을 통해 당시 총회가 중화민국 선교에 걸었던 기대와 비증을 알 수 있다.

홍승한 목사가 중화민국 선교사로 선정된 것을 알게 된 대구교회는 보내지 못할 일이라는 내용의 청원서신과 전보를 총회 앞으로 발송하였다.

“서기가 대구교회에서 홍승한 목사 산둥성에 보낼 일을 보내지 못할 일로 청원한 서신과 전보를 낭독하매 경북노회에 보내기로 동의가결하다.”⁷⁸⁾

그리하여 총회는 홍승한 목사를 중화민국 선교사로 보내 달라는 편지를 신임 전도국장 이기풍 목사의 명의로 경북노회에 발송하게 되었다.⁷⁹⁾

4. 경상노회와 경북노회 활동

1911년 북평안대리회에 소속되어 있던 홍승한 장로는 1911년 마지막 독노회에서 목사장립을 받으면서 북경상대리회로 이명되었고 경상도 지역 단일노회로 조직되는 조직노회에서 임시 서기로 추천되었고 회중이 투표하여 서기로 택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노회 회계는 서기에게 위임하기로 회중이 동의 가결하였던 것이다. 부해리 선교사와 동사무사로 청원받아 대구교회에 부임하게 된 홍승한 목사는 1912년 8월 31일 열린 제4회 경상노회에서 어도만(魚塗萬) 선교사와 동사무사로 일하도록 허락되었다.⁸⁰⁾

1912년 12월의 제5회 경상노회 회장은 안의와 선교사, 서기는 홍승한 목사였다.⁸¹⁾ 장로회 총회 및 노회가 조직되기는 하였으나 선교사 주도적인 시대였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홍승한 목사는 7회 및 9회 노회에 회계로 선출되었고 1915년 7월 노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경상노회 설립 이후 처음

69) 교섭위원은 김필수, 홍승한, 함태영이었다.

70) IBID., pp. 86-89.

71) 총회록, 제6회, (1917). pp. 1-2.

72) IBID., p. 5.

73) IBID., p. 21

74)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목사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성과는 중국선교연구협회 세미나에서 이미 발표가 되어졌다 (3인에 대한 출고를 원하시는 분 032-433-5905로 연락바람).

75) 채은수, “선교학총론”, (서울:기독교지혜사, 1991), p. 301에 “선교지에 투입된 선교사들을 보면 ……(중략)…., 동년 6월에는 김병규 목사가 파송되었으며”라는 기록은 잘못되었다. 김병규는 당시 목사가 아니었으며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아니라 임시로 파송된 전도인이었다.

KIM HWAL-YOUNG(김활영). “From Asia To Asia”, (Manila,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1994), p. 40에 김병규 조사를 “산둥에서 사역한 선교사들”이라는 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되었다.

76) 이상근, OP, CIT., p. 62.

77) 객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박용규, 김춘섭 옮김,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4). p.212. 1920년대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선교사로 지명을 받은 인물들이 사양하게 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차재명 목사이다.

78) 총회록, 제6회, (1917), p. 23.

79) 경북노회 제2회회록(제2임시 노회록), 1917, p. 50.

80) 백낙준, OP, CIT., p. 182. 총회록 제1회, (1912), p. 55. 경상도노회록, 제4회, (1912), p. 33. 어도만 선교사의 신학사상에 관하여서는 박용규 교수의 “한국장로교사상사”(서울:총신 대학 출판부, 1992)를 참조하라. 경상도노회록 제1회 (1911), pp.1-8.

81) 백낙준, OP, CIT., p. 182. 경상도노회록, 제5회, (1912), p. 44.



1914년 대구주재 선교사들 가족사진

으로 한국인 목사가 회장이 되었다.⁸²⁾

1916년 6월 22일의 제12회 경상노회가 대구부 성경학당에서 개최되었다. 노회장 홍승한 목사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강론하였다. 참석 한 선교사들을 보면 왕길지, 안의와, 위철치, 인로절, 권찬영, 맹의와, 맹호은, 매건시, 왕대선, 안란, 권임함, 방혜법, 예알배 등으로 경상도 지역에서 수고하던 인물이다. 홍승한 목사는 경상도 주재 선교사들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경상도 노회 발전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 이었고 선교사들의 발언에 개의하기도 하였다.⁸³⁾

그가 시무하는 대구교회와 노회 그리고 1913년 3월에 개교한 대구부성경학당⁸⁴⁾등을 중심으로 하여 선교사들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면서 교회와 지역복음화를 위하여 수고를 하였다.⁸⁵⁾

제12회 경상노회에서는 경상노회 지경이 너무 광활하므로 남북노회로 분리하는 문제를 총회에 현의하기로 동의, 가결하게 된다.⁸⁶⁾

홍승한 목사는 경상도 전지역을 관할하던 경상노회의 마

지막 노회장이었다. 마지막 경상노회에 평양신학교 교장 마포삼열 선교사가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하기도 하였다.⁸⁷⁾

1916년 가을 총회는 경상노회의 안건을 받아 가결하였고 홍승한 목사는 경북노회를 조직하는 임시회장으로 결정되어 1916년 12월 27일 제1회 경북노회가 남성정교회에서 조직노회로 회집하였다.⁸⁸⁾ 조직회장 홍승한 목사는 “노회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강설하였고, 신 임원을 선정하게 되어 신구회장 교체식을 거행하였다. 신임회장에 박영조, 부회장에 김영옥, 서기에 김충한, 부서기에 이만집, 회계에 정재순씨가 선정되었다.⁸⁹⁾ 신임 경북노회장 역시 한국인 목사가 선출되었다.

홍승한 목사는 제1회 경북노회시에 신학입학청원한 이대영에게 신학입학문답할 위원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⁹⁰⁾ 이대영은 1920년 1월부터 홍승한 목사가 시무하던 남성정교회에서 조사로 시무하게 되고 ⁹¹⁾ 1921년 1월 13일 남성정교회에서 목사장립을 받은 후 안동읍교회에서 선교사 권찬영과 동사무사로 일하다가 1922년 6월부터 중국 선교지에서 홍승한 목사와도 같이 일하게 되었다.⁹²⁾

82) IBID., pp. 183-185. 경북노회 제3회회록(1918), p. 51. 당시 남북한 전역에 7개 노회가 있었다. 남평안, 북평안, 황해, 경기충청, 전라, 경상 함경노회.

83) 경상노회 제12회회록(1916), p. 1. 경상도노회록, 제3회, (1912) p. 24.

84) 이상근 OP. CIT., p. 144.

85) 평양 지역 출신 인사들의 친목계에 불과한 평양회란 모임이 있었는데 그들은 선교사들과 함께 대구시내의 학교와 교회, 그리고 노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또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회원 중에는 김영서, 홍승한, 차보식, 백신철, 김도근 등이 있었다. 김남식, “일제하 한국교회 소종파운동 연구”, (서울:새문 출판사, 1987), p. 35 참조.

86) 경상노회 제12회회록(1916), p. 20

87) IBID., p. 16.

88) 경북노회 제1회회회의록(1916), p. 23.

89) IBID.

90) IBID., p. 30.

91) 경북 제7로회(1920), p. 5

92) 이대영 목사장립은 제9회 경북노회에서 결의, 그가 조사로 시무하던 남성정교회에서 예식을 거행하였다. 이대영에 관하여서는 “안동교회 80년사”, pp. 143-144 참조하라.

홍승한 목사는 조사문제에 관하여 제의하면서 조사를 잘 도와줄 것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 당시 각 지방에서 조사를 반월급주고 “반조사”라 명칭하여 일보게 하므로 실상 불합리한 일이 많았고 교회도 손해를 받는 고로 별방책을 내어 조사를 잘 도와주자고 제의하였던 것이다.⁹³⁾

홍승한 목사는 제 1회부터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총대로 참석하여 6회 연속 총대로 참석하는 기록을 갖게 되었다. 1917년 총회에서 총회부회장에 선출되었으나 동시에 중화민국 선교사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그가 시무하던 남성정교회는 홍승한 목사를 중국 산둥성에 보내지 못할 일이라고 청원서신과 전보를 발송하였고 총회는 이 문제를 경북노회로 보내게 되었다.⁹⁴⁾

1917년 9월 19일 대구부 동산성경학당에서 경북노회 임시노회가 개최되었는데 바로 홍승한 목사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였다. 노회서기가 총회 전도국장 이기풍이 쓴 홍승한 씨를 중화민국 선교사로 보내달라는 편지와, 홍승한 씨의 본교회 목사 직무를 사면하고 중화민국 산동독회(노회-필자주)로 이해해 달라는 청원서를 낭독하게 된다.⁹⁵⁾ 경북노회는 청원서대로 허락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남성정교회 목사직무가 사면되었다.⁹⁶⁾

홍승한 목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확신과 한국 교회의 대표로 중국 선교사에 선정됨으로 알아⁹⁷⁾ 목사직무 사면과 중화민국 산동노회로의 이명청원을 하게 된 것이다. 노회의 결정에 의해 그의 소속이 조선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에서 중화민국 산동노회로 옮겨지게 되었다. 중국 교회의 목사가 된 것이다.

홍승한 목사는 경상북도 대구에서 목회하던 자 가운데 첫 번째로 중국 선교사가 되었고 의주 출신으로는 1913년에 파송되었던 김영훈 목사에 이어서 두 번째 선교사가 되게 되었다.

- 제1편 끝 -

* 다음 호에는 제2편 「중화민국 산동성 선교시기」가 계속 연재됩니다.

93) 경북노회 제1회회록(1916), p. 28.

94) 경북노회 제3회회록(1918), p. 49.

95) IBID., p. 50.

96) 홍승한 목사의 남성정교회(현 대구제일교회) 시무기간은 그가 독노회에서 목사장립을 받은 시기로부터 경북노회 사면허락 결의한 날까지 잡아야 할 것이다. 즉, 1911년 9월부터 1917년 9월 19일까지이다. 홍승한 목사는 남성정교회에서 거의 만 6년 간 시무하였다. 대구제일교회 90년사, p. 313에 봉직연수를 5년이라고 기록하였다.

97) 홍승한, “중국 산동성 래양선교소식”, 신학지남, (1920), 제3권 제2호, p. 102.

중국상식 퀴즈 정답

(문제는 p. 83에)

1.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성은 쓰촨성(四川省)이다. 전체 인구 11억 7,265만명(1993년, 中國統計年監) 중 17%나 되는 1억 998만명의 인구가 사천성 1개에 집중.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구가 성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는 않다.

사천성 전체 면적의 44.7%를 차지하는 동부지역의 인구비율이 전체 사천성 인구의 93.1%로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55.3%의 오히려 더 큰 면적을 차지하는 서부의 인구는 겨우 6.9%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동부 지역이 분지인데 비해 서부지역은 산악 고원지대이기 때문이다.

2.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은 서남변경, 청장(靑藏)고원 서남부에 위치한 시창(西藏) 자치구이다.

'92년 현재 인구는 겨우 228만명으로 중국 전체인구의 0.2%에 불과. 그 이유는 티베트지역 전체가 평균고도 해발 4천m 이상의 한랭한 고원지역이라 생육과 성장에 부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정치적 핍박, 기아, 질병 등에 시달려 왔고 라마교가 결혼을 금지하여 생산 활동을 금지한 것에 기인한다.

3. 인구가 가장 적은 소수민족은 위바족(珞巴族)이다.

1965년 최초로 한개의 민족단위로 인정을 받았다. 위바족 인구는 1991년 현재 2,312명으로 집계되었다.

4. 인구가 가장 많은 소수민족은 Zhuang족(壯族)이다.

90년 인구조사 당시 1,549만 명으로 소수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1천만 선을 넘으며 이는 전 중국인구의 20.14%를 차지하는 것이다. Zhuang족은 주로 Guangxi(廣西) Zhuang족자치구에 모여 산다.

《中國의 秘密-중앙일보사》중에서



다른 행진곡

정혜선

이 책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 나는 많은 기대감에 차 있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었던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이 책은 너무 감동적이라든지, 혹은 일단 읽기 시작하면 단숨에 한 권을 다 읽어버릴 정도로 재미있고, 책장이 쉽게 넘어가는 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은, 자신의 안락과 풍요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중국과 대만에서 헌신적 삶을 드린 독신 여선교사 폴린 해밀턴의 생애를 그리고 있다.

이 책의 저자 폴린 해밀턴은 20대에 이미 과학 분야에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스미스 대학에서 교수로 성공한 여성이었다. 박사학위를 받기 직전 그녀는 결핵으로 더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남자친구에게서 버림받은 상처와 고통으로 견딜 수 없게 되자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자살을 시도하려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녀를 부르셨고,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일깨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놀라운 방법으로 보여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깨어난 후 그녀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친 삶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자신의 장래를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폴린은 하나님께 재능과 능력을 바치게 된다. 그 후 폴린은 중국 북경의 옌칭대학으로부터 교수 초빙을 받았으나 거절하고, 중국내지선교회(China Inland Mission, 현 OMF의 전신)의 선교사로 가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1946년 4명의 다른 선교사 지원자들과 함께 선교훈련을 받고 그해 11월에 선교부에 허입되어 이듬해 1월, 중국으로 떠난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자 모든 일의

인도자였다. 그리고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였다.

폴린은 때때로 하기 싫은 일을 떠맡아야 했고, 또 어떤 때는 그 일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의 헌신을 상기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였다. 선교사로서 본을 보였고, 동료들과 환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주의 뜻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였던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였다. 그녀는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사실 여러 면에서 그녀는 평범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이 계셨으며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부름받은 사역을 이루기까지 수년이 걸렸으나, 결국 그녀는 영적 결실을 크게 거둘 수 있었다.

30년 간의 중국 사역을 마치고 은퇴자로 본국에 돌아온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다음 3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자살하려는 나를 산길에서 구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고 신실하신 그 약속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장중에서 영원히 안전했다. 불순종하고 거듭 실패했을 때도 나를 놓지 않으셨다. 주께 나아가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분이 필요함을 고백할 때마다 주께서는 항상 옆에 계셨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나 아팠을 때, 혹은 실패하거나 도둑맞아 돈이 한푼 없었을 때에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약속하신 물질적, 육체적, 영적 필요를 모두 공급하셨다. 그분은 너무도 신실하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영원한 것으로 받으시는 분이셨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간에 어느 곳에서나 그분을 섬기기로 헌신을 다짐했다. 비록 나는 은퇴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아직도 활동중인 것이다. 위치가 달라진 것뿐이지 소명이 달라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신다”

이 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책이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던 폴린의 생애를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단지 재정과 인도하심을 위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일이 제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자신의 편안함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대로 삶’의 본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 폴린의 생애는 많은 도전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 책을 읽게 될 많은 독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리라 믿는다.



기독교와 중국의 현대화

卓新平 외 13인 지음,
맹용길, 김광성 역
신국판 · 303쪽 · 6,000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중국 사회의 기본구조

費孝通 지음, 이경규 역
신국판 · 138쪽 · 5,000원
일조각



우마차 타고 핸드폰 든 중국

김병추 지음
신국판 · 366쪽 · 6,000원
소나무

이 책에 실린 글들은 1994년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종교문제연구소 초청으로 모였던 국제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된 것들 가운데 선택한 글이다.

현대화의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한 중국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없애거나 극소화하면서 현대화를 이룩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개방을 시도하고 있고 많은 외부인들을 접촉하는 가운데 현대화와 기독교가 관계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따라서 현대화와 기독교, 동시에 기독교 선교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고 있다. 또 중국은 기독교를 단순히 하나의 종교로 보지 않고 기독교 문화로 보고 있다. 기독교가 형성되면서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만 순수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쓰여진 것들이다.

논문 형식의 글이기에 비교적 딱딱한 감이 없지않아 있으나,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이미 기독교인이 된 중국의 지식인들이 중국사회와 중국교회에 미칠 영향력과 역할 등에 대해 연구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 생각된다.

이 책은 중국의 제1세대 인류학자로서 청화대학교와 중앙민족학원의 교수를 역임했던 웨이샤오통 교수의 주요 저술인 『鄉土中國』을 번역한 것이다. 원저는 1947년에 출간되었지만, 이 책만큼 중국의 향토사회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갖고 간결하면서도 심도있고 균형있게 설명하는 책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날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구의 상당 부분이, 또한 중국의 엘리트의 상당수가 이러한 '향토'에서 성장한 사람들이며 아이들 역시 이러한 부모 밑에서 기본적으로 사회화를 겪으며 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격변기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특히 이런 전통문화가 어떠한 물질적, 인구학적, 역사적 조건하에서 성립하였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저자는 중국 농촌의 모습, 가족 및 남녀관계, 사회 권력구조, 예치의 질서, 혈연과 지연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설명하고 있다. 중국선교에 앞서 중국사회의 기본적 구조와 기층사회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주)대우 북경지사 부장으로 일하는 필자가 쓴, 국내 상사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담이다.

중국인들은 특히 극단적인 것을 싫어하고 상황윤리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이런 태도가 그들만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들을 수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필자는 말하고 있다.

중국인의 대중성과 애매모호성은 먼저 그들의 언어에서 볼 수 있다. '아마',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차이가 그리 많지않다', '그 정도면 된다' 등 애매모호한 긍정을 나타낸 단어 등에서 유추해 본 중국인의 특성을 저자는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외국인으로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함을 예고하고 있고, 돈 맛을 알고 자본주의적 생활에 뛰어난 중국인들과의 섬세한 교류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비즈니스나 선교로 중국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될 모든 이들, 그리고 지금도 그 관계로 인해 고심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你信主多久了?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黃弟兄：白姊妹，請問你信主多久了？

Huáng dìxiong : Bái zǐmèi, Qǐngwèn nǐ xìnzhǔ duōjiǔ le?

황 형제 : 백 자매님,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白姊妹：我是初信者，信主不到一年，請多指教。

Bái zǐmèi : Wǒ shì chūxìnzhě, xìnzhǔ bú dào yì nián. Qǐng duō zhǐjiào.

백 자매 : 저는 초신자예요. 믿은 지 1년도 안되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黃：哪裏，哪裏。我接受耶穌也只不過是三年。

Nǎlǐ Nǎlǐ. Wǒ jiēshòu Yēsū yě zhǐ búguò shì sān nián.

별 말씀을 다하십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한지 3년 밖에 안됐어요.

白：那麼你的靈命一定比我深囉。

Nàme nǐ de língmìng yīdìng bǐ wǒ shēn luo.

그럼 형제님의 신앙은 저보다 훨씬 좋겠네요.

黃：那可不一定。靈命的深淺跟信主多久是沒有關係的。得看你追不追求。

Nà kě bù yíding. Língmìng de shēnqiǎn gēn xìnzhǔ duōjiǔ shì měi yǒu guānxi de. Děi kàn nǐ zhuī bù zhuīqiú.

그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깊은가 그렇지 않은가는 얼마나 오래 예수님을 믿었느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신앙을 추구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있죠.

白：你說的追求是指參加各種聚會嗎？

Nǐ shuō de zhuīqiú shì zhǐ cānjiā gèzhǒng jùhuì ma?

형제님이 말하는 추구라는 것이 모든 집회를 다 참석한다는 것을 말합니까?

黃：不是，我是說每天要有固定的讀經及禱告生活。可以幫助你的靈命增長。

Bú shì, Wǒ shì shuō měitiān yào yǒu gùdìng de dújīng jí dǎogào shēnghuó.

Kěyǐ bāngzhù nǐ de língmìng zēngzhǎng.

아닙니다. 제 말은 매일 일정하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매님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信主(Xìnzhǔ), 信耶穌(XìnYēsū),

弟兄(Dìxiong): 형제,

請多指教(Qǐngduōzhǐjiào): 잘 부탁드립니다.

囉(Luo): 여기서

參加(Cānjiā): 참가하다.

讀經(Dújīng): 성경을 읽다

靈命(Língmìng): 영성, 영적생명, 신앙

追求(Zhuīqiú): 추구하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노력을 뜻함.

接受耶穌(Jiēshòu Yēsū): 예수를 믿다

姊妹(Zǐmèi): 자매

請多指教(Qǐngduōzhǐjiào):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深淺(Shēnqiǎn): 깊이, 정도

聚會(Jùhuì): 집회

禱告(Dǎogào): 기도하다

初信者(Chūxìnzhě): 초신자

固定(Gùdìng): 고정된, 일정한

增長(Zēngzhǎng): 늘어나다, 증가하다

중국영화 감상

조이럭 클럽

THE
JOY LUCK CLUB

김성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한
여학생이 상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길지 않은 편지 속에서 혼란과 갈등의 쓰린 상흔을 역력하게 읽을 수가 있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었다. 어머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어머니 또한 자신을 아주 못마땅해 한다고 했다. 그로 인해 집안에 있기가 힘들어져 자꾸만 가출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그 학생을 만나 부연의 설명을 더 듣고서, 더러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기도 하고, 더러는 격려의 말로 위로하기도 하였는데, 헤어질 무렵에 보니 얼굴이 다소 밝아진 듯하여 안심되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나는 그에게 <조이 럭 클럽>이라는 영화를 권하였다. 돌아가는 그녀를 보면서 영화 속의 주인공 준과 그의 어머니, 웨블리와 그의 어머니가 오랜 마음의 갈등을 풀고 눈물로 서로를 끌어안는 화해와 감동의 모습이 그녀의 생활 속에 재현되기를 간절히 빌었다.

이 영화는 엄마와 딸에 관한 이야기



이다. 오로지 딸들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고, 중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 온갖 역경을 헤쳐나가는 부모 세대의 네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엄마에 관한 것은 과거에 속한 것이고, 딸에 관한 것은 현재에 속한 것이다. 영화 속의 네 명의 엄마들은 모두 근대 중국의 역사나 봉건제도의 폐습에 의하여 비극적인 삶을 강요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고난과 비극적 삶 속에서 삶에 대한 지혜로운 안목을 갖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반면으로는 자신들의 고난의 삶이 딸들에게서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딸들에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마들의 비극적 삶을 알지 못하는 딸들은 그러한 엄마가 부담스럽고 짜증스러울 뿐이다. 불만과 회의의 불씨를 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딸들은 마침내 개인적인 중차대한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 문제에 개입하는 엄마들과 대립한다.

이러한 폭발적인 감정의 대립 속에서 딸들은 엄마들로부터 그들의 고난에 찬 삶과 비극적 경험을 듣게 되고, 엄마들을 동정하고 그들의 독특한 삶의 양식을 수용하고 이해한다. 또한 딸들은 비극적 삶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엄마들의 지혜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안목을 얻게 된다. 물론 그 지혜는 딸들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이제 네 경우 중에서 하나만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리나 세인트와 그의 어머니

리나의 엄마는 중국의 봉건적 폐습에 의해 비극적 삶을 경험한 사람이다. 열렬한 사랑 끝에 결혼하였고 아들까지 낳았으나, 남편은 노골적으로 바람을 피웠고 집안까지 여자를 끌어들이며 그녀를 모욕하였다. 그녀는 남편에게 짓밟힌 자신의 순수와 사랑과 젊음에 대하여 처절하게 고통스러워 하면서, 남편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생각해 낸다.

그것은 남편이 꿈쩍하게도 아끼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었다. 목욕통에서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질식사하도록 한다. 숨진 아들을 꺼내고 미친 여자처럼 흐느끼는 그녀는 미국으로 이주하고, 다시 결혼하여 딸까지 낳아서 생활하는 중에도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한다.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딸을 향해 그녀는 “나에겐 이미 너에게 나누어 줄 영혼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딸이 결혼하여 남편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엄마는 자



딸 리나(왼쪽)와 어머니 잉잉. 리나는 늘 모든 것을 남편과 반반씩 부담하며 사는 생활에 싫증을 느낀다.

신에게 남겨진 모든 영혼의 힘을 쏟아 부어 딸을 일깨워 준다. 엄마의 일깨움으로 딸은 남편에게 자신의 요구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을 찾게 된다.

이 영화를 본 아내는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나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딸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아버지인 나로서는 약간은 불만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어머니와 딸이라는 주제를 너무 선명하게 부각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영화 중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혹은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애정과 관련하여 아버지가 어찌 어미의 지위를 탐내랴!

또 하나, 이 네 명의 여인들의 기구한 삶을 통해 그려지는 중국은, 현실에서 풍요한 삶을 보내는 터전으로서 그려지는 미국과 비교할 때 너무나 암울하고 비극적이며, 불합리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묘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시 말해 몇몇 개인적인 특수한 경험을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근대 중국이 봉건제도의 폐습 속에서 많은 사람의 삶을 왜곡시킨 면이 없지는 않으나 그 중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지 않았겠는가? 영화 속에서 풍요의 땅으로 기록되는 미국 역시 암울하고 비합리적인 면이 없었겠는가?

마지막으로 낚두리를 하나 하고 글을 맺는다. 매년 강의 때마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향기로운 말이 무엇이겠는가고 묻는다. 학생들의 이런 저런 대답을 듣고난 후에 나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와 ‘어머니’라는 말 둘을 추천한다. 중국어로 말하자면 ‘我愛你’와 ‘媽媽’이다. 그렇다면 이 둘을 함께 말했을 경우 이 문장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말이 될 것이다. <조이력 클럽>을 보고 우리의 어머니를 향해 말해 보자.

“媽媽, 我愛你”(마마, 워 아이 니!)

편집자 주:
웨이 왕 감독의 ‘조이력 클럽’은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이지만 편의상 「중국영화」의 범주에 접어넣습니다.

김성근 / 교육부 운영위원
방송통신대 중문과 교수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종교

종교계 항일전쟁 승리 50주년 기념 기도회 거행

중국의 각 종교단체가 반파시스트전쟁과 항일전쟁 승리 50주년을 기념하며 전국 각지의 종교활동장소에서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기도대회를 연일 개최했다. 천주교를 포함한 도교, 불교, 회교, 기독교 등 각 종교단체마다 큰 플랭카드를 내걸고 전쟁으로 희생된 용사들과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人民日報 8. 21)

중국 내 교회지도자 양성 추진

한아선교봉사회(회장:박종순)는 중국의 애덕재단에서 추진중인 두 가지 프로그램에 연간 1만 1천5백 달러 상당의 경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 경비는 지역 사회 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중국 내 13개 신학교의 홍보물 제작에 쓰여지게 된다.

이 밖에도 중국 내 교회지도자 양성을 위한 외국유학과 교회가 운영하는 탁아소와 진료소, 양로원 등의 경비 지원 등은 후후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기독교공보 8. 26)

보호받는 시장(西藏)의 사원

시장자치구 민족종교위원회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시장의 각 지방정부에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 15년 간 모두 2억 2천만 원(인민폐)을 투자하여 1700여 곳의 사찰과 종교활동장소의 시설을 확충하고 복구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신도들의 종교활동에 큰 기여를 하였다.

(文匯報 9. 4)

정치·외교

중, 대만 핵개발 땀 침공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면 대만을 무력침공할 것이라고 중국 고위 관리가 밝혔다고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다.

(경향신문 8. 1)

반부패 사정 법조계로 비화

중국의 전국적인 반부패 사정이 법조계로 비화됐다.

중국 검찰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권력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27명의 판사를 포함, 사법당국이 법을 잘못 집행한 3백29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중앙일보 8. 9)

중국인 반이상, 대만 무력해방 찬성

중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그리고 중국 군인의 80% 이상이 대만을 무력으로 해방시키는 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언론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중국 정부가 최근 대만 근처 해상에서 일련의 미사일 발사 훈련과 대규모 이동훈련을 실시한 직후 중국 지도부의 주도로 실시된 것이다. (중앙일보 8. 9)

홍콩인수 후 8천3백 명 인민해방군 주둔 결정

중국은 오는 '97년 7월1일 홍콩인수 후 약 8천3백 명의 인민해방군을 홍콩에 주둔시키기로 지난 달 최종 결정했다고 홍콩의 시사전문지 동향(動向)이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중앙일보 8. 16)

중국 군부 대대적 물갈이, 젊은 장성들 요직배치

중국 중앙군사위는 최근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2명과 군구 사령관 등을 포함, 수십 명의 고위장성들에 대한 인사를 진행중이라고 이스턴 익스프레스지가 보도했다. 이번 인사는 최근 대만에 대한 미사일 훈련을 반대한 간부들을 경

절하고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의 사망에 앞서 군 주요 포스트를 젊은 장성들로 교체, 권력 과도기중 군부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일보 8. 22)

중국, 핵실험 두 번 더 실시

중국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체결될 때까지 앞으로 핵실험을 두 번 더 실시한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통고해 왔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중국의 핵실험 목적은 군사기술 향상에 있으며 올 가을 금년 들어 세 번째 핵실험을 9월 하순에서 10월 초에 실시할 예정이며 종전과 같이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로프누르(라포박)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8. 26)

“이제 시작, 중국인권 계속 폭로”, 해리 우 귀국회견

해리 우(吳弘達, 58)가 중국에서 추방돼, 24일밤 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내뱉은 첫마디는, “석방해줘서 고맙지만(?) 싸움은 이제부터”라며 중국 인권문제를 계속 폭로할 것임을 시사했다.

우는 당분간 휴식을 취한 뒤 대중국 고삐를 죄어나갈 계획이지만 중국이나 미국은 모두 “제발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고 있다. 우는 중국의 인권문제를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한 만큼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8. 27)

중국, 97년 이후 대만-홍콩 항공협정 폐기

중국은 대만과 홍콩간의 항공협정에 관해 협의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이 97년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는 대만-홍콩간의 항공협정을 폐기할 것이라고 대만신문인 연합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 8. 28)

리펑(李鵬) 총리 '97년 임기만료 후 퇴진

리펑 중국 총리(66)가 '97년 2회 연임 임기만료후 명예직인 국가부주석 또는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으로 임명



될 것이라고 홍콩의 대표적 중국계 잡지인 경보(鏡報) 최신히가 보도했다.

경보는 리펑 총리가 중국의 헌법이 두 차례만 연임토록 규정하고 있고, 건강도 좋지 않아 연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9. 1)

티벳 독립운동 분쇄 명령

중국 공산당은 티벳 주둔 인민해방군에 티벳 독립운동을 분쇄할 것을 1일 명령했다.

우방귀(吳邦國) 부총리는 티벳의 수도 라사에서 주둔 인민해방군에 행한 티벳자치구 창설 30주년 기념연설을 통해 “군은 티벳 안정과 보호, 개발을 위한 역사적 임무를 띠고 있다”며, 또 “티벳은 양도할 수 없는 중국의 일부이며 40년도 훨씬 전에 인민해방군이 티벳에 진주했고 자유의 기초를 닦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9. 3)

중, 대미관계 개선에 최우선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대만을 제압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단기외교정책을 수정해 대미관계 개선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결정했다고 홍콩의 영자지 스탠더드가 중국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동아일보 9. 14)

엘친 11월초 중국 방문

보리스 엘친 러시아대통령이 오는 11



월초 중국을 공식방문한다. 베이징의 한 러시아 외교소식통은 14일 “첸지첸(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이 엘친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따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1일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9. 16)

홍콩 의원선거 친중국계 참패

중국은 18일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된 홍콩 입법평의회(의회) 의원선거에서 친중국계가 참패한 것과 관련해 선거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강조해 홍콩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리펑 중국 총리는 이날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며 우리는 97년 홍콩반환 이후의 기본법에 포함되지 않거나 위배되는 그 무엇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9. 19)

경제

중 “무역기업 지정제 철폐”

중국은 최근 정부가 지정하는 기업만이 외국무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의했다.

(한국일보 8. 1)

9차 5개년계획 기간 중 8-9% 경제성장 유지

중국은 9차 5개년계획 기간(1996~2000년) 중 경제성장률을 8-9%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국가계획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9차 5개년계획 기간중 거시경제목표로 경제성장률을 8-9%, 물가상승률을 7-8%, 연평균 투자증가율을 30%선에서 각각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8. 9)

국유기업 99% 처분키로

중국정부는 약 10만 개사로 추산되는 국유기업 중 1천 개사 정도만 남겨두고 경영이 부실한 나머지 9만 9천개사는 시장기능에 맡겨 매각, 합병 또는 파산 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중국의 한 주요 경제전문가가 밝혔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70%가 현재 적자를 내고 있으며 이 중 40%는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장부상으로 흑자를 내는 다른 30%도 부채를 감안하면 사실상 적자상태이다.

(국민일보 8. 14)

중국, 지적재산권 거래소 신설

중국의 출판업 중심지인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에 중국 최초의 지적재산권 거래소가 개설돼 업무에 들어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수년 간에 걸쳐 급증한 음반, 컴퓨터 소프트웨어, 책, 각종 상표 등의 광범위한 불법 해적행위를 무시해 왔으나 금년 미국과 획기적인 협정을 체결, 지적재산권 보호법 시행을 더욱 강화하고 저작권, 특허권, 상표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도록 했다.

(조선일보 8. 21)

중국경제 순항, 물가 고삐잡혀

진금화 국가계획위원회 주임은 26일 제 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상무위원회에서 행한 보고를 통해 “우리의 국가 경제는 정부가 설정한 거시적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월간 도매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하락하기 시작, 정부의 물가억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8. 27)

중국은행, 주택담보 대출업무 실시

중국공상은행(ICBC)은 주택가격의 30%를 예치할 수 있는 도시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구입 대상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곧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주거용 주택대출은 현재까지 16억 원(1억9천2백만 달러)을 기록, 은행의 부동산 대출액 가운데 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8. 28)

중국, 반덤핑 반보조금법 등 제정 추진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협력부는 중국의 자유무역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반덤핑법과 반보조금법 그리고 수입업무지침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비즈니스 위클리가 보도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반덤핑법과 반보조금법은 국내외 제조업자에게 다같이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게 되며, 기업들의 권리와 상품수입과 관련한 상세한 지침을 담게 될 수입업무규정은 투명성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선일보 8. 29)

내륙지방 외국인투자 장려분야 발표

최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특혜를 감축하는 등 제한조치를 취해 온 중국정부는 최근 국가계획위원회를 통해 내륙지방에 대한 외국인투자 장려분야로 농업 및 농업기술 개발과 교통 등 기초시설 개발과 관련한 프로젝트 등 모두 7개 분야를 발표했다.

(조선일보 8. 29)

중국, 대만에 정경분리 3원칙 실시결정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대만 부근에서 잇

단 군사훈련을 실시함과 동시에 대만에 대한 정경분리 3원칙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정경분리 3원칙은 어떠한 조건하에 서도 ▲대륙에 투자중인 대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측간 민간교류 및 경제·무역교류를 그대로 유지하고 ▲양측간 직접 통항, 통우, 통상 등 3통 실현을 계속 추구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국민일보/조선일보 8. 31)

대만제압·홍콩혼란 대비

상하이(上海)에 수조원 투입

중국은 상하이(上海)가 중국의 금융, 무역 중심 도시로서 대만의 주요도시들과 경쟁하고 홍콩의 ‘과도기혼란’에 대비해 대륙 내 최대 상공업도시인 항우 5년 간 인민페로 환산해 수백억 원(한화, 수조원)을 투입하는 새 상하이 발전전략을 마련했다고 영자지 홍콩 스탠더드가 국무원(중앙정부) 최신문건 61호를 인용, 보도했다.

중국소식통들은 이 상하이발전 전략이 장저민(江澤民) 당총서기가 주도하는 이른바 ‘상하이방(上海幫)’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9. 4)

긴장 속 중국무역사절단, 대만 방문

지난 6월 리명후이(李登輝) 대만총통의 미국 방문으로 중국과 대만 관계가 악화된 이후 최대 규모인 32명으로 구성된 중국무역사절단이 대만에 도착했다.

중국 동남부 푸지엔(福建)성 기업 간부들로 구성된 이 사절단은 10일 대만에 머무르는 동안 해협교류기금회(SEF), 중화민국공상협진회 및 지역업체들을 방문하여 경제교류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경향신문 9. 5)

중, 상하이(上海)에 특혜정책

중국정부는 중국 내 최대 상공업도시인 상하이 푸둥(浦東) 신구를 중국경제의 핵심으로 개발하기 위해 제9차 5개년계획기간(1996-2000년) 중 재정세무·금융·외환무역·건설·보세구관리·물자수입 등 6개 부문에 걸쳐 18개항에 이르는 새로운 특혜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明報 9. 7)

“중국진출 외국인회사 노동자 파업 막지 말라”

중국 관영매체들은 최근 외국 고용주들에게 중국의 노동법을 준수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지말라고 경고하면서 외국 회사와 합작회사의 노동분규를 크게 부각시켰다.

대부분의 소오는 홍콩, 대만, 한국의 단순 제조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당국은 이들 중소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현재 노동자들에게 노사 양측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새로운 노동자법에 의거해 사업장 내 노조를 조직,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을 권장하고 있어 앞으로 노사 분쟁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일보 9. 10)

외국기업 우대조치 점차 폐지

중국의 리펑 총리는 19일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베풀고 있는 우대조치를 점차 철폐할 방침이라고 베이징을 방문중인 일·중 경제협회 간부들에게 밝혔다.

그는 “외국자본이면 무엇이든 환영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중국에 좋은 기술과 품질을 전수해주는 외자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 방침”이라고 하였다. (중앙일보 9. 20)

사회

무례한 말대꾸 50가지 사용금지

중국은 관매원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베이징에서 내달 열리는 유엔세계여성회의 참가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 까하는 염려에서 이들이 고객들에게 흔히 사용하는 무례한 말대꾸 50가지에 대한 사용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발표.

이번에 사용금지령이 내려진 무례한 말대꾸는 “살 작정이 아니라면 물건을 이것저것 뒤지지 말아요”, “난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소. 다른 사람에게 물어요”, “지금 막 대답했는데 왜 또 묻는 거요”, “잔돈이 없으니 밖에 나가 구해와요”, “어서 가서 나를 고소해 봐요” 등이라고.

(중앙일보 8. 9)

중국과 대만 최초 학생교류 시작

중국의 청화대학과 대만의 청화대학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학생들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홍콩의 통신사들이 보도.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국제화교 물리학회에 출석중인 대만의 심군산 청화대학장은 이달 말부터 20명의 학생을 교환유학생으로 중국의 청화대학에 파견하며, 내년에는 중국 측에서 교환학생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앙일보 8. 9)

중국, 획기적 여성발전 프로그램 마련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9월 4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계여성대회를 앞두고 6억여 명에 달하는 여성의 열악한 환경을 향후 2000년까지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여성발전 프



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

이 계획의 주안점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 강화와 여성의 문맹 퇴치이며 아울러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의 철저한 이행, 여성들의 정치권력 증대, 여성남치와 강제매춘 근절, 여성과 가족을 막바꾸는 행위 뿌리뽑기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일보 8. 15)

칭다오(靑島)시 전력사정 크게 악화

최근 중국의 전력수급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칭다오시가 시내 기업들



아파트 건축 붐이 일고 있는 칭다오시.

에 주 3일 전기사용금지를 통보했다. 중국의 전기부족은 전국적 현상으로 조만간 중국내 다른 지역도 청다오시의 비상절전대책을 따를 가능성이 있어 중국 진출업체들은 조업단축에 직면하고 있다.

(중앙일보 8. 16)

중국 '알짜 돈벌이' 직업은?

중국 국가계획위원회 산하 '인재·노동력 연구소'가 각 직업별 수입을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주식·증권 관계자가 가장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공안보가 최근 보도했다.

이 조사는 연봉에 따라 14단계로 직업을 구분했는데 주식·증권 관계자 이어 △상공업자 △사영기업주 △텔런트·영화배우·감독 △기업 경영 대리인 △외국 합자기업의 중국 대표자 △고급 과학기술 연구원 △택시기사 △은행·금융 종사자 △일부 2차산업 종사자 △채취업한 이·퇴직 공무원 등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한겨레신문 8. 30)

5세 어린이, 애국영화 본 후 자살

북경 교외에 사는 5세의 중국 어린이가 2차대전 종전 50주년 즈음에 TV로 방영된 '교육용' 영화에서 일본군병사가 어린이의 가슴을 자르는 장면을 보고 5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북경 일보가 보도.

이 신문은 「교육영화인가 공포영화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침략자들과 파시즘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것은 애국교육을 강화하는 기회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논평.

(조선일보 8. 30)

<태풍 켄트> 홍콩 상륙, 6명 사망

태풍 켄트가 필리핀에 이어 31일 홍콩과 중국남부 광둥성을 강타해 산사태 등으로 6명이 죽고 150명이 부상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또 홍콩에서 북쪽으로 1백km 떨어진 중국 광둥성의 산미지방에서 산사태가 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홍콩 국제공항측도 여객기의 이착륙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9. 1)



요녕성 단둥시의 압록강 유람선 표 파는 곳.

공중화장실 안내서 발간

공중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해 화장실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객들을 위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상하이시 보건당국이 공중화장실 안내서를 펴냈다.

(경향신문 9. 19)

한·중관계

중, 한국업체 공사 철저감리 지시

중국정부는 최근 한국에서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등 공사부실로 인한 대형참사가 잇따라 발생한 데 주목, 중국 내에서 한국업체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각급기간에 「홍두문건(紅頭文件)」을 통해 지시하였다.

(국민일보 8. 7)

북한 교육 받은 중국인 2명, 서울대 입학

북한에서 교육받은 중국인 교수와 연구원 등 2명이 서울대 사상 처음으로 특별수학생으로 선발돼 이번 2학기부터 서울대에서 수학하게 되었다.

서울대는 외국인과 교포자녀들을 대

상으로 선발하는 특별수학생 41명 중 북한에서 연구활동 경험이 있는 중국 하얼빈사범대학 부교수 신보충(32, 중국 헤이룽장성)씨와 베이징 시나카 동물학연구소 연구원 조용(31, 베이징)씨를 각각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와 농대 농생물학과 석사과정 특별수학생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8. 10)

중국에서 북한유람 프로그램 재개

중국 지린(吉林) 연변(延邊) 조선족 자치주 룡정(龍井)시에서 북한의 함경북도 회령일대를 유람하는 1일 관광프로그램이 최근 재개됐다고 연변방송이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8일 김일성 사망 직후 국경통제를 강화하면서 이 관광프로그램을 중단시킨 바 있다.

(중앙일보 8. 17)

접경지역 출입국 규제 대폭 강화

연변에서 납북된 안승운 목사 사건이 한·중·북한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지난 7월말 리펑총리 주재로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를 열고, 접경지역의 내외국인에 의한 불법적 출입국 활동을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변방검

사조례'를 새로 제정,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새로 제정된 출입국조례에 따르면 △출입국 변방검사사업은 중국 최대 정보 수사 기관인 공안부에서 주관하며 △대외로 개방한 항구, 공항, 역과 변경통로 등 통상구에 출입국 변방검사를 설치, 출입국자에 대한 검사와 감시 및 보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조선일보 8. 22)

중국 연변서 북한인 마약밀매 성행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에서 최근 들어 마약밀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사건의 대부분은 연변을 방문하는 북한인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지대인 연변이 개방되면서 외국으로부터의 마약침투가 심화되고 있는데 적발된 외국인 범죄자들을 '친척 방문' 명의로 입국한 김모씨 등으로 표기함으로써 이들 외국인이 북한인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8. 22)

르면 안목사는 북한특수요원 3명과 연변지역 친북한계 조선인 교포 3명 등 모두 6명의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납치」됐으며 이들의 신원은 물론 사건전모를 파악, 중국 국내법절차에 따른 재판과 남·북한·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한 '정치적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안 목사 소속 순복음회 측은 22일 박요한 선교국장 등 3명을 중국으로 파견, 주중 한국 대사관과 중국 연지(延吉)시 공안당국을 방문해 안 목사의 송환을 요구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8. 22)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개설 적극 검토"

중국 정부는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영사국장 회담에서 연변지역의 한국인 여행객 급증 등 인적교류 확대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요구한 선양 총영사관 개설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국민일보/조선일보 8. 24)



백두산의 장백폭포

한국전용공단 설치 계획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한국 기업들이 후난성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선일보 8. 28)

중국, 북한에 수재구호품 3백만 달러 지원 방침

중국은 지난 7,8월의 집중 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북한에 대해 최근 긴급 구호의 차원에서 의약품, 의류 등 구호 물품의 형태로 3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 방침을 유엔쪽에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9. 15)

대우, 중국에 승용차 공장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은 중국의 국영자동차업체인 제일창춘자동차(長春汽車)와 합작으로 중국에 승용차공장을 설립키로 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9. 16)

한국인 중국여행 상반기증 53% 늘어

올 상반기증 중국을 찾은 해외여행객 중 한국인 입국자의 증가율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9. 20)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중국 공안당국, 안 목사 '납북'으로 결론
지난 7월 9일 발생한 안승운 목사 납치 사건을 수사중인 중국 공안당국은 이번 사건이 북한이 저지른 납한인 「납치사건」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검거된 북한인 리경춘(39, 북한 무역회사 직원)을 중국 국내법에 따라 재판에 회부키로 결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중국 공안당국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

박 통산장관 중국 후난(湖南)성장과 협업체대 방안 논의

박재운 통산산업부장관은 28일 방한중인 양정오 중국 후난성(湖南省) 성장의 예방을 받고 한국 기업의 후난성 진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양성장은 후난성 창사(長沙)경제기술개발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신 선단

세미나 스케치

인터콥 '95 미전도종족 선교세미나



인터콥(전문인국제협력단)은 유라시아 대륙의 미전도종족을 위한 '95 미전도종족 선교세미나를 개최했다. 9월 1일과 2일 양일 간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첫째날, '한국 교회와 21세기 세계선교'라는 제목의 강의를 시작으로 미전도종족 현황과 선교적 접근 방법론을 강의하였다. 둘째날에는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몽고, 중국, 베트남, 인도차이나 등 지역별 선교 접근 전략 분야에 대해 선택강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직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공산권 지역, 이슬람권 지역들을 포함한 많은 미전도종족에 대한 접근방식과 전략, 또한 단기 선교의 전략과 실제 나가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을 직접 사역하는 선교사의 강의를 통해 들을 수 있어 효과적인 선교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각 종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풍물과 사진이 전시되어 그들을 향한 선교에의 갈망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 정기세미나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 주최로 9월 정기세미나가 지난 9월 14일(목) 중화한성교회에서 열렸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의 신앙유형"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천 웨이밍(대만 중국복음회 중국 현지 사역자)은, 중국교회 지도자에 대한 정의로부터 중국교회 지도자의 신앙유형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한국인들이 선교 사역시, 중국인들에게 교파를 강조하지 말고 가정교회 내에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조용히 묵상을 통한 교제를 중히 여기는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와 시간관리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어야 할 당면과제임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현 상황에 알맞는 선교사역의 태도는 사도시대 개척의 모델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성령이 사도되게 하는 것이라며, 한국 교회는 중국의 성도들이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John D. Robb 초청 미전도종족선교세미나

지난 9월 14일 한국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가 주최한 미전도종족세미나가 햇불선교센터에서 열렸다.

강사인 존 랍(John D. Robb 목사, 미국인)은 현대선교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종족별로 그룹을 형성하여, 그 종족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가에 대해 토론하였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이제는 나라의 개념에서 종족의 개념으로 바뀌어 질 때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미전도 종족의 입양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훈련받을 일꾼을 모집합니다.

동아시아 선교캠프

한국 오엠에프에서는 「동아시아의 신속한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할 사역자들을 준비시켜 오엠에프와 동아시아의 선교지로 연결시키려는 목적으로 제4회 선교캠프를 개최한다.

대상: 동아시아 선교에 헌신한 청년, 대학생 및 사역예정자

일시: 1996년 1월 15일(월)~19일(금)

장소: 합동신학교 기숙사(수원 소재)

강사: Mr. Jim Morris, 양영학 선교사, 한정국 선교사, Mr. Rogers Senior, 배영선 선교사

등록비: 9만 5천원

자세한 문의는 한국 오엠에프로

TEL. 555-3958, 567-9859

해외협력선교회 동기 선교훈련

해외협력선교회(PWM)에서는 이론 중심의 선교훈련을 탈피하고 선교사들과 숙식을 같이하며 선교의 생생한 경험을 하는 제3회 동기 선교훈련을 실시한다

일시: 1996년 1월 16일~26일

장소: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

자격: 선교에 소망있는 자로 대학 2년 수료 이상 학력을 가진 남녀 30명

강사: 김병선, 안성원, 박희복, 한옥희 선교사 및 현지 지도자

등록마감: 1995년 11월 30일까지

등록비: 7만원

자세한 문의는 <해외협력선교회>로

TEL. 565-3431~2

예수세계선교회 선교사 훈련생 모집

모든 복음주의적 교회와 교단,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초교파적으로 사역하는 예수세계훈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6기 선교사 훈련생을 모집한다.

기간: 1학기(국내훈련)- 96년 3월~8월

2학기(타문화훈련: 필리핀, 대만)

96년 9월~97년 2월

훈련방법: 전가족 공동생활 훈련

원서마감: 95년 11월 20일까지

면담: 95년 12월 중

자세한 문의는 예수세계선교회로

402-600 인천 북인천 우체국 사서함 24호

TEL. 032) 435-6777-8 FAX. 427-1603

예수세계선교회 '96 비전트립

세계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선교현장을 정탐하며 선교에 도전, 선교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단기선교 여행을 진행한다.

대만팀: 96년 1월 15일~27일, 500 US\$

필리핀팀: 96년 1월 22일~27일, 700 US\$

(민다나오 중심)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영국 팀:

96년 1월 8일~31일, 2000 US\$(예정)

자세한 문의는 예수세계선교회로

TEL. 032) 435-6777-8 FAX. 427-1603

외향선교회 선교사훈련생 모집

한국외향선교회 부설 타문화권선교사훈련원(COMTI)에서는 제10기 선교사훈련생을 모집한다.

시간: 주 4회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훈련비: 학기당 20만원

기간: 학기 당 2달, 3학기제

자세한 문의는 한국외향선교회로

TEL. 333-0592

외향선교회 겨울 단기선교

기간: 96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장소: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등

소요경비: 130만원

자세한 문의는 한국외향선교회로

TEL. 333-0592

중국을 주께로 기도캘린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이는 싸움입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며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만큼 강력하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중국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기도한 만큼 중국은 변화할 것입니다.

두 달 동안 하나의 기도제목을 두 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중보기도의 손길이 많아져서 중국 복음화가 앞당겨지기를 원합니다.

1일

고위 관리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푸지엔(福建)성의 인사담당책임자는 모든 고위 관리들이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나섰다.

보다 많은 크리스천 외국인들이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중국으로 갈 수 있도록.

2일

음란 소프트웨어의 근절을 위하여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활성화하면서 외국의 선정적인 소프트웨어가 함께 유입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런 음란 소프트웨어의 주 판매대상이 정식으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들이어서 우려의 소리가 더욱 높다. 부모들이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음란 소프트웨어에 심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음란 세력을 소멸시키고 어린 학생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3일

대만 교회의 2000년 복음화운동을 위하여

대만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 밖에 안되며 그

중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은 1%에 불과하다. 복음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교회는 계속 퇴보하고 있다. 이에 범국가적인 부흥운동인 2000년 복음화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영적 각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질주의, 세속화,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는 대만을 둘러싸고 있는 사단의 사슬이 깨어지고 크리스천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4일

가정교회의 안전을 위하여

작년 국가 종교사무국이 지방 종교사무국에 정보관리 강화를 요청한 후부터 각 성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들은 팩스를 설치하고, 정보수집 전담요원을 의무적으로 두는 등 각 성간의 연락을 더욱 신속하고 간밀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교회와 그 지도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급습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한편 6월 초까지 전부 등록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가정교회와 지도자들의 신변을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시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권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5일

심리치료를 받는 청소년을 위하여

상하이(上海)의 청소년 중 정신과 치료를 원하는 청소년이

전체 정신과 진료자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중 학교에 빠지거나 절도한 사람이 50%, 조기 성행위, 변태 성행위자가 12%, 심각한 정신질환자가 5%를 차지하고 있다. 근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의사를 찾고 있어 청소년들의 인격 및 심리의식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으며 치료의 효과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심리치료로 청소년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보건의식 및 정신건강이 튼튼해지도록.

6일

천재지변을 당한 이재민을 위하여

8월 31일 태풍 켄트가 남부 광둥성 일대를 강타하여 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정상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재정책을 잘 세울 수 있도록.

7일

세속화와 우상화의 기세를 꺾어주시도록

중국 복음화의 가장 큰 장애는 종교법이 아니라 빠른 세속화와 우상화이다.

세속화와 우상화의 기세를 꺾어주시고 정신적인 불안과 사상적 공백상태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이 다른 것들보다 앞서 전해질 수 있도록.

8일

잘못된 투약 습관의 개선을 위하여

최근 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병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환자가 새 약과 수입 약을 맹목적으로 믿고 복용하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매년 약품 부작용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사람이 250만 명이고 그 중 50만 명은 아주 심각한 상태이며 약 10만 명 정도는 약품 부작용 및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합리적인 약물사용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국민들이 함부로 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9일

목회자가 부족한 대만 교회를 위하여

대만은 현재 20여 개의 신학교를 통해 목회자를 배출해내고 있으나 졸업생들과 목회자들의 해외유출이 계속되며 이들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아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대만의 목회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목자 없는 양같은 대만 교회에 온전히 헌신된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10일

안후이(安徽)성의 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 마을 부근에 몇 개의 예배처소가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은 거의 천 명의 신자가 모입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자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교회에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헌금을 개인적으로 도용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을 돌보아 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 안후이성의 한 성도

이 지역의 설교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11일

중국 군대의 복음화를 위하여

중국군 최고 사령관은 2백만 군인들에게 검소하게 생활하고 돈과 쾌락의 유혹을 이겨나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상으로 무장된 중국 군대 내에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12일

효과적인 지방 관할이 이루어지도록

작년 11월부터 베이징 정부는 일부 씨족 파벌과 불법종교 조직에 대한 소탕작전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일부 향촌의 지방사무는 이러한 씨족 파벌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그들의 배후에는 이단종교나 도교 조직이 있다. 이러한 조직은 사회의 안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정부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방사무를 관할하도록 도우시고 중국인들이 미신과 신앙을 분별하도록.

13일

압(YAP)섬의 중국인 노동자들을 위하여

남태평양의 압섬에는 300명 정도의 중국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100여 척의 중국어선이 참치잡이를 위해 상주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자가 없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자를 속히 보내주시도록.

14일

가난한 쓰촨(四川)성의 노동자들을 위하여

쓰촨성의 40만 노동자들은 그들이 속한 공장이 급여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에 풀릴하는 정도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다.

삶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는 1억 이상의 쓰촨성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되며 그들이 그리스도안에 있는 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15일

중국의 노약자들을 위하여

최근 한 농부가 암을 앓고 있는 아내에게 살충제를 먹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고 난 이후 전국 인민대회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중국의 노약자들을 지켜주시고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는 자들이 생명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16일

중국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을 위하여

중국 전역에 걸쳐 그리스도를 찾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성장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17일

홍콩인들을 위하여

지난해 홍콩을 떠난 사람이 6만 명에 이르렀으며 또한 지난 6년 동안 인구 18명 중 한 명 꼴로 홍콩을 떠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홍콩반환이 가까워지면서 홍콩에 대한 중국정부의 간섭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어 홍콩인들이 불안과 압박을 느끼며 이민 등의 도피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에 시달리며 방황하고 있는 홍콩인들이 진정한 평안을 얻도록.

18일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학생들을 위하여

현재 세계 14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중국 유명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94년의 등록 학생 통계에 의하면 외국학생의 수는 26,0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4%가 증가했다. 재정독립을 추구하는 중국대학은 외화 획득의 중요한 근원인 외국학생들을 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학생들이 중국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중국학생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19일

이단 단속 명분하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단 단속이라는 명분하에 최근 중국 안후이, 상하이 지역 공안당국이 가정교회를 급습, 3백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강제로 연행되었다. 공안원들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공안당국의 시선을 피해 예배장소와 집회시간을 옮기는 한편 찬송가를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고 있다.

성도들이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더욱 모이기에 힘써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20일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티벳 어린이들을 위하여

학령기에 있는 티벳 어린이들 중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1/3에 이른다고 한다.

티벳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으며, 특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21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부모들이 모두 돈 버는 데 바빠 '새로운 교아'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들은 외로움을 느끼며 부모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 건강이나 성장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유층' 자녀들은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감정과 의지가 박약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한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생명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22일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과 복음화를 위하여

중국 전체 크리스천 중 65%가 가난한 농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노인, 부녀자, 병자, 문맹이 많은 4다(多)현상은 농촌 교회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농촌 교회의 경제적 낙후와 문맹이 줄어들도록, 성령께서 물질주의가 만연해진 도시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도록.

23일

자살을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국인들의 23.9%가 지난 1년 중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자살을 생각해 보았으며 그 중 7.8%는 구체적인 자살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전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매일 평균 4백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미수에 그치는 사람은 그 10배에 달한다고 한다.

생명을 포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생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24일

해외 중국인 크리스천 전문가들을 위하여

해외에 있는 중국인 크리스천 전문가들이 중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의사, 간호사, 영어 교사, 회계담당자 등으로 일하고 있다.

그들의 사랑이 구체화되어 중국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5일

신장(新疆)의 평화와 착취당하는 농민들을 위하여

신장의 회교 분리주의자들이 그들의 독립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장의 남부지역 농민들은 소득 중 45%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신장의 평화를 위하여, 또한 한족 크리스천들의 삶과 증거가 위구르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26일

불공평한 종교정책이 개선되도록

삼자교회의 공식 기관지인 '천풍(天風)'은 4월호 논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순회설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불공평한 종교정책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다고 과감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보다 많은 자유가 허락되도록.

27일

외자기업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중국 외자기업의 노동자들이 노동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시간외 노동 강요, 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복리 착취, 고용환경의 열악, 안전소홀 등의 부당대우를 당하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힘없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도록. 또한 중국에 투자하는 크리스천 기업 및 자본가들이 올바른 기업윤리로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28일

증가하는 크리스천 공산당원들을 위하여

금년 초 공산당원들의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8조 규정이 각 성에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원들의 입교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이들이 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29일

홍콩의 신이민대상 선교운동을 위하여

홍콩으로 넘어오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이민대상 선교운동」이 일고 있다. 근래 매일 1백5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홍콩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어, 주택, 일터, 자녀교육, 가정생활 등 여러 면에서 홍콩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홍콩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며 이들을 향한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30일

여성을 경시하는 풍조가 개선되도록

중국의 일부 회사들이 여직원을 채용하는 데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어, 취업을 앞둔 여대생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의 실력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외모를 가꾸는 데도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한다. 교수들조차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가능한 더 예쁘게 치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성을 경시하는 풍조가 바로 잡혀지고 중국의 여성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31일

미신 서적의 근절을 위하여

관상이나 운명 등 미신을 다룬 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출판사는 전통문화 신앙과 동양문화 연구라는 구실을 내세워 예언학, 기호학 등의 명칭들을 붙이고 있다.

이러한 책들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사단의 꾀계를 멸하시고 기독교 출판문화가 공인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위의 기도제목은

아시아 기도(OMF), 守望中華(CCL) Pray for China(CCRC), Chinese around the World(CAW), China News Church Report(CMI) 亞洲週刊 및 국내 일간지 등의 소식을 참고하여 제공한 것이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먹고 마시고 즐기자(吃喝玩樂)’

우량(友良)

개혁개방 이래 먹고 마시는 향락풍조가 중국 전역에 두루 퍼졌다. <먹고 마시자 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풍조인데, 이와 관련된 말을 사전상의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자.

츠츠허허<吃吃喝喝>: 공금으로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으로, 1986년 1월 7일 자 <보간문학(報刊文學)>에 처음 등장했다.

츠따후<吃大戶>: 원래 해방전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린 사람들이 지주나 부잣집에서 밥을 얻어 먹거나 식량을 약탈하는 것을 가리켰으나, 지금은 수입이 비교적 많은 단위(單位)나 개인이 돈을 벌리거나 할당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돈을 착취하는 것.

츠따상<吃大項>: 국가가 대량으로 투자한 기초 건설 혹은 과학연구소 항목의 자금을 도용하는 것.

츠허펑<吃喝風>: 먹고 마시는 사회의 풍조 “츠허펑(吃喝風)”에서 나온 말로, 사회에 먹고 마시는 풍조가 이미 광적인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형용.

츠허쭌안위엔<吃喝專員>: 공금을 쓸데없이 남용하는 전문 요원. 유사한 말로는 먹고 마시는 서기를 뜻하는 “츠허슈지(吃喝書記)”, 먹고 마시는 매니저를 뜻하는 “츠허징리(吃喝經理)”가 있다.

츠핀<吃貧>: 소수 빈곤한 지역의 간부들이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는 돈을 멋대로 착취하는 것을 뜻함. 유사한 말로 공금을 이용해서 먹고 마시는 츠푹(吃公)과, 회의한다는 명목으로 크게 먹고 마시는 츠후이(吃會)가 있다. 이밖에도 츠허우(吃猴), 츠하이(吃海)가 있다.

츠푸<吃福>: 각종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노력한 성과를 가로채는 것.

츠짜이<吃災>: 공금을 흥청망청 써서 크나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뜻.

츠쓰<吃私>: 몰래 남의 덕을 보는 것, 즉 뒷거래를 한다는 말. 엄격히 말하면 “뇌물수수(吃賄)”.

츠추앙투이<吃床腿>: 여관에서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공무로 출장 나온 사람들의 음식비 등 스스로 지불해야 할 비용을 숙박비에 넣어주므로 단위가 부담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뜻함. 츠추앙반(吃床板)이라 칭하기도함.

이 글은 홍콩복음증주협회(CCL)에서 발간하는 <守望中華> 127호 “中國名詞淺釋”을 번역한 것이다.

번역: 김은희 / 본지 편집기자

當稱謝耶和華

주께 감사하세



當 稱 謝 耶 和 華 因 - 祂 本 爲 善
Dāng chēng xiè Yē hé huá yīn tā běn wéi shàn



他 的 慈 愛 堅 定, 永 遠 長 存
Tā de cí ài jiān dìng yǒng yuǎn cháng cún



當 稱 謝 耶 和 華 因 - 他 本 爲 善
Dāng chēng xiè Yē hé huá yīn ta běn wéi shàn



他 的 慈 愛 堅 定 永 遠 長 存
Tā de cí ài jiān dìng yǒng yuǎn cháng cún

우리말 가사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자료실 1은

대만기독교교회 1993년 교세보고에서 발췌한 대만 교파 및 교회수 도표이다(제공: 이상란 대만 선교사).

이번 호 특집을 기해 대만의 기독교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실 2와 3은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공포한 「외상의 투자성 설립에 관한 잠정 규정」과 「외상의 투자 방향 지도에 관한 잠정 규정」을 번역하여 실은 것이다. 중국에 투자하는 전문인 사역자나 사업가들에게 실제적 참고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자료 ①

대만(臺灣)의 교파와 교회

교파 또는 교회	교회수
中國神召會 China Assemblies Of God	24
基督教福音浸信會 Baptist Missionary Association	6
中華福音道路德教會 China Evangelical Lutheran Church	28
中華基督教浸信會聯合會 Chinese Baptist Convention	180
基督教中華聖潔會 China Holiness Church	18
中華基督教福音信義會 China Lutheran Gospel Church	9
中華基督教長老會信友堂 China Presbyterian Church Of Christ	2
基督教宣道會 The 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22
敬拜中心 Christian Worship Center	23
中華基督教行道會聯合會 The Fellowship Of Chinese Covenant Churches	30
基督教中華循理會 China Free Methodist Church	54
基督教喜信會 Glad Tidings Missionary Society	10
福音貴格會 Gospel Quaker	3
靈糧堂 Ling Leung Tang	18
教會聚會所 Little Flock	229
基督教路德福音會 Christian Lutheran Evangelical Church	6

교파 또는 교회	교회수
基督教門諾會 The Fellowship Of Mennonite Churches In Taiwan	19
中華基督教使以利教會 China Peniel Church	3
臺灣基督長老教會 The Presbyterian Church In Taiwan	116
中華民國臺灣基督教信義會 R.O.C. Lutheran Church	21
基督教救世軍 The Salvation Army	5
基督教臺灣貴格會 Taiwan Friends Church	35
臺灣聖教會 Taiwan Holiness Church	89
臺灣信義會 Taiwan Lutheran Church	44
中國基督教信義會 The Lutheran Church R.O.C.	15
基督教臺灣眞道教會 Taipei Truth Church(True Word)	2
崇眞堂 True Worship Church	6
中華基督教衛理公會 The Methodist Church In R.O.C.	21
基督教協同會聯合會 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	34
中華基督教浸信宣道會聯合會 Conservative Baptist Association Of China	27
聖公會 The Episcopal Church	14

교파 또는 교회	교회수
基督教中國佈道會 Evangelize China Fellowship Inc	10
臺北新生教團 New Life Christian Church Mission	9
臺北地方教會 The Local Church	23
臺灣基督教道生長老會 Taiwan Tao-seng Presbyterian Church	6
伊甸基督教會 Eden Christian Church	3
臺灣基督教浸禮聖經會 Taiwan Baptist Bible Fellowship (Tabernacle)	16
臺灣神的教會 Taiwan Church Of God	4
基督教中華聖召會 Pentecostal Assemblies Of China (Canada)	9
基督之家 The Home Of Christ	4
獨立教會 Local Independ. Churches	51
基督教會拿撒勒人教會 Church Of The Nazarene	35
中華基督教信義會 China Lutheran Brethren	15

교파 또는 교회	교회수
中華基督徒恩惠福音會 Grace & Glory Christian Assembly	4
中華神的教會 China Church Of God	1
中華基督教長老會 China presbyterian Church	4
基督教錫安堂 Zion Christian Church	25
遠東福音宣揚會 Send International Of Taiwan	3
臺灣基督四方教會 Taiwan Foursquare Church Of Christ	4
基督改革宗長老會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23
基隆教會 The Church Of Keelung	4
基督教會臺灣宣道長老會 The General Assembly The Evangel Presbyterian Church	3

출처/ 臺灣基督教會 1993年 教勢報告.

基督教歸主協會, 中華基督教福音協進會 聯合出版,
1995. p. 9-11



외상(外商)의 투자성 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외국투자자의 중국투자를 촉진하고 국외 선진기술과 관리 경험을 도입하기 위해 외국투자자가 중국의 외국투자 관련 법률·법규 및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에 투자성회사(투자회사라 약칭함)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1조 본 규정에서 투자회사는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독자(獨資) 또는 중국투자자와 합자(合資)형식으로 설립하여 직접 투자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회사형식은 유한책임회사이다.

제2조 투자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① 외국투자자의 자금 신용이 양호하고, 투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 1년 전의 동 투자자의 자산총액이 4억 US\$이상이어야 하고, 중국 경내에 설립한 외상투자 기업이 있어야 하며, 실제 납부한 등록자본 출자 금액이 1,000만 US\$를 초과하고, 3개 이상 투자하려는 프로젝트의 비준된 상태여야 한다.

② 외국투자자의 자금신용이 양호하고, 투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 투자자가 중국 경내에 이미 10개 이상 생산, 또는 기초 시설 건설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제 납부한 등록자본 출자액이 3,000만 US\$를 초과해야 한다.

2. 합자방식으로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국투자자는 자금신용이 양호하고 투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산총액이 1억 인민폐(RMB) 이상이어야 한다.

3. 투자회사의 등록자본이 3,000 US\$ 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 투자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투자자는 다음의 서류를 설립하려는 투자회사 소재지의 省, 自治區, 直轄市, 計劃單列市 대외경제무역부문에 제출하여 심사·동의를 받은 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對外貿易經濟合作部)-이하 외경무부(外經貿部)라 약칭-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1. 합자 설립하는 투자회사의 프로젝트 건의서, 투자 각측이

서명한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계약·정관

독자로 설립하는 투자회사의 외국투자자가 서명한 프로젝트 건의서, 외자기업 신청표, 실현 가능 연구 보고서, 정관

2. 투자 각측의 자산신용서류, 등록등기증명서류(사본)와 법인대표증명서류(사본)

3. 외국투자자의 기존 투자기업의 비준증서(사본), 영업허가증(사본)과 중국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자산검증보고서(사본)

4. 투자 각측의 최근 3년 간의 자산부채표

5. 외경무부(外經貿部)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상기 서류에서 사본이라고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법정 대표자가 서명한 서류일 경우에는 법정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법에 의해 설립된 중개 기구에 위탁하여 신청수속을 대리하게 할 때에는 투자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외국투자자는 자유태환 화폐를 투자회사 등록자본의 출자로 할 수 있고 중국 투자자는 인민폐로 출자할 수 있다. 출자금은 영업 허가증을 서명 발급한 날부터 2년 내에 납부 완료해야 한다.

제5조 투자회사는 비준을 거쳐 다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영할 수 있다.

1. 국가가 외상투자를 권장하고 허용하는 공업·농업·기초시설·에너지 등 영역에 대한 투자

2. 투자회사는 그가 투자한 기업의 서면위탁(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을 받고 그 기업에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그가 투자한 기업을 협조 또는 대리하여 국내외에서 동 기업의 자용(自用) 기계설비, 사무설비와 생산에 필요되는 원자재, 부품을 구입하고 국내외에서 그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외환관리부문의 동의와 감독하에 투자기업간에 외화의 균형을 맞춘다.

③ 투자기업에 협조하여 직원을 모집·초빙하고 기술훈련, 시장 개발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투자기업에 협조하여 대부금을 얻고 담보를 제공한다.

3. 투자회사는 그 투자자를 위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 본 규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란

1. 투자회사가 직접 투자했거나 기타 외국투자자와 또는 중국 투자자와 공동 투자하였고 투자회사 또는 기타 외국투자자의 출자가 투자설립기업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하며

2. 투자회사가 그 투자자 또는 그 관련회사 및 기타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에 이미 투자 설립한 기업의 주식을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투자회사 및 기타 외국투자자의 출자액이 이미 설립한 기업의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경무부의 특별비준을 거친 것 외에 투자회사는 위에 서술한, 그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을 위해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투자회사는 그 투자자를 대신하여 중국에서 무역중개 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7조 투자회사는 중국인민은행의 기준을 거쳐 그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에 재무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투자회사가 실행하려는 프로젝트 성격에 근거하고 국가의 외상투자기업 경영기한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회사의 기한을 심사결정한다.

제9조 투자회사가 투자하여 설립하는 기업은 외상투자기업의 심사비준 권한 및 심사비준 절차에 따라 별도로 비준보고 한다.

제10조 투자회사가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할 때, 투자회사 또는 기타 외국 투자자와의 외화 투자 비례가 그가 투자하여 설립하는 기업 등록자본의 25% 이상일 때에는 그가 투자하는 기업이 외상투자기업 대우를 향수하여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외상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1조 본 규정 제2조 제1항 제①항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투자자는 전 자산을 소유한 자회사의 명의로 출자하여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12조 투자회사 설립 신청을 하는 투자자는 심사비준기관에 담보 서한을 제출하여 그가 설립하는 회사가 중국 경내에 투자할 때의 등록자본의 출자와 기술양도를 보증해야 한다.

전 자산을 소유한 자회사의 명의로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모회사는 심사비준기관에 담보서한을 제출하여 그 자회사가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한 조건에 따라 그가 설립하는 투자회사의 등록자본의 출자를 완성한다는 것을 보증하며, 이 투자회사가 중국 경내에 투자할 때의 등록자본의 출자와 기술양도를 보증해야 한다.

제13조 투자회사의 중국 경내에서의 투자활동은 회사등록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4조 투자회사의 과세는 중국 해당 법률·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제15조 투자회사는 프로젝트 투자계획을 실제로 이행해야 하고 매년 투자상황을 다음 연도의 첫 3개월 이내에 외경무부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16조 투자회사와 그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피차 독립적인 법인 또는 실체이고 그 업무거래는 독립기업간의 업무거래 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투자회사와 그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관리와 납세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대만·홍콩·마카오 지구의 투자자가 대륙에 투자하여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본 규정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0조 본 규정은 발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③

외상(外商)의 투자 방향 지도에 관한 잠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제1조 이 규정은 외상투자방향을 지도하여 외상 투자가 우리나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투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외상투자법률 관계규정과 산업정책의 요구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중국국경내에서 투자한 중외합작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과 기타 형식의 외상투자항목(이하 외상투자항목이라 함)에 적용한다.

제3조 국가계획위원회는 국무원의 유관 부서와 협의후 이 규정 및 국가 경제기술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외상투자산업 지도 목록”을 정기적으로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한다. “외상투자산업 지도 목록”은 외상투자 항목의 심사비준을 지도하는 기준이다.

제4조 외상투자 항목은 장려, 허가, 제한, 금지 4종류로 구분한다.

장려류, 제한류, 금지류의 외상투자 항목은 “외상투자산업 지도 목록”에 포함되고 그 외의 외상투자 항목은 허가류의 외상투자 항목으로 하며 “외상투자산업 지도 목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상투자산업 지도 목록”은 허가받을 수 없는 외상투자 경영과 국유자산이 주도적 지위에 있어야 하는 외상투자 항목들을 명시할 수 있다.

제5조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외상투자 항목은 장려류 외상투자 항목으로 한다.

1. 농업신기술, 농업종합개발 및 에너지원, 교통, 중요 원재료 공업 건설에 속하는 것.
2. 첨단기술, 선진기술로서 산품의 성능을 제고하며 에너지원과 원재료를 절약하고 기업의 경제효율을 높이거나 국내에서의 생산능력이 부족한 새로운 설비와 재료에 속하는 것.
3. 국내시장의 수요에 적합하며 생산품의 등급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 개척과 해외판매를 확대하여 수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
4. 에너지원이나 재생 자원을 종합 이용하는 것과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새로운 기술 및 설비에 속하는 것.

5. 중서부지구의 인력과 지원을 이용하며 국가산업정책에 포함되는 것.

6. 기타 국가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장려하기로 규정한 항목.

제6조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외상투자 항목은 제한류의 외상투자 항목으로 한다.

1. 국내에서 이미 개발했거나 국내에 이미 도입한 기술 및 생산능력이 이미 국내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킨 것.

2. 국가에서 외상투자를 흡수하여 시험하고 있는 프로젝트 또는 전매산업

3. 희소한 귀금속 광산자원의 탐사 및 채굴에 속하는 것.

4. 국가의 기획 산업에 속하는 것.

5. 기타 국가의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제한하기로 규정한 항목. 제한류의 외상투자 항목은 국가 산업정책 및 거시경제조절정책에 근거하여 제한류(갑)와 제한류(을)로 구분한다.

제7조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외상투자 항목은 금지류 외상투자 항목으로 한다.

1. 국가안전 또는 사회공공이익을 해치는 것.

2.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연자원 또는 인체 건강을 파괴시키는 것.

3. 대량의 농작지를 점용하거나 토지 자원의 보호 및 개발을 저해하거나 군사설비의 안전과 효율을 해치는 것.

4. 우리나라 특유의 공예 또는 기술로 생산하는 것.

5. 기타 우리 나라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금지하기로 한 항목. 위에서 규정한 외상투자 항목은 어떤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영위할 수 없다.

제8조 장려류 외상투자 항목은 유관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우혜대우를 받으며, 에너지원 교통기초 시설(석탄, 전력, 지방철도, 공로, 항구) 등 투자액이 크고 회수기간이 긴 건설 및 경영은 비준을 거친 후 유관 경영범위를 넓힐 수 있다.

제9조 제한류의 외상투자 항목은 유관 법률, 행정 법규 및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제한류의 중외합자경영 항목은 반드시 기업의 운영 기한을 예정해야 한다.

2. 제한류(갑) 외상투자 항목의 중국 측 투자 중 고정자산 부분은 반드시 중국의 투자자의 자금이거나 중국 측 투자자가 소유한 자산이어야 한다.

제10조 장려류, 허가류의 외상투자 항목은 현재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 비준을 받아 등록해야 한다. 그 중 국무원에서 규정한 심사비준 제한액 이하에 속하는 제한류(갑) 외상투자 항목은 항목의 성질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성시의 계획부서 또는 주관부서에서 심사비준하여 국가계획위원회 또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 항목의 심사비준권은 하부 위임할 수 없다. 제한류(을) 외상투자 항목 중 국무원이 심사비준 제한액 이하에 속하는 항목은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항목 건의서를 심사비준하며 항목의 성질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성시의 계획부서 또는 주관부서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후 국가계획위원회 또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항목의 심사비준권은 하부 위임할 수 없다. 국무원이 규정한 심사비준 제

한액 이상에 속하는 항목은 현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할당 및 허가증에 관련되는 외상투자 항목은 반드시 대외무역경제합작 주관부서에 할당 및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심사기준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외상투자 항목은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이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한 제한류(갑)의 외상투자 항목 중 상품의 수출판매액이 상품 총판매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항목은 비준을 거친 후 허가류 외상투자 항목으로 인정받아 이 규정 제9조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중서부지구의 지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되는 제한류(갑) 외상투자 항목에 대하여서는 적당히 제한을 낮출 수 있다.

제12조 상급심사비준기관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심사비준한 외상투자 항목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항목을 해체하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등록을 해주지 않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세관에서는 수출입 수속을 해주지 않는다.

제13조 외상 투자자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투자항목 건의서를 비준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며 심사비준기관에서는 그 항목에 대한 비준을 해체하고 유관 주관부서에서는 법적으로 상응한 처리를 해야 한다.

제14조 심사비준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월권심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 행위가 엄중하여 범죄에 이르렀을 때에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화교와 홍콩, 마카오, 대만지구의 투자자가 설치한 투자항목도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16조 이 규정은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및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17조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실행한다.

1985년 4월 4일

(중국증권보 95.4.18)

홍콩제일교회 선교관 안내

CHINA MISSION CENTRE GUIDE



홍콩제일교회(香港第一教會)

HONGKONG CHEIL CHURCH LTD.

香港 九龍 尖沙咀 柯士甸道 15號 百達行 303室
303 PARK TOWER, 15 AUSTIN RD, T.S.T KLN, H.K.
T: 2730-9907, 2735-3357 F: 2730-9891

宣教館(MISSION CENTRE)

新界 粉嶺 龍躍頭 小坑新村 33號
NO. 33, SUI HANG SAN TSUEN, LUNG YEUK TAU,
FANLING, N.T.
T: 2676-4211

주의사항

- ▶ 선교관 사용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소정양식의 사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문의 및 신청서 홍콩제일교회로).
- ▶ 단체일 경우, 단체장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혹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선교관 시설상 30명 이상의 단체는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취지 및 목적

본 선교관은 홍콩에 잠시 체류하는 중국선교 사역자들에게 휴식과 영적 재충전의 장소를 제공하고 선교 훈련 및 연구를 위한 Mission Centre로 사용하고자 홍콩제일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설립되었습니다(1995. 5. 28 개관).

시설

대지 약 1500Sf, 건평 약 2100Sf(각 층 약 700Sf)의 3층 건물로 숙소와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 바베큐장, 탁구대, 산책로, 조깅코스

1층: 휴게실, 주방, 관리실, 화장실, 도서실

2층: 예배실, 숙소(샤워실, 화장실/남)

3층: 세미나실, 숙소(샤워실, 화장실/여)

선교관 약도



중국선교 적응훈련

제 8 기 훈련생 모집

선교현장에 임하기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함은 선교사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실하게 중국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입니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투자하는 6개월은 결코 많은 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국선교훈련원



대상

- 교회,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단기 선교사.
-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 선교사.

참가인원 : 10명 내외.

선 발 : 본 훈련원의 훈련생 선발기준에 의함.

본 훈련원의 과정을 수료하면

-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적응 능력 배양.
- 생활중국어와 선교 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 중국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 구체화.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 96년 1월 3일~1월 31일

원서 접수 순서대로 면접하여 합격예정자를 결정, 개인 통보하고 훈련원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등록한 순서에 따라 합격 인원을 확정함.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1통

서약서(소정양식) - 1통

추천서(소정양식) - 3통

자기 소개서 - 1통

원서대금 및 접수비 : 원서대금 1,000원, 접수비 10,000원

개강예배 및 오리엔테이션

96년 3월 2일(토), 오후 1시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강의실

훈련내용

언어(선교중국어 집중훈련)

선교중국어 집중훈련 중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며 집중적인 언어훈련을 통해 생활중국어는 물론 성경, 전도, 찬양 등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함.

교육내용

전반(7주)/ 초급중국어1·2, 선교중국어 기본어휘, 사도신경, 주기도문, 회화(일반회화, 선교회화), 중국어찬양

후반(7주)/ 중국어성경, 회화(일반회화, 선교회화), 중국어찬양, 신앙독본, 중국어 특강, 청력 훈련

연구

중국문화 및 선교 연구세미나

매주 전문가들의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중국문화와 중국선교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임.

세미나 주제

중국문화개관, 중국고대사상, 중국공산주의 연구, 중국교회 현황과 선교전략 연구, 중국기독교사, 중국 타종교 이해 1·2, 최근 정세변화에 따른 선교대책, 근대 중국선교사와 선교방법론, 전문인선교, 한국에 있는 중국인 노동자선교, 산동선교의 경험과 교훈, 중국 정치인물론, 중국선교사역에 임하는 자세, 조선족 현황,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협력방안, 중국 선교에 있어서의 문서사역

합숙

중국어 공동체훈련

1회에 걸친 합숙훈련을 통해 강도높은 언어실습, 공동체 섬김 및 문화충격에 대한 적응능력 배양.

현지 연수과정 및 답사

언어실습, 문화적응, 선교비전의 확인을 위하여 96년 6월 중에 7주간에 걸쳐서 현지연수(6주) 및 답사(1주)를 실시.

훈련기간

1996년 3월 2일~1996년 8월 31일(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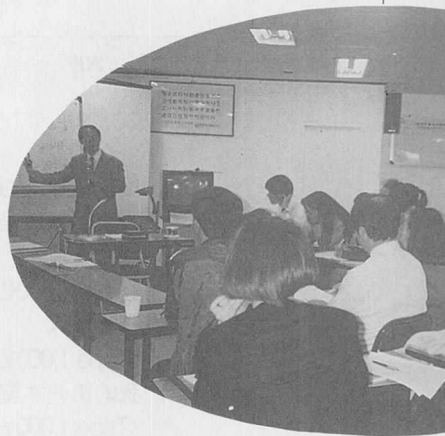
일 시

매주 월요일~금요일.

-월(오후 1시~5시 20분)

-화·수·목·금(오전 8시~12시 20분)

참 가 비 64만 원(합숙훈련, 현지연수 및 답사 경비는 별도)



문의 및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 - 7

신우빌딩 402호 우137-069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담당:장희락 총무)

TEL:594-8038, 535-4255, FAX : 599 - 2786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선교훈련원(원장:박성주 장로)은 중국선교를 위한 언어 훈련과 중국문화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9 기 훈련은 96년 9월에 개강합니다

성고도서 L 아내 L

중국선교 소책자 시리즈

- | | |
|--------------------------------|--------|
| 1.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조나단 차오 著 | 1,500원 |
| 2.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中文聖經信譯會 著 | 1,500원 |
| 3. 만남/ 中國教會中心 著 | 2,000원 |
| 4. 전도중국어/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 譯 | 1,500원 |

교재

- | | |
|---|---------|
| 1.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1,000원) | 2,000원 |
| 2. 經文背誦
(Tape:1,000원) | 1,500원 |
| 3. 神愛世人
(Tape:1,000원) | 2,000원 |
| 4. 我的第一本聖經
(Tape:1,000원) | 2,500원 |
| 5. 사복음서(現代中文譯本) 낭독 Tape:12개 | 12,000원 |
| 6. 信仰讀本
(Tape 2개:2,000원) | 7,000원 |
| 7. 中國語신약성경(和合本/한어병음 표기)
(Tape 25개:20,000원) | 10,000원 |
| 8. 中·韓 주제별 성경암송 카드(60구절:네비게이트 출판사) | 700원 |

*** 위의 7번 교재는 품질관계를 당분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담당 : 김바울 간사 (전화: 592-0132)

중국어문선교회 창립 6주년 감사예배 및 후원자 초청의 밤

할렐루야

때를 따라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는

창조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중국어문선교회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인 중국선교를 위해

함께 일하게 하신 지 어언 6년.

지난 6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그간 얼굴로 마주할 수 없었던 후원자 여러분과의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여기 마련하고자 합니다.

만사다난하시겠지만 이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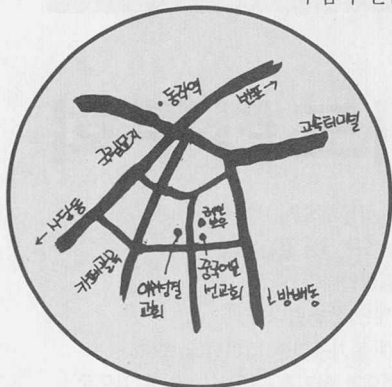
우리를 부르신 그 첫 감격을 되새기며, 함께 주님을 높이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함께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일시: 1995년 12월 11일(월요일) 저녁 7시~9시

장소: 이수성결교회(중국어문선교회 맞은 편)

중국선교의 유능한 길잡이

<중국을 주께로> 합정본(II)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교회, 선교단체 및 헌신자들의 필독서 <중국을 주께로>

1993년 1/2월호부터 1994년 11/12월호까지(통권 21호~30호)의 총권인 합정본Ⅱ에는 중국 교회와 중국선교에 대한 각종 연구, 논설문, 중국 소수민족 연구, 대륙성도의 간증 등 귀중한 정보와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합정본(II) 주요 내용

21호(93. 1, 2) 특집/ 중국의 이단(異端)

22호(93. 5, 6) 특집/ 중국의 소수민족

23호(93. 7, 8) 특집/ 화교를 생각한다

24호(93. 9, 10) 특집/ 한중 수교 1년을 생각한다

25호(93. 11, 12) 특집/ 한중 선교협정의 명암

26호(94. 1, 2) 중국 교회의 이해/ 중국에서 신학 상황화의 연구

27호(94. 5, 6) 특집/ 중국의 새 종교법규

28호(94. 7, 8) 특집/ 중국 지식인과 기독교

29호(94. 9, 10) 특집/ 중국의 여성

30호(94. 11, 12) 특집/ 중국 교회의 변화

가격: 30,000원 / 판매: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담당 정광숙 간사 Tel. 533-5497, 592-0132)

지방(경인, 수도권 제외)에 사시는 분에게는 우송해드립니다(우편요금 본인 부담).

1989년 창간호부터 1992년 11, 12월호까지 담긴 합정본(Ⅰ)은 현재 품절입니다.



중국을 주께로 기도함주회

오늘처럼 기도가 요구되는 시대가 있을까요?

그러나 요즘처럼 기도가 잠들어 있는 때도 드문 것 같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을 열어 짓히는 열쇠입니다.

우리를 엮매는 대적의 진영을 산산히 깨뜨려 버립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한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불가능이란 더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하기를 명하시는 일이 기도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중국이 변하길 원하십니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모이십시오.

중국을 위해,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로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위해 함께 무릎꿇읍시다.

'중국을 주께로 기도함주회'는

기도의 광장을 마련해 놓고 기도의 헌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 **문의** : 중국어문선교회 (Tel : 594-8038, 533-5497)

중국어문선교회는 이렇게 일합니다

중국어문선교회는 중국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섬김의 도와 지체의식으로 중국선교의 여러 사역 중 특히 중국어문(中國語文)과 관련된 선교사역을 초교파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주요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훈련사역

중국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선교지망자들을 위해 중국선교훈련원을 통해 중국어와 현지적응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중국어 교재개발 및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구사역

정기적으로 중국선교세미나를 개최하며, 국내외 선교정보의 수립 및 자료화, 중국교회 동향분석, 중국소수민족 및 각 성별 연구, 최근중국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중국선교 전략 연구 등의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문서사역

중국선교의 필요성과 전략이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격월간 **“중국을 주께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선교책자를 번역, 출판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신앙 및 신학서적을 중역(中譯)하는 일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방한중국인 전도사역

국내에 연수생으로 들어와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과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전도 및 제자화 양육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송선전도사역:

한국에 들어온 중국배에 매주 올라가 중국인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신우빌딩 301호/402호)
전화 / 594-8038, 535-4255, 533-5497, 592-0132
팩스 / 599-2786

섬기는 사람들

고문/방지일 목사, 김지일 장로, 대표/박성주 장로, 총무/이요한, 행정실 실장/김만섭, 재정간사/강영옥, 교육부 운영위원/김성곤, 간사/김바울, 연구부 운영위원/석은혜, 간사/권수영, 출판부 운영위원/석은혜, 간사/차이나정광숙·이민선, 훈련원 운영위원/장희락, 간사/김바울, 선교국 운영위원/박애린·정선영, 간사/임화평·안성자, 인천지부 책임봉사자/임현경, 파송연구원/주안도, 파견간사/김광석·주미애·최동신, 파송선교사/박애린(국내)·정선영(국내)·이성은(해외)·윤승일(해외), 협력선교사/주성자·고대위·이샤론·강성광·김상화·예보람·주애화·주은파



10만원대의 가격으로 도난경보, 리모컨시동, 삐삐를 이용한 원격시동까지 책임진다 「쌍-카스」

■ 삼성물산에서 개발한 X-ing 페이지

X-ing CarS는 최첨단의 기능을 갖춘 삼성물산 테크노밸리팀의 원격제어 "삐삐" X-ing을 이용한 차량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호출할 수 있는 장소면 어디서든지 원격제어가 가능한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입니다.



■ X-ing CarS의 혁신기능

혁신1

삐삐를 이용한 시동(예열, 냉·난방) 및 경보시스템 제어

삼성물산 테크노밸리팀의 "삐삐" X-ing을 이용한 차량 원격제어시스템이므로, 리모컨의 거리제한을 극복했습니다.

혁신3

음성을 통한 경보기 조작상태 설명(음선)

각종 경보기의 조작상태를 확인하는 사이렌을 대신 주요 조작기능을 사람의 음성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혁신2

작동거리 300m 이상의 리모컨을 이용한 원격시동(예열, 냉·난방) 및 경보시스템 제어
리모트 거리를 300m 이상으로 확대하여 원격시동 기능과 도난경보 기능을 리모컨으로도 간편하게 조정합니다.

혁신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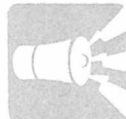
차량 도난 및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도난·경보 및 각종 편의장치

어떤 충격이나 도난으로부터도 차량을 완벽하게 보호할 뿐 아니라 각종 편의기능을 갖추었습니다.

300m

■ 최장의 리모트 거리 유지

리모트 원격시동 거리를 최장 300m (장애물이 없을 경우)로 확대하여 유효거리가 안정하게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 SIX TONE 사이렌 및 위급시 비상 사이렌 기능
- 사이렌 동작 시간 선택
- 공격 상황 통보 기능



- 엔진 예열기능(다절 차량)
- 벡 소리에 의한 경보동작 기능 식별
- 배터리 상태 점검 기능

- 주차시 남길 메세지 녹음 전달 기능(음선)
- 원터치 푸시버튼에 의한 기능정지 상태 전환 및 원격시동 예약
- 하차 30초후 자동 경보기 ON



■ 리모트 조작을 통한 각종기능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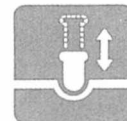
각종 경보를 유무, 자동 경보 커짐 유무 등 많은 기능들을 소비자가 리모콘 조작만으로도 쉽게 선택,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라이트 점멸에 의한 경보동작 기능 식별
- 원격 주차위치 확인
- TWO COLOR LED에 의한 경보기 동작 상태 구분표시



- 리모트에 의한 트렁크 열림
- 기능장치 중 원격 트렁크 OPEN 기능
- 차문 또는 트렁크 열림 확인 기능
- 도어 및 트렁크 열림, 충격감지 경보동작



- 자동 경보기 ON시 자동 도어 잠김
- 시동기 ON/OFF시 도어잠김 및 열림 (선택)
- 리모트와 삐삐에 의한 도어 잠김 및 열림
- 기능정지 중 원격 도어개폐 기능

Technopager
Cars
• X-ing CarS에서, CarS는 Car Start와 Car Security의 약어입니다

CK INTERNATIONAL CORP.

이 잡지를 보신 모든 분들
에게 20% 할인해 드립니다.
문의: 592-0132
김정하(012-207-8077)

중국은 지금



강성광 저
신국판/255쪽/값 5,000원

급변하는 중국의 실상은
무엇인가?

현지에서 선교사가
수년 간 발로 뛰며 자료를
모아 엮은 이 책을 통하여
오늘날 중국의 실상을
생생하고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다.

1부 중국은 지금

1.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상황과 변화
2. 교육 문제 및 새로운 추세
3. 농촌 현실과 문제
4. 위생과 의료 문제의 이해
5. 민공의 실태와 이해
6. 흔들리는 가정
7. 미신 열풍
8. 급증하는 자살률
9. 퍼져나가는 마약의 마수
10. 벼락부자들
11. 신장을 팝니다

2부 복음을 들고 중국을 알고

12. 중국 교회의 올바른 이해
13. 중국 선교의 가능성
14. 중국 선교의 실제적 준비
15. 지역별 선교전략

개혁과 개방 후 급변하는 중국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한 이 책은 중국선교 관심자에게 그리고 중국을 단기간 여행하거나 혹은 사업을 위해 방문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유학,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자는 외대 중국어과를 졸업한 후 홍콩에 거주하면서 대륙을 자주 왕래하며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어느 날 중국이 당면할 여러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선교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였습니다.

이 책은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폭넓은 시각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영구(외대 중국어과 교수)

조이선교회

전화 925-0415(영업), 929-3655(편집)

팩스 923-3016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1995년 11·12월호(통권36호)

발행처/ 시립(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 표/ 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하
편집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차이나·권수영·이민선
김현주·김은희
편집디자인/ 정광숙
광고·홍보/ 김정하
이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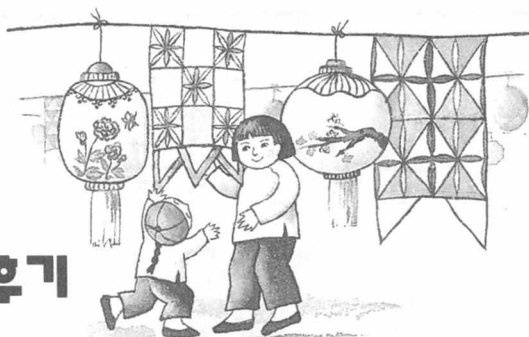
중국을 주께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5년 10월 10일
인쇄인/ 김수민(신성기회사)
값/ 3,5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훈련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594-8038, 535-4255
팩스: 599-2786
출판, 연구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전화: 533-5497, 592-0132
팩스: 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309호
전화: 032)872-0742
선교국(사랑의 집)
서울시 관악구 신림10동 306-67
전화: 873-2570, 889-1585

스마트폰 라인 지로번호
7602362



편집후기

너무도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다.
땅만 보고 바빠 바빠 걸던 이들도 한 번쯤 하늘을 올려
다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투명한 아름다움이 깃
들어있다.
우리들의 마음도 저처럼 텅텅이 맑았으면 하는 소망이
정로 난다.
이 소망과 함께 우리는 중국을 주께로 돌려드리기 위한
그런 간절한 소망을 보듬고 오늘도 열심히 전진하고 있
다.
특히 이번 호에는 중국선교에 있어 특별한 의미와 중요
성을 지니고 있는 대만과 대만선교 상황에 대한 특집
을 꾸며 보았다. 이 특집을 통해 우리 모두가 대만을 향
한 주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희망한다.

국의 정기구독료(1년)

항공우편

1지역	일본, 대만, 마카오 책값 21,000원, 우편료 9,720원, 합계 30,720원
2지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21,000원, 우편료 13,320원, 합계 34,320원
3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팔, 파키스탄 책값 21,000원, 우편료 19,320원, 합계 40,320원
4지역	유럽, 중남미,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책값 21,000원, 우편료 21,720원, 합계 42,720원

<중국을 주께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총판/ 크리스천 매거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14번지 방일빌딩A호 2-2
637-4161~4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301호)

137-06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301호)

137-069

정기구독 신청요령

아래의 정기구독 신청엽서에 기재사항을 모두 적으신 후 우체통에 넣어주시거나
직접 전화(02-533-5497, 02-592-0132, 담당자 정광숙 간사)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료를 시중은행 99번 창구에 가셔서 지로용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02362

중국을 주제로 독자카드(1995년 11,12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을 주께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제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께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정기구독 신청서(전화신청 및 문의: 정광숙 간사 Tel.02-533-5497, 02-592-0132

1.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하십시오.

☐ 신규구독 ☐ 재구독 ☐ 주소변경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 1년 21,000(6권) ☐ 2년 42,000(12권) ☐ 3년 63,000(18권)

2. 신청인 이름 (남, 여)

생년월일

배달주소(우 -)

전화: (집) (직장) 팩스:

교회명 직분

기타 요망사항

3. 주소변경; 성명 전화

변경주소(우 -)

* 주소는 통반까지 정확히, 그리고 우편번호도 꼭 기입해 주십시오.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선교사훈련원

CENTER FOR CHINA MISSION TRAINING

1996년도 학생모집

훈련의 목표

1. 중국전문 선교사 양성 및 파송
2. 현지훈련을 통한 선교지 적응능력 함양
3. 현지사역에 필요한 완벽한 언어구사

훈련특징

1. 중국 선교사역 전문가에 의한 실제 선교사 훈련
2. 중국 선교사역에 필요한 실제 교과목 구성
3. 24주 이상의 사역실습

학생모집

- 자격: 1. 중국 선교의 소명이 확실한 자로서 중국 선교사역에 평생 헌신할 자
2. 일반대학 또는 신학대학 졸업자(B.A 또는 Th.B 또는 M. Div 학위소지자)
3. 고등학교 졸업한 자로서 특정업무 4년이상 근무한 자
- 전형: 1. 원서교부 및 접수
2. 논술시험
3. 면접시험
4. 전형료 1만 원

- 제출서류: 1. 본인지원서(본원 소정양식)
2. 개인 신앙고백서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4. 반명함판 사진 2매
5. 추천 평가서(담임목사와 교수)

원서교부 및 접수: 1995년 10월 2일~11월 30일
시험일시: 논술시험(12월 18일), 면접시험(12월 19, 20일)
합격자 발표: 1995년 12월 27일
개원일시: 1996년 3월 2일

교과 및 학위

교과과정: 중국 선교사역 전문과정(96~97년)
교육기간: 2년(평일주간)-국내교육(18개월)
해외실습(6개월)

교육과목

중국어: 문법, 회화, 작문, 강독, 사역 중국어
중국사역학: 중국선교학, 현대의 중국선교, 중국교회의 지도자 훈련, 중국선교의 다양화, 목회상담학, 중국 선교사역의 실제(I, II), 중국선교세미나, 영성의 훈련과 관리
중국학: 중국의 문화와 풍속, 중국역사, 중국문학, 중국사상, 중국 기독교사, 현대 중국기독교사, 현대중국과 사회, 중국의 종교와 민간신앙, 중국연구지도
선교학: 현대선교학, 선교의 제문제, 타문화권 선교,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학위수여

중국선교학 석사(Master of Christian Studies in China Ministries)
중국선교학 증서(Diploma of China Ministries)

본 학위는 홍콩의 중국선교신학원(China Mission Seminary)의 인준학위임.

교수진 소개

전임

유 전 명/ 중국복음선교회 대표, 서울신대 강사

서울신대 신학과(Th.B)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Th.M)

의 건 미/ 고려대 강사

대만 국립정치대 중문과(B.A)

고려대 대학원 중문과(M.A)

왕 쓰 웨/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 소장

장신대 신학과(Th.B)

고려대 대학원 사학과(M.A)

연세대 대학원 신학과(Th.M)

김 은 해/ 중국복음선교회 선교사

명지대 중문과(B.A)

대만 중화복음신학원(M.Div)

중국선교사역학 전임교수

조나단 차오/ 현 홍콩 중국교회연구소(CCRC) 소장

국제 중국복음선교회(CMI) 총재

미국 제네바 대학(B.A)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M.Div)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Ph.D)

천 레 이/ 현 대만 도생신학원 원장

대만 국립중종대 임학과(B.S)

대만 중화복음신학원(M.Div)

미국 풀러신학교(Th.M, D.Miss)

로널드 위 / 현 홍콩 중국선교 신학원(CMS) 부원장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전기공학박사(B.S)

홍콩 중국신학대학원(M.Div)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Th.M)

천 웨이밍 / 현 중국선교 사역자

대만 보인대 법학과(B.L)

대만 중화복음신학교(M.Div)

리 제 / 현 중국 동부지역 선교사역자

왕 리 / 현 중국 동부지역 선교사역자

선교학 담당교수

전 호 진/ 현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

고신대 신학과(Th.B)

고신대 신대원(M.Div)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Th.M)

미국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D.Miss)

노 봉 린/ 현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

세계복음주의 신학협의회(WEF) 총무

미국 콜롬비아 성서대학(B.A)

미국 커버넌트 신학원(B.D)

미국 콘콜디아 루터관 신학원(Th.D)

김 태 연/ 현 한국 전문인선교훈련원(GPTI) 원장서리

외국어 대학교 중국어과(B.A)

침례교신학대학 신학대학원(M.Div)

미국 미드아메리카 침례교신학교(MARE, Th.D)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방 송 의
메 아 리**

**별목장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시골주부**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 다. 그런데 우연히 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 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지금 중국에 천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한답니 다. 어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 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북한지역
주민**

"하루는 새벽에 방송을 들으니까 함창(찬송)이 끝난 후에 어느 사람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그후 하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 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전파선교사
신.청.방.법**

①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6·9·1
영 육 구 원
(서울 320-0283, 0290)

② 어느 은행이든 99번 창구에 가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성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지로좌번호

1 · 1 · 2 · 0 · 6 · 9 · 1
일 일 이 - 영 육 구 원



기도와 헌금으로 북방선교 사역에 동역할
전파선교사 100,000명을 주옵소서!